

金東春(1957生)
駱山 庇雨學堂 學人

東國大學校 大學院
佛教學科(碩士)
史學科(博士課程修了)

佛教宗立光東學園
議政府光東高等學校
歷史老師
上求菩提 下化衆生

어원을 중심으로 인류
문화 탐색하고
여행하는 것이 취미
E - m a i l / /
tiangold@hanmail.net

저서
*천부경과 단군사화
(1986)
*한국어로 읽는 한국사
훈민정음에 숨겨진 인
류역사의 비밀
(2002)

《天符經과 檀君史話》

제1편 天符經/제2편 檀君史話/제3편 祭天史話/제4편 桓民族의 移動史話/제5편 < 一 >/부록:
천부경과 자연과학

《한국어로 읽는 한국사

훈민정음에 숨겨진 인류역사의 비밀》

제1장 한국사의 뿌리/제2장 한국인의 뿌리(I)/제3장 한국인의 뿌리(II)/제4장 한국어의 뿌리/제5
장 한국문화의 뿌리/제6장 인간의 생활과 자연법칙

<훈민정음에 담긴 인류문화사 제3장. 언어인류학적 문화사>의 내용 [1. ^한 문화시
대~10. 초 문화시대]의 생략 부분이다. 출판 과정에 특수문자의 인쇄문제로 생략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연구자들을 위하여 내용을 공개하니 참고
하기 바란다.

제3장. 언어인류학적 문화사

도표6. (훈민정음 체계로 본 천주(天柱)명칭표)를 기준으로 현생 인류의 문화를 살펴 보는데, 주로 신의 이름과 그것을 대신하는 천주의 이름을 대상으로 한다. 각 단어의 어간과 어미는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 소리의 대표음인 ‘ㅎ, ㅎ, ㅌ, ㅍ, 스’를 기본으로 하고, ‘ㄷ/ㅌ’의 변형음인 ‘ㄹ’를 덧붙여 살펴본다.

그리고 시대의 배열순서는 빙하기 시대의 가장 기본음인 ㅎ에서 시작하여, 훈민정음 자음의 ‘ㅂ소리/여름소리/늦여름소리/가을소리/겨울소리’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각 소리시대의 문화를 될 수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아메리카 지역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내용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되는 사항은 장(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각 소리시대마다 평어와 존어를 병행하여 살펴보는데, 대체로 존어는 평어에 ㅅ을 더한 것이다.

1. ㅎ 문화시대

(1) ㅎ ㅎ

1) ㅎ ㅎ

① ㅎ ㅎ > ㅎ ㅎ

현생인류 언어문화의 기층에는 대략 1.2-6.5만 년 전의 겨울소리 ‘ㅎ > ㅎ, ㅎ, ㅎ’로 시작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겨울소리의 근본 음은 뱃속 깊숙한 단전에서 올라오는 ‘ㅎ’소리이니, 겨울소리 시대 천주의 명칭은 ‘ㅎ’로 된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다음에 ‘ㅎ’에서 파생된 ‘ㅎ, ㅎ, ㅎ’, ‘ㅎㄴ, ㅎㄴ, ㅎㄴ’에 어미가 붙은 천주의 이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신의 기본적인 이름은 ‘ㅎ/ㅎㄴ/ㅎㅎ/ㅎㄴㅎ/ㅎㅎㄴ/ㅎㄴㅎㄴ’이고, 이것은 백만("million" or "millions")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이집트 어 heh(, ㅎㅎ), 신의 무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Heh (also Huh, Hah, Hauh, Huah, Hahuh, Hehu)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ㅎ ㅎ는 한국어 ‘하하, 히히, 호호, 헤헤, 후후, 호호’에 보듯이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hi/hey/heyho와 함께 신을 부르는 소리다. 신의 이름 ㅎ ㅎ(, ㅎ ㅎ)를 종족명으로 택한 것이 탄자니아 Iringa 지역에 살고 있는 Hehe 족, 그곳에서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Abia 주 Umuhaia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이후 이제까지 이동한 적이 없는 Ohuhu(=O+ huhu) 족(, Ohonhaw, Ohu-ahia-na-otu로도 불림), 모로코 서부 High Atlas에 살고 있는 Haha 또는 Iḥaḥan (= I+ ḥaḥan, in their own language) (Arabic حاحا Ḥaḥā)으로 불리는 베르베르 인이다.

はは(母):어머니, 사물을 만들어 내는 근원, 원천.

① あきれてため息をもらす声 ② ああ ③ 何かを悟ったときに発する声④奈良なら시대에는 ファファ, 平安へいあん시대에는 ファフ라고 발음되었다. 院政期いんせいきの사본인 「元永本古今集げんえいほんこきんしゅう」에는 「はわ」라고 씌어진 예가 있다

언어표8. (はは)

일본어 へへ(母)에는 ‘へへ’의 원래 의미가 잘 간직되어 있다. 한국어 ‘へへ’와 일본의 오가사와라 군도에 소속되어 있는 Haha-jima 섬과 캐나다 Newfoundland 섬의 북부 반도에 있는 작은 천연 만인 Ha Ha 만,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주의 Hopi 족의 조상령(祖上靈)의 일부본인 Hahai-i Wuhti / He-e-e / Hú / Huruing Wuhti 의 이름을 보면, ‘へへ’ 문화는 후기구석기 시대 해안을 따라 아메리카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He-e-e(, Warrior Woman, and other warrior or guard kachinas.)는 여전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니, 모계사회시절 여성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었던 시절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아마도 이들이 아마존의 여전사로 불리는 집단의 시조일 것이다.

아마도 애리조나 주의 Hopi 족의 후기구석기시대 조상들이 남겼을 Hahai-i Wuhti / He-e-e / Hú / Huruing Wuhti 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와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Hohokam 문화가 있다. 이 문화는 미국 Arizona 주의 힐라(Gila) 강과 Slat 강 배수 저지대를 중심으로 BC 300 또는 기원전후-AD 1450의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이 1990년대에 Santa Cruz 강을 따라서 이루어진 Tucson 분지 유역을 조사한 결과 Hohokam 문화족의 조상들이 BC 2000 아주 초기에 Arizona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의 구전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Pima 족과 Tohono O'odham 족("Desert People")의 조상들이었다.

Hohokam은 Hobokam, Huhugam and Huhukam으로도 발음표기되는데, O'odham 족의 말로 huhu-kam은 "all used up" 이란 뜻이라고 하지만, 이는 호호백발(皤皤白髮 a white-headed old man)의 상태가 되어 버린 사람,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매우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인류 문화적 뿌리는 아시아의 ‘へへ’(언어표3. (はは))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들은 후기구석기시대에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へへ(huhu-kam)’가 둘을 이어주는 끈이다. Hohokam을 Hobokam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아프리카의 헵/헵-헵-킴 문화와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것은 (4)헵 헵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へへ>へへ’ 또는 ‘헵 헵>へへ’의 ‘へ-’음으로 나타내지는 Hu (hw, ‘へへ>へ-’)는 ‘창조’를 나타내는 최초의 말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슬람 신앙의 수피즘의 Hu or Huwa는 Allah 또는 God과 같이 사용되며 신의 이름 내지는 강조어로 사용되는데, 아랍 어로 직역하면 "He" 이어서, 이슬람의 Allah Hu는 "God, Just He!" "God himself"를 의미한다. 히브리 어 ה' (h' :神)와 해모수(解慕漱[jiě,jiè,xiè])의 ‘해(解)’ 역시 ‘へ- > 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2) 𐏃 𐏃 > 𐏃-

𐏃 𐏃의 존칭어에 해당하는 𐏃 𐏃는 ‘𐏃 𐏃 > 𐏃 𐏃 > 𐏃-’의 과정을 거친 𐏃 (𐏃, 𐏃口, 𐏃〇)과 ‘𐏃 𐏃 > 𐏃 𐏃 > 𐏃 𐏃 > 𐏃-’의 과정을 거친 𐏃 (은, 음, 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𐏃 > 𐏃

구석기 시대의 ‘𐏃’은 ‘𐏃, 𐏃, 𐏃’으로 발음되는데, ‘𐏃 (훈, 흙, 흥)’의 발음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𐏃의 어휘적 의미는 "부드럽고 자비로운(mild, merciful)"의 뜻으로 사용되는 포에니(카르타고)어 Hanno, 아랍어 Hanan (حنان), 히브리어 Hanan (חנן), 레바논어 Hanna, (حنا)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Hanno · Hanan · Hanna는 ‘훈’ · ‘훈’으로 표기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어 존칭 접미사 ‘님’을 붙이면, ‘훈님 · 훈님 · 훈님’이 된다. 이렇게 훈님으로 불리던 것이 Hurrians의 모신(母神) Hannahannah이고, 아르메니아 운명의 여신 Arm의 딸 Hannah이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어머니가 ‘𐏃 𐏃/훈’ 여신이었다.

몽골족은 그들이 푸른 늑대와 하얀 사슴의 후손이라는 시조 신화를 믿고 있는데, 몽골어로 늑대는 "chono", "china" or "shina"이라 하고, 이는 ‘𐏃 > 훈, 𐏃, 𐏃’을 발음한 것이다. 이 단어는 늑대를 길들여 가축화한 개를 라틴어로 canis(칸), 아르메니아어로 shun(순), 사냥개를 영어로 hound(훈)라고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늑대와 개가 천주 ‘𐏃’으로 불리었던 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화를 계승하여 지켜온 사람들 중의 일부가 BC 3세기-AD 460년대에 중앙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초원에 살았던 유목민 연맹체 흉노(匈奴)와 아마도 AD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유목민 훈족(Huns)일 것이고, 훈족과 관련 있는 것이 파키스탄 편자브 지역의 Potohar 지구에서 주로 발견되는 Hon 또는 Hun 또는 때때로 Hoon으로 불리는 무슬림 Rajput 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훈(Hon, Hun, Hoon)으로 불리던 부족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𐏃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과 가까운 Transoxania and Bactria 지역에 Xionites, Chionites, or Chionitae (Middle Persian: Xiyon; Avestan: Xiiaona; Sogdian: Xwn; Pahlavi: Huna), or Hunni, Yun or Xūn (獯) 족이 살았는데, 이들 역시 𐏃 문화의 계승자로 볼 수 있다.

흉노와 관련된 ‘𐏃/𐏃’에 관한 것은 스 문화시대 ‘스’ 항목(‘𐏃 > 훈, 𐏃, 𐏃 > 스투’)에서 다시 다루게 되고, 철기시대의 훈에 관한 것은 제4장에서 살펴보게 된다.

② 𐏃 > 𐏃

‘𐏃 > 흙, 𐏃, 𐏃’으로 발음되는 것 중 ‘흙’과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흙(Ham)은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 Noah의 아들 이름으로 나오고, 그 외 부분에는 이집트를

Ham의 나라("the land of Ham")로 부르는 것(Psalms 78:51; 105:23,27; 106:22; 1Ch 4:40)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Ham(Hebrew: חַם, Modern ḤamTiberian Ḥām; Greek Χαμ, Kham; Arabic: حَام, Ḥām, "hot" or "burnt")의 발음을 보면, ḥ(ḥ)이 원(原)어원이다. 그리고 하늘을 뜻하는 독일어 Himmel, 아이슬란드어 himinn을 참고할 적에, ḥ의 일차적 의미는 천(天)또는 천신(天神)을 뜻한다.

이집트를 Ham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한 때 천(신) Ham을 주신으로 모셨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살고 있는 Himba(=Him+ba) 족의 이름에서도 ḥ(ḥ)을 볼 수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지역까지 ḥ(ḥ) 문화가 퍼진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ḥ(ḥ)은 보통 'ḥ+브'의 형태로 널리 퍼져 나갔는데, 이에 대한 것은 'ḥ브'항목에서 다시 살펴보게 된다.

'ḥ'은 현대 한국어 '힘(力)'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하늘이 준 생명의 원천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ḥ(ḥ)신과 관련된 가장 대중화된 스와힐리 어는 탄자니아 북부 지방의 "hamna shida", 남부 지방의 "hamna tabu"이다. "hamna shida"와 "hamna tabu"는 만화영화 라이언 킹의 노래가사에 나오는 "Hakuna matata" ("no worries" (문자적 직역 "there isn't a problem/trouble"))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작 탄자니아의 토착민 스와힐리어 사용자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문화는 발칸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의 국경에는 Hum (Serbian Cyrillic: Хум) 산이 있고,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는 Hum (Trebinje), Hum (Bugojno) 마을이 있고, 독일어 Himmel, 아이슬란드어 himinn이 있다. 영어 home(집)은 원래 ḥ(ḥ)신을 모셨던 신전을 지칭하던 말에서 유래되었다. 보통 콧노래로 번역되는 hum(,humming)은 신을 맞이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Hom은 중앙아메리카 마야인 등이 사용하는 전통 악기로 트럼펫 같이 생겼는데, 이는 하느님의 소리를 전하는 악기다

마야인의 Hom이 사용되는 곳은 힐라(Gila) 강 유역에 살고 있는 O'odham 족의 거주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다. 힐라(Gila) 강은 인디언보호구역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Hohokam 문화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Colorado 강의 지류로 멕시코 Sonora 주 북부를 흐르면서 매우 오랫동안 원주민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었다. Gila(/'hi : lə/) 강의 이름은 부족에 따라 다른데, O'odham [Pima] 족은 Keli Akimel or 간단히 Akimel로 부른다.

Quechan 족은 Haa Si'il로 부른다. 힐라(Gila)는 Yuma 족의 말 Hah-quah-sa-eel(염분이 끼어 있는 강물)이 스페인 어와 접촉하여 형성된 말이라고 하는데, 강은 보통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ah-quah는 'ḥ-ḥ-'는 신의 이름일 것이고, Quechan 족의 Haa Si'il을 통해 강의 신 이름은 ḥ-(,ḥ-)이다. ḥ-(,ḥ-)의 준어 표현이 ḥ(ḥ)이다. 검색창:Gila River 검색창:Hohokam

이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삶의 전통적인 양식(traditional way of life)은 himdagī, 때로는 영어식 표기 Him-dak으로 표현된다. himdagī에 보이는 Him은 천(天)또는 천신(天神)을 나타내는 ḥ(ḥ)을 나타낸 말로 볼 수 있다. 이를 믿고 따르는 남아프리카의 Himba(=Him+ba) 족의 다른 표현이 아메리카의 himdagī이고, 그 중간 지역에 한국어 힘(力)과 '-데기'가 있다.

{-데기: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에 관련한 성질이나 속성을 갖춘 사람의 뜻과 알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은근짜(慇懃-)'의 경기 방언/1.몰래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2.겉으로는 어리석은 체하나 속으로는 영리한 사람을 이르는 말. 데기:1. 작은 언덕 또는 작은 재(평북 방언)}, '데기'는 한자어 체(體[tǐ,tì]몸, 신체(身體), 수족, 모양, 형상, 용모, 격식, 점괘(占卦))로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힘-데기'는 himdagī로 나타낼 수 있고, 데기:1. 작은 언덕 또는 작은 재(평북 방언)와 관련된 것은 Sweet Water Village (O'odham: S-i'ovī Shu:dagī)에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힐라(Gila)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Hohokam / himdagī 문화권의 멕시코의 Sonora 주, 미국 Arizona 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한반도 평안북도 지역을 거쳐 아메리카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 지도의 15,000 -20,000 BP 선에 잘 요약되어 있다.

③ ㄷㄹ > ㄷㅇ

'ㄷㄹ(, ㄷㅇ) > ㅎ'으로 발음되면서 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Hyang이 있다. Hyang은 바다를 근거지로 살아가는 오스트로네시아 사람의 애니미즘과 다이내미즘(animism and dynamism)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초자연적 힘을 가진 정령의 존재인데, 이는 신성(神聖)한 조상신과 결부되어 있다. 고대 순다인·자바인·발리인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Hyang"과 동일시되었었는데, 현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Kawi,Javanese,Sundanese, Balinese)에서는 신(gods,devata,or God)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성한 영들은 '산·언덕·화산'과 같은 고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이러한 고산준령 지역은 kahyangan으로 불리며 신들과 조상 영들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성역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지금 인도네시아 힌두교의 svarga 또는 기독교의 heaven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순다인들의 용어 "nga-hyang"은 '사라지다 또는 보이지 않는'(, "disappear" or "unseen")을 뜻하는데, "nga"는 아프리카 Ngai(<ㄷㄹ ㄱ)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고, "hyang"은 오스트로네시아 해양 문화의 자생적 전통 정령을 나타낸 것이니, "nga-hyang"은 인도네시아 순다 지역에서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두 문화가 만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와 오스트로네시아 문화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것은 sembah-hyang (, "worship the hyang")에서도 볼 수 있다.

kahyangan(=ka+hyang+ an)에서 "ka"는 '고(高)', "an"은 장소(place)를 뜻하는 어미이다. "nga-hyang"은 '사라지다 또는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이니, 이를 고려하면 hyang은 '허(虛[xū])'로 번역할 수 있고, 'ka+hyang+ an'은 '고허촌(高墟村)'으로 변안된다. 그리고 hyang은 신적인 높은 분을 뜻하는 단어이니, 이는 한자어 '형(兄)'으로 나타낼 수 있고, kahyangan은 형산(兄山)으로 변안할 수도 있다.

3) 𐎠𐎡 > 𐎠𐎢

① 𐎠𐎢

‘𐎠𐎢’는 한국어 ‘아하 !’, 독일어 Ach, 러시아어 Ax(Akh)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감탄사로 남아 있다. 신(神)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는 “알라후 아흐바르(알라 신은 위대하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아흐바르와 루흐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알라 외에는 신이 없노라(쿠란 9:30-31)”에서 볼 수 있고, 조로아스터교에는 ‘아흐리만(Ahriman 파괴의 영)’이 있다. 북 아프리카 알제리 남부의 아하가르(Ahaggar) 고원 대지에서 중동 지방 사이에는 이슬람교가 퍼져있는데, 이슬람 문화계통의 인명이나 지명에는 아흐마디야(Ahmadiyah), 알 아흐사이(al-Ahsai), 바흐르알아흐마르(Bahr al-Ahmar)에서 보듯이 ‘아흐(Ah)’가 많이 사용된다.

몽골에서는 천신을 아흐 텡그리(Akh tenger, Aq-a tngri)로 부른다. 갈라이한 에흐(Galaikhan ekh:불의 신 어머니), 나란 에첵 사란 에흐(Naran etseg saran ekh 해님 아버지 달님 어머니), 에투겐 에흐(Etügen ekh 대지의 어머니)에서 보듯이 신과 같은 존재를 지칭할 때는 에흐(ekh)를 붙인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록 티베트 분(Bon) 교의 𐎠𐎢(Iha)가 있다.

𐎠𐎢는 빙하기의 빙기 시절에 신을 찬탄하면서 부르던 소리였고, 이 신의 상징동물 명칭이 이집트 어 **aha rw**("warrior lion")이고, 이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이 히브리인의 이름 Aaron, 아랍 인의 혼한 남성 이름 Harun (,Haroon or Haroun, Hārūn)이다. 이 이름은 아마도 당시 신관을 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② 𐎠𐎣

‘𐎠𐎢>𐎠𐎣’의 음으로 된 것은 대체로 ‘아아! 오오! 우우!’와 같이 감탄사가 많다.

4) 𐎠𐎤 > 𐎠𐎥 > 𐎠𐎦-

① 𐎠𐎤->𐎠𐎥->은-

𐎠𐎤 이 은으로 발음된 것은 아프리카 케냐의 Kamba, Kikuyu and Maasai 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최고신 Ngai (Enkai, En-kai, Engai, Eng-ai, Mweai, Mwiai)의 En에서 볼 수 있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창조여신 An은 초기 상형문자에는 젓통에서 비를 내려 주는 소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고, 아카드 인의 만신전에는 Antu 또는 Antum (add the name in cuneiform please an=𐎠 shar=?)으로 나온다.

은(An)을 모셨던 수메르의 사제통치자를 EN (Borger 2003 nr. 164 𐎠𐎤; U+ 12097 𐎠𐎤, see also ENSI)이라 하였는데, 이는 원래 수메르 도시 국가 Uruk의 보호신이면서 수호의 임무를 띤 정치지도자("lord" or "priest")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나중에 EN은 DEN.LÍL DEN.KI DEN.GURUN DEN.ZU En-hedu-ana와 같이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En은 BC 10세기 경 발칸 반도 서부지역과 이탈리아 반도 남동 해안(Messapia) 지역에 있었던 고대 일리리아(Illyria) 신화의 신 이름에도 보이고, 고대 알바니아의 최고신

이면서 신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enjite라는 단어로 남아 있다.

② 𐤀𐤍-→𐤀𐤍-→음-

‘𐤀𐤍>𐤀𐤍>음’과 관련된 것은 우선 에티오피아의 암하라(Amhara)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일부 역사가들은 ‘암하라’가 고대 예멘 지역에 있었던 Himyarite (Himyar, Homerite)왕국(BC 110-AD 520s)의 이름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았다. Him은 𐤀𐤍을 나타내는 말이고, 암하라의 음(Am)은 ‘𐤀𐤍>𐤀𐤍>음’의 과정을 거친 신 또는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다. 에티오피아의 ‘𐤀𐤍(Him)>음(Am)’은 Ama, Ima, Imu, Uma 등의 표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화 흔적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서아프리카의 투아레그 사회는 **imūšay (Imajaghan, The Proud and Free)**로 불리는 최고 지배층과 인도의 크샤트리아에 해당하는 전사지배층에 의해 통치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집단을 조직하고, 다른 부족을 습격하여 가축을 약탈을 하기도 하고, 장거리 무역 대상을 습격하기도 한다.

Tuareg 족은 그들 자신 스스로는 **Imuhagh** 또는 **Imushagh** (북 베르베르 족의 말 **Imazighen**과 동종어)로 자칭한다. 남자는 Amajagh (var. Amashegh, Amahagh), 여자는 Tamajaq (var. Tamasheq, Tamahaq, Timajaghen)으로 부르는데, 이는 자유인 ("freemen")이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장인과 노예를 고용할 수 있는 최고지배층을 칭하는 말이다.

이들의 남자 칭호에는 𐤀𐤍(**Imu, Ima, Ama**)가 공통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유럽 신화의 거인 Im or Imr, 아나톨리아 고원의 천둥폭풍번개의 신 테슈브(Teshub, Teshup or Tešup; cuneiform dIM)를 설형문자로 IM으로 표기하는 것,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조네스(Amazons (Greek: Ἀμαζόνες, Amazónes, singular Ἀμαζών, Amazon)), 이란어 *ha-mazan-("전사집단")과 *ama-janah("남성-살인"), 그리고 이슬람의 지도자 imam (imām, pl. a'immah), Amhara의 통속적 어원 Ge'ez 어 "am"("people")+ "h.ara"("free" or "soldier"), 그리고 태평양 Samoa 국 Upolu 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Safata 지구의 전쟁 시 최고 정치장이면서 군사령관직명 Ama에서 볼 수 있고, 티베트어 ‘엄지’(âmji, 醫師), 한국어 ‘엄지’, 그리고 임나가라의 ‘임나’와도 관련 있다.

그리고 Ama의 형태로 된 것으로 산스크리트어 ambā와 팔리어 ammā는 어머니 또는 선녀(善女)의 뜻이고, 일본어 Ama(海人, あま)는 해녀(海女)인데, 남자 해사(海士) 역시 Ama로 부른다. 해산물 중에서 주로 진주를 채취하는 전문인들인 이들을 오키나와에서는 우민추(uminchu: うみんちゅ) 또는 kaito (かいと, 이즈 Izu 반도)라고 부르는데, 《만엽집》같은 고대 기록에는, 이들이 白水郎으로 기록되어 있다(筑前国과 규슈 지방). 이는 𐤀𐤍(Ama, Uma)가 𐤀𐤍(kaito), 𐤀𐤍(Bisu 白水[bái][shuǐ])와 같이 사회의 지배층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주어 amban(신하, 대인(大人))과 ambasa(대인들), omhø(공(公))도 그렇다.

음 문화는 한국어 음(암, 엄, 읊, 읊, 임)과 연관되는 기층문화어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무기[이:--]’는 “용이 되려다 못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로 알려져 있는 “열대 지방에 사는 거대한 뱀을 흔히 이르는 말”이다. 이무기는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의 뇌룡

으로 한자로는 이매(螭魅)로 표기되는데, 중국어로는 chimei/螭魅("a mountain demon")로 불리어지는 산의 악마로 취급되었지만, 실제로 chimei는 산 위에서 천둥번개를 쳐 비를 내리게 하는 번개를 나타낸다. 이와 관계있는 것이 일본어 Amaderas(아마테라스) *あまてらす*(天照らす)의 'Ama'(天 *あま*)와 흑룡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무르(Amur) 강이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음 문화로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라틴 족의 왕 Latinus의 아내 Amata가 있다. 그녀는 Palanto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Amata의 문화 위에 Palanto의 문화가 얹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랑스 Nice 지방 Boron 산기슭에는 노천 유적지 Terra Amata("Amata의 들")가 있다. 대략 400,000-230,000 BC 경의 것으로 유럽 최초 불 사용지역 중의 한 곳이다. 이곳의 지명과 북유럽 라트비아 Gauja 국립공원을 흐르는 급류 Amata 강을 통해 북유럽에도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Uma의 형태로 된 것은 Haplogroup 지도에 인류의 기원지로 표시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남부'사이를 흐르는 베누에 강 주변에 Tiv 족의 말 Uma("Life")가 있고, Uma와 같은 음의 것으로 인도네시아 Sulawesi 섬의 중앙과 서부 지역의 Uma 어, 하와이 원주민의 가장 대중적인 레슬링 게임 Uma, 히브리 인(Hebrew/Aramaic)과 인도인의 이름 Uma가 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주거지를 한국어로 움집 또는 움막(a dugout, a mud hut, 穴藏)이라 하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지역으로 떨어진 곳에 사는 Mentawai 인과 Gajo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전통 가옥을 Uma라 하고, 철기시대 이후 사회 모습을 담은 '나라("Nation")'를 Hebrew/Aramaic 어로 Uma라 한다.

③ ㅎㄴ>ㅇㄴ->ㅇ-

'ㅇ'으로 발음되는 것으로는 왕족을 가리키는 크메르 말 "ang"이 있는데, 이는 보통 '왕자'나 '왕녀'로 번역된다. 이는 한자어 '왕(王[wáng, wàng])'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ㅎㄷ

1) ㅎㄷ>ㅎㄱ

'ㅎㄷ>ㅎㄱ'의 음으로 된 것은 'ㅎ(, ㅎ)'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ㅎ(, ㅎ)/h₁ ég(, heqa)'은 해(sun)와 번갯불("fire", "lightning" and the "Sun")을 나타낸다. h₁ ég을 종족명으로 택하였던 것이 대략 BC 1720경에 세력을 키워 하이집트와 중이집트 시대의 동(東)나일 델타를 108년간(고대 이집트의 제15왕조 및 제16왕조, 1663-1555 BC) 통치하였던 히소스족(Hyksos or Hycsos (/ˈhɪksɒs/ or /ˈhɪksɒz/; 이집트 어 heqa khaseshet, "ruler(s) of the foreign countries"; 그리스 어 Ἰκσῶς, Ἰξῶς)이다. 이들은 다양한 여러 종족이 합쳐져 이루어졌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이념이 h₁ ég(, heqa)이었고, 이것은 아랍 어 Ḥaqq, Ḥaḳīqa(진리, truth)로 남은 듯하다.

'ㅎㄱ'를 종교적 의식으로 개발한 것이 Heka (/ˈheka/; 이집트 어: Ḥk3; Hike, "magic")인데, Heka 의식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ㄱ(Ka, Koi)/"g" (ㄱ)를 활신화(活神化)하게 하는 것(activating the Ka; 'Ka'/"g" (ㄱ)에도 ㅎ(, 해, sun)(, "to shine")의 의미가 있다.)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이 의식을 통하여 신들을 통제할 수 있고, 영적인 보호와 치료,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집트의 Haka는 해외로 전파되었을 것인데, 뉴질랜드 마오리 족이 조상 대대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의식을 치르면서 행하였던 전통 춤을 Haka라고 한다. 아주 많은 종류의 Haka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Ka Mate"이다.

이집트와 마오리 족의 Haka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명으로서의 Hakha (Burmese: ၵၵၵ ၵၵၵ; MLCTS: ha: hka: mrui., : [hákʰá mjǒ]; 전에는 Haka, Halkha로도 말해졌다)는 미얀마 서부에 있는 Chin 주의 주도로 1400년에 Lai 족에 의해 세워졌다. 스페인 동북부 우에스카 주에도 작은 도시 하카(스페인어: Jaca, 아라곤어 아라곤어: Chaca)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Ebro 분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작은 부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부족의 이름으로서의 Hakha와 관련된 것으로 러시아 연방 하카스 자치공화국에 사는 터키계 하카스 족(Khakass, Khakas, Hakas—族)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 하카인(客家, Hak-kâ)이 있다. 이들의 뿌리를 후한 시대 북중국에서 찾지만, 중국의 유테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원천적 뿌리는 아마도 터키계 하카스 족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들은 ၵၵၵ (이집트어: Hk3)문화를 계승해온 집단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지에서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일 정도로 다른 집단으로 변화해간 듯하다.

2) ၵၵၵ > ၵၵၵ

ၵၵၵ의 존어 ‘ၵၵၵ(ၵၵၵ)>ၵၵၵ, ၵၵၵ, ၵၵၵ’의 발음 중에 ‘ၵၵၵ’의 음은 주로 일본 역사서에 가야 연맹 지도자의 칭호로 기록되어 있는 ‘한기(旱岐[hàn][qí]かんき, ぎ)’에서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왕을 뜻하지만, 원래 의미는 에스토니아 어 hangi("stro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 키쿠우 어로 hangi는 오락적으로 착용하는 귀걸이를 뜻하는데, 귀걸이 장신구는 원래 지배층의 상징이었다. 즉 한기(旱岐), hangi는 원래 ‘ၵၵၵ/ၵၵၵ(ၵၵၵ)’문화시절의 사제통치자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의 아주 오래된 모습은 뉴기니아 마오리 족의 Hāngi(['ha : ŋi])에서 볼 수 있다.

Hangi는 땅에 구덩이를 향아리 모양으로 파고 그 속에 돌을 놓아 불로 달구고, 음식 재료를 그 속에 넣어 요리하는 법을 칭하는 말인데, 지금은 간편하게 냄비 속에 음식재료와 달걀 돌을 넣어 요리하기도 한다. 이는 지금도 특별한 때에 행하는 마오리 족의 전통 문화다. 이것이 hangi/Hyang/한기’와 음이 같은 것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요리하고, 제사를 끝낸 다음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ၵၵၵ로 불리었던 신관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나누어 주는 존재를 몽골어로 ၵၵၵ(ၵၵၵ, 향가이 Khangai) 라고 한다. {Khangai = "khangai-"("provide, supply with necessities")+ "-ai":명사형접미사 }에서 유래된 Khangai는 보통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한 왕(provident lord, munificent king, generous gracious lord or bountiful king)’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현재 몽골 중부 울란바토르에서 서쪽 400km 거리에 있는 향가이 산맥(Khangai

mountains)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몽골어 "khanga-"는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의 음역어로 보면 된다. 몽골어 Khangai는 가야의 한기, 아프리카의 hangi, 마오리족의 Hāngi(['ha : ŋi]), 에스토니아 어 hangi, 고(古)Norse 어 Hangi(북유럽 Odin 신의 이름, 의미 Hanged One), 헝가리 어 hang up과 같은 말이다.

이외에 ‘한기(旱岐)’와 같은 지배자의 칭호를 성씨로 택한 것으로는 체코의 철학자 Wenceslaus Hanka Czech: Vác(es)lav Hanka 1791-1861), 아프리카 잔지바르의 수상이었던 Abdullah Kassim Hanga (1932-1969)가 있다. 그리고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가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로 발음되는 경우로는 인도네시아의 소설가 겸 철학자, 정치적 행동주의자였던 Abdul Malik Karim Amrullah의 별명이었던 Hamka가 있다.

이 외에 ᄃᆞᆫᄃᆞᆫ는 인도 Maharashtra 주에 있는 Hanga 강과 Hanga 마을 이름, 그리고 뉴질랜드의 Hanga Roa 강과 Hanga Roa 마을 이름에서 볼 수 있는데, Hanga Roa 강은 ᄃᆞᆫᄃᆞᆫ 만(Hawke Bay)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Hawke/Hanga는 후기구석기 시대에 이곳에 정착하였던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 문화인들이 남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부연하여 이와 관련된 한국문화의 ‘한가위’는 음력 7월 16일-8월15일의 한 달 동안 길쌈대회를 하고, 그 여흥을 즐기던 축제 가배(嘉俳[jiā][pái]かはい)와 관계있다.(《삼국사기:유리니사금》 이 행사에 많은 음식이 제공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가위는 몽골어 Khangai와 관련 있을 것 같고, 몽골 풍습 이전에 마오리 족의 Hāngi ('ha : ŋi), 인도네시아의 Hyang와도 관계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단 어로 "nga-hyang"은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는(,"disappear" or "unseen")’이란 뜻인데, "nga"는 아프리카의 Ngai(<ᄃᆞᆫᄃᆞᆫ) 신을 칭하는 말이고, hyang은 인도네시아의 정령을 뜻하는 말이다. "nga-hyang"의 발음이 가배(嘉俳[jiā][pái])의 일본어 발음(Kahai카하이,かはい)과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반도 지역으로 이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한자어 발음 ‘가배’를 ‘ᄃᆞᆫᄃᆞᆫ’로 표기하면, 이는 신을 의미하는 ‘가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를 통해 ‘한가위’에는 여러 시대의 문화가 중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몽골어 ‘ᄃᆞᆫᄃᆞᆫ/항가이(Khangai)’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가위’는 아마도 고려 시대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널리 성행하였던 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문화는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것인데, 나바호 족의 조상들이 한반도 남부 지방을 거쳐 이동하였다는 것은 화장실(똥간)을 일컫는 경남 방언 ‘호간’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지만 경남의 호간은 보통 집 뒤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는데, 시집간 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오면 호간에 좌정하고 있는 신에게 아이를 먼저 인사를 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앓고 큰일 난다고 믿었다. 이는 부엌의 아궁이에 집의 불신이 좌정하고 있으면서 집안을 지키고 돌보듯이, 호간에 좌정하고 있는 신은 집안의 건강을 지키고 돌보아준다는 것이다. 이 신의 신전을 호간이라 하였는데, 이를 똥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위상이 다른 신들에게 밀려난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렇지만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은 이를 원래 의미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

ᄃᆞᆫᄃᆞᆫ의 준어 형태인 ᄃᆞᆫᄃᆞᆫ의 음으로 된 것이 나바호 족의 신전이면서, 일상생활의 집을

일컫는 말 hooghan(/'hoʊgɑ : n/ or /'hoʊgən/; from Navajo hooghan [ho : ʃan])이다. 나바호 족의 전통제의 "The Blessingway" (hozhooji)에는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 그리고 Talking God을 위해서 코요테(를 믿는 족)가 비버(를 믿는 족)들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hogan을 지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호간은 기둥이 없이 벽과 지붕만으로 만들어지는데, 출입문은 부와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내고, 남자들의 집은 활 모양으로, 여자들의 집은 임신한 배의 볼록한 모습으로 지붕을 짓는다. 이는 원래 신전이었는데, 나중에 살림집이 된 것이다.

신전의 이름을 나바호 족은 hooghan, Western Apache 족은 gowaḥ, Chiricahua 족은 guughḥ or kuughḥ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의 이름은 ‘^{꺠꺠꺠}>^{꺠꺠꺠}>^{꺠꺠꺠}-꺠, 꺠-꺠’으로 볼 수 있고, 이는 Hohokam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영어 hogan은 ‘여성의 가슴이 붓긔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여자들의 집은 임신한 배의 볼록한 모습으로 지붕을 짓는’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이를 통해 호간 신은 여신이였음을 알 수 있다.

나바호 족의 전통제의(傳統祭儀 Navajo song ceremonial complex)는 사람들의 삶에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고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제의에 정통한 의식전문가/신관(神官)들에 의해 진행되는 신성한 종교적 풍습으로 "The Blessingway" (hozhooji)와 "the Enemy Way" (Ana'í Ndáá')로 이루어져 있다. "The Blessingway" (hozhooji)의 원래 이름 hozhooji는 ho+z:존어접미사 hoo+ji:존어접미사=ho님 hoo님}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꺠꺠(hoho, huhu) 신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이름이다.

The Blessing Way에서 진행되는 의식과 기도는‘치료, 창조, 조화,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의식의 노래말(song cycles)에는 the Blessing Way 안에 포함된 의식들과 관계있는 나바호 족의 창세가(創世歌)가 담겨있다. 모든 의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경을 치르고 여인으로 전환하는 젊은 여성이 행하는 Kinaaldá 의식이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녀는 세상의 풍요를 맡고 있는 누들 아씨(Changing Woman (Asdzáá Nádleehé))의 역할을 행한다.

Asdzáá Nádleehé ([àsɬá : nátlè : hé]) (also spelled Ahsonnutli, Etsanatilehi, and Etsanatilehi in older sources)는 조화신녀(造化神女"the woman who changes")라는 뜻인데, 나바호 족의 창조신 중의 하나이고, 천지창조에 일조하였다. Kinaaldá 의식에는 여러 날에 걸쳐 소녀가 매 새벽마다 머리를 빗고 큰 옥수수 빵, 또는 alkaan을 굽고 하는, 힘든 과정을 다 참고 행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the Blessing Way에는 예비 산모를 위한 의식도 있다.

"the Enemy Way" (Ana'í Ndáá')는 해를 끼치는 악령(ghost) chindi,(Navajo: ch'íidi)를 저지하는 전통의식이고, 이것의 일부는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전몰장병들을 위해서 행해졌다. 이 의식에는 ‘노래, 모래그림(sandpainting), 무용, 그리고 막강한 괴물의 살해’가 포함되어 있다. 의식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는데, 모의전투의 상연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악령(ghost) chindi를 막고 괴물을 살해하고, 모래그림을 그리는 의식은 티베트에서 설날(정월 1일)에 행하는 찰(Cham)과 매우 비슷하다.

나바호 사람들은 망자의 마지막 숨이 멈출 때 chindi가 육체를 떠난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망자의 뼈나 사용하던 물건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질병 ("ghost sickness")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버리고 사용하던 일체의 물건도 다 부수어버린다. 망자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이는 chindi가 듣고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집이나 hogan, 건물 안에서 죽으면, 그것들은 chindi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기고 모두 버렸다. 이는 한국의 장례 풍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삼우제(三虞祭) 때 망자의 유품을 태워버리는데, 집은 버릴 수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

옥저에 세굴장 풍습이 있었고 살림집 근처에 가족공동용 목관을 보관하는 곳간/guugħa or kuugħa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호간은 아마도 chindi가 살고 있는 곳/사당(祠堂)이지 않았을까 한다. 그곳은 원래 조상신이 살고 있는 곳이니, 어린 아이를 그에게 인사시키는 것은 조상의 존재와 아이의 소속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의미는 퇴색되고, 조상신의 신당/사당이었던 호간은 뒷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호간이 뒷간으로 되어버리는 정도로 사회적 위상이 변해 버린 것이 chindi(,Navajo: ch'iidii)이다. 원래 이 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던 지도자의 칭호이었을 것인데, 그가 죽어 저승신이 되면서 무섭고 기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망자의 혼령 chindi와 관련 있는 단어로는 '지노귀:죽은 사람의 혼이 극락으로 가도록 하는 곳'가 있다. chindi(츠ん즈<츠ん드)는 ch'iidii(츠즈<츠드)의 준어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제3장. 9.츠/츠 문화 시대에서 다룬다.

망자의 혼령 chindi와 관련 있는 한국어는 끼니로 먹는 음식을 높여 이르는 말 '진지 [진:-지]' ≤소학언4:12≥가 있다. 진지는 원래 왕에게 올리는 '수라'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chindi(츠ん즈<츠ん드)에게 올리던 음식을 칭하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이 허용된 보통 명사가 되었다. '진지'는 '수라'와 같이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며, 그에게 올리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호간과 진지, 지노귀'는 매우 오래된 문화어이다.

그리고 "the Enemy Way" (Ana'í Ndáá')에는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전몰장병들을 위한 의식이 있는데, 이는 신라와 고려에서 실시되었던 팔관회(八關會)와 관련이 있다. 신라 진흥왕은 10월 전통제의 기간에 불교와 전통신앙을 적절히 접합하여 전몰장병을 위한 호국 법회의 하나로 팔관법회를 외사(外寺)에서 7일 동안 시행하였다고 전하는데, 외사(外寺)는 집 뒤에 마련되어 있었던 호간(hoogħan)을 불교식으로 계승한 것이고, 팔관법회는 "the Enemy Way" (Ana'í Ndáá')를 불교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팔관회는 개경(11월 15일), 서경(10월 15일)의 두 곳에서 열렸는데, 개경의 것은 왕이 주관하면서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축하할 정도로 축제의 성격이 많으니, 이는 "The Blessingway" (hozhooji)에 해당하고, 서경의 것은 보통 재상들이 가서 조상신을 모시는 예조제(藝祖祭)로 진행되었으니, 이는 "the Enemy Way" (Ana'í Ndáá')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고려 때까지 나바호 족이 행하였던 "The Blessingway" (hozhooji)와 "the Enemy Way" (Ana'í Ndáá')에 해당하는 전통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풍속 중에 나바호 족의 전통제의와 관계있는 것을 굳이

찾는다면, 신라 가배(嘉俳) 행사 때 행한 길쌈대회와 진편의 여인이 불렀다는 ‘회소곡’(會蘇曲[hui,kuài][sū][qū,qǔ])의 이름이 있다. 길쌈대회는 Asdzáá Nádleehé (IPA: [ástá : nátlè : hé])가 행하는 Kinaaldá 의식과 관련 있고, ‘회소곡([hui,kuài][sū][qū,qǔ])’이 매우 슬펐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한국 민속에 주로 망자와 관련된 노래로 불리는 회심곡(回心曲/悔心曲)의 원형일 듯한데, 이는 나바호 족의 "the Enemy Way" (Ana’í Ndáá’)와 관계있을 듯하다. Enemy는 망자의 chindi(,Navajo: ch’íidii)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바호 족의 신 이름 가운데 ‘회소곡([hui,kuài][sū][qū,qǔ])’의 음과 가장 근접한 것은 나바호 족의 창세신화 Diné Bahane’ (Navajo: "Story of the People")에 나오는 신들 { Haashch’ééti’i(,Talking God) / Tó Neinilí(,Water Sprinkler) / Haashch’ée’ooghaan(, House God) / Haashch’éeshzhini’(,the god of fire) }의 이름에 보이는 Haashch’ée일 듯하다. 회소곡은 Haashch’ée 신을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고, 이들 신에게 망자를 잘 부탁하는 의미의 노래 가사를 담고 있을 것이다. 회소곡은 아마도 "the Enemy Way" (Ana’í Ndáá’) 의식 때 전몰장병을 위해 불렀을 것이다. 이것이 신라 진흥왕 때 불교와 만나면서 불교적인 가사로 많이 바뀌어 회심곡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회소곡이 회심곡의 원래 이름일 것이다.

3) ㅎㄷ > ㄹ

‘ㅎㄷ > ㅎㄷ(, ㅎㄷ) > ㄹ(, ㄹ)’의 발음과정을 거친, ‘ㄹ(, ㄹ)’로 불리는 문화현상은 ‘ㅎㄷ’로 불리는 문화 현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 에야시(Eyasi) 호수 지대에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이어온 Hadze(ㅎ쯔, ㅎ츠) 족이 살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ㅎㄷ > ㅎㄷ > ㅎㄷ > ㅎ쯔 > ㅎ쯔(Hadze)’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의 역사 제1기 조상은 Akakaanebe라고 한다. Akakaanebe에 보이는 ‘Aka’는 ‘ㅎㄷ > ㄹ’의 과정을 거친 말이고, 이들이 사는 곳에서 서아프리카의 ‘카메룬-나이지리아’를 향해 길게 뻗어있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대에서 부족명 ㄹ(Aka)를 많이 볼 수 있다.

콩고 분지 서부 지역의 Mbenga or Bambenga (AKA Ba-Binga),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Aka or Mòáka (AKA (Ba)Yaka, Bayaga, Gbayaka, Biaka, Beká), 카메룬 · 가봉 · 콩고 공화국의 Baka (AKA Bibaya), 카메룬의 Gyele or Ba/Bo-gieli (AKA Bonjiel(i), Bako, Bekoe, Bakola, Bakuele, Likoya), 이투리(Ituri) 우림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의 Mbuti or Bambuti, 르완다 · 부룬디 · 콩고민주공화국 · 우간다의 Twa or Batwa (AKA Gesera) 등이, 아프리카 지역의 ㄹ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면 서아프리카 현생인류 고향 중의 한 곳인 카메룬 · 나이지리아 지역이 나온다. 1970 년대에 나이지리아의 Igbo 족의 심장 지역으로 결정된 ‘Owerri, Okigwe, Orlu, Awgu, Udi and Awka ’ 등의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Anambra 주의 주도(州都) Awka (Igbo: Qka)이다.

Awka는 Igbo 족 문명의 요람지였는데, 이곳 최초의 정착민은 Ifiteana 족으로 Ogwugwu 냇가의 독을 따라 살면서 농경과 수렵, 제철업에 종사하였었다. Ifiteana 족의 신은 Okika-na-ube 또는 ‘창을 매우 잘 쓰는 신’으로 알려졌었고, 그들은 Umu-Okanube 또는 Okanube의 숭배자로 알려져 있었다. Umu-Okanube는 줄여서 Umu-Oka, Oka로 부르는데, 영국식 표기로는 "Awka"로 알려져 있다. Ifiteana 족의 신 Okika-na-ube, Umu-Okanube, Okanube를 가장 간단히 줄인 것이, ㄹ꺠(Qka, "Awka")이고, 이는 ㄹ꺠(‘Auku or ‘Uka))로도 표기된다.

나이지리아와의 국경에 가까운 카메룬 북서 지역에 성층화산 Oku 산(3011 m)이 있다. 카메룬에서는 Fako 산이 가장 높고(Cameroon Mountain or Fako (the name of the higher of its two peaks) or by its native name Mongo ma Ndemi ("Mountain of Greatness"), 다음으로 Oku 산이 높다. Fako 산과 Oku 산이 있는 카메룬의 서부고원지대 화산 지역은 중앙아프리카와 서부 sub-Saharan 지역에서 가장 높다. 화산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생명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대략 6.5만-7.5만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Toba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하였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멀면서 적도대의 따뜻한 기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안 지역 화산지대인, 이곳은 당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 이 지역의 Haplogroup A00의 조상들은 Fako 산과 Oku 산을 천주(天柱)로 삼아 생존하였었고, 그 후손들은 이 두 산신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나이지리아의 Ofo and Ogu를 믿어왔던 것이다. 이 산의 이름을 딴 카메룬의 Oku는 36개 마을이 소속된 카메룬 북서 지역의 지명이자,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Oku 어, 이 지역의 주민을 칭하는 명칭이다. 이들은 Oku를 신앙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ㄹ꺠 문화에서 눈여겨볼 것은 Igbo 족이 인과응보적인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Ofo and Ogu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 고발되어 피의자로 된 사람에 대해서는 Ofo and Ogu가 철저히 끝까지 옹고 그름을 밝혀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오직 Ogu-na-Ofo에게 떳떳한 사람만이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Ofo and Ogu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사람은 천둥번개의 신 Amadioha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천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Ofo and Ogu는 ‘ㄹ꺠와 ㄹ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주변의 서아프리카의 아칸(Akan) 족과 에티오피아의 가장 오랜 전통어를 보존하고 있는 아가우(Agau 또는 Agaw) 족, akka라는 말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셈어계의 사람들 또한 아프리카의 ㄹ꺠 문화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지역을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하였는데, 제정일치시대 수메르 문명의 Kish 국 최초 왕조의 마지막으로 왕 Aga 가 있었다. <길가메쉬 서사시(Epic of Gilgamesh)>와 수메르 초기 문헌 《Bilgames and Akka》에 나오는데, Akka와 Aga는 동일 인물이다.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Akka와 Aga는 ㄹ꺠(, ㄹ꺠)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의 이름은 신관통치자의 칭호 ㄹ꺠(, ㄹ꺠)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다만 제도

인도와 동남아 사이에 있는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Great Andamanese, Jarawa, Onge, Sentinelese and the extinct Jangil)들은 6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은 섬에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19세기 영국이 진출해오기 전까지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진 불씨를 보존해서 사용했었다.

그들의 언어는 { 남부 지역(Aka-Bea 또는 Bea ,혹은 Bale (절멸종))//, 중앙 지역(Aka-Kede 또는 Kede (절멸종), Aka-Kol 또는 Kol (절멸종).Oko-Juwoi 또는 Juwoi (절멸종), A-Pucikwar 또는 Pucikwar (절멸종)// 북부 지역 Aka-Cari 또는 Chari (절멸종), Aka-Kora 또는 Kora (절멸종), Aka-Jeru 또는 Jeru, Aka-Bo 또는 Bo (절멸종)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언어의 이름에 거의 공통적으로 Aka-가 들어있다. 이는 ㄹᄃ 문화 기반 위에 다른 문화가 들어와 얹혀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안다만 제도의 Aka를 통해 6만 년 전 사람들은 Aka를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chief" or "foremost")'이란 의미로 사용하는 "Agga"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안다만 제도로 내려간 사람들이 남긴 말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전해진 말일 수도 있다.

Agga Maha Thiri Thudhamma (Grand Commander) of the Thiri Thudhamma Thingaha (Order of Truth), Agga Maha Thray Sithu (Grand Commander) of the Pyidaungsu Sithu Thingaha (Order of the Union of Burma)

인도 · 중국 · 일본 · 한국

안다만 제도에는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ㄹᄃ 문화족이 살아왔었다. 그렇다면 인도에도 그 정도로 오랜 ㄹᄃ 문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인도에 남아 있는 ㄹᄃ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Agni([äg'nē]) 신이 있다. agni의 원(原)인도유럽어 어근은 *h₁ égni-("fire", "lightning" and the "Sun")이니, 'ᄃᄃ(h₁ ég)>ㄹᄃ(Ag)'로 된 것이다. 힌두교가 발달하면서 종교화된 Agni는 “인드라에 버금가는 신으로 태양, 번개불, 예배용 화롯불과 동일시된다. 제사에서 쓰는 불로부터 신격화된 아그니는 신들의 입이자 제물을 전달하는 자이며,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의 중개자이다.” 《위키 백과:아그니》

Agni는 한국문화어로는 부엌의 '아궁이 신(神)'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민속에는 한자어 조왕신(竈王神)으로 되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23일(旧曆12月23日, 해에 따라서는 24日을) 제조절(祭竈節) 또는 조왕절(竈王節) 이라 하여 부엌을 대청소하고, “천제(天帝)에게 가정이 원만해지도록 알려주십사” 하고 조왕신에게 기도를 하였다. 이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정월(正月)을 맞이하는 준비 의식의 일부였다. 중국의 조왕절은 천문학이 발달한 후대에 정립된 동지를 기준으로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문화와 이전의 아궁이 문화의 풍습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조왕신을 kamadokami(かまど神) 이라 부르고, 이를 불의 신이면서 농업과 가축,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도 믿는다. 일본의 신도(神道)에는

Okitsuhihiko 오킥츠히코(奥津日子神)·Okitsuhihime 오킥츠히메 (奥津比売命)·Kagutsuchi 카구츠히치 (軻遇突智、火産靈) 의 조삼주신(竈三柱神)이 있다. 오킥츠히코·오킥츠히메는 조왕신(竈之神)이고, 카구츠히치 (homusubi 호무스비) 는 불의 신(火之神)이다. 오(奥[ào]속, **아랫목, 안**, 나라의 안)를 oki(오키)로 읽는데, 이는 오카(Ag)의 다른 발음이다.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대부분 도시국가에 있어서 사회의 기본 단위는 oikos(οἶκος, 복수: οἴκου)인데, 안방을 oikos로 부른다. 이것은 집의 사회적 가장은 최고령 남성이었지만, 실제적 주인은 "Hestia" 여신을 모시는 안방마님 oikos였다는 것이다. 즉 고대 그리스에서는 oikos (안방 마님)이 hestia 여신을 모시고 가정의 불과 질서를 지켰던 것이다.

그리스 어 oikos(안방마님)와 일본어 Okaa おかあさん(御母さん) 어머니/엄마, Oka おっかさん 어머니/남의 집 주부를 일컫는 말, Oku おくさま(奥様, 奥様) ① 부인 ② 아주머니의 음훈이 일치하는 것은 두 지역이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oikos)·인도(Agni)·한국(아궁이)·일본(오키)에서 모두 오카의 음으로 된 것이 불신과 관련 있다는 것은, 아마도 카메룬의 Oku 화산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주한 오카 문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Oku 화산에서 하느님의 불씨를 집으로 가져와 신으로 모시면서, 아궁이의 불(씨)을 지키는 안방마님을 지역에 따라 Oku, oikos, おかあさん, おくさま, 그리고 Agni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오카)은 곧 신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Agni와 관련된 많은 의식 중에 한국의 윷과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인도 베다 시대에는 Agni 신을 찬양하는 동물희생제가 자주 열렸다. 여러 의식 중에 Pasuyajña가 있는데, 이것에는 여러 제물과 yupa로 불리는 팔각형으로 다듬어진 나무 막대기에 제물로 묶여진 희생동물(숫염소, 말, 또는 황소)이 받쳐졌다. 《Shatapatha Brahmana (VI.ii.1.2-3)》에는 다섯 동물들 또는 희생제물들로 ‘사람/황소/말/양/숫염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Agni 신이 들어와 현신(現身)한 희생제물이다. "Yupa"를 통해 한국의 윷놀이는 인도의 Agni 신에게 받치는 희생제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gni 신에게 받쳐지는 희생물을 묶는 나무 기둥 yupa는 윷가락 4개, 다섯 희생물(사람/황소/말/양/숫염소)은 윷의 말이 머무르는 다섯 지점(도/개/걸/윷/모)과 일치한다. 그리고 윷판의 도형 자체는 천체도의 요약판이다. 그래서 윷놀이는 Agni 신에게 받칠 희생제물을 천궁(天宮)으로 보내는 제의 과정을 놀이화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윷놀이는 ‘사회(柶戲)’ 또는 ‘척사희(擲柶戲)’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이 방식을 보고 붙인 이름이다.

한국 윷놀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북아메리카 뉴멕시코 주 인디언의 ‘경마놀이(Horserace Game)’가 있다. 북아메리카의 경마놀이판은 부여의 ‘사출 도(四出道)’를 연상케 하는 점이 있다. 이 놀이를 하는 북아메리카의 뉴멕시코 주 케레스 족(The Keres Indians), 소노로 족(The Sonoro Indians), 티구아 족(Tigua Indians)의 부족명과 멕시코 Sonoro 주의 지명을 고려하면, 이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생활하다가,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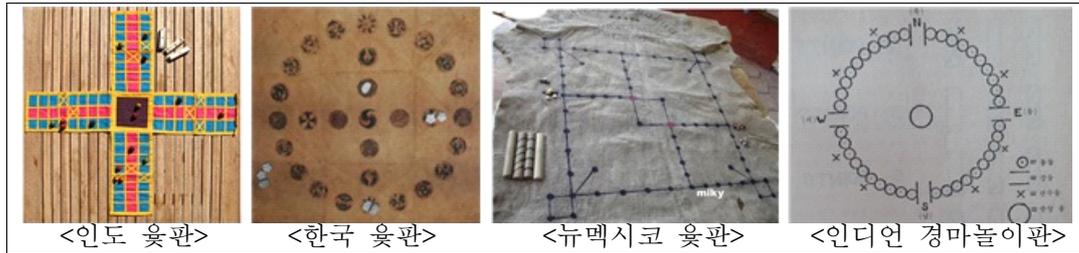


도표7. (윗판)

도표7. (윗판) 자료와 관련된 것은 《Wikipedia:Yut, Pachisi, Chaupar》, 《인류문명의 기원과 한, 김상일 엮음, pp54-57》, 《Allan and Paulette Macfarlan, Handbook of American Indian GAMES (New York:Dover Publications, Inca., 1958)》을 참고하면 된다. 이 자료들을 통해 윗놀이의 기원은 AD 4~5세기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태평양 주변

약 6만 년 전 인류는 당시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오크 문화는 현재 아라비아 반도 남단 해안, 인도 해안을 거쳐 인도네시아 주변 해안 지대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륙 지역의 오크 문화는 이 항목의 뒷부분에서 다루고, 구석기시대 해안지대에서 살기 좋았던 인도네시아-태평양 주변의 오크 문화를 먼저 살펴본다.

오크(, 오크)는 Aka/Aga/Agha로 발음되었지만, 오구/오키(Auki)로도 발음되었는데, 이 흔적은 구석기 시대의 해안가를 따라 동북으로 올라오면 필리핀과 일본 중간 지점, 현재 일본 영토의 서쪽 지역인 오키나와 沖縄(おきなわ) Okinawa, 행정 구역상 일본 시마네 현 오키 군에 소속되어 있는 오키 제도(일본어:隱岐諸島(おきしょとう) 또는 오키 군도(일본어:隱岐群島(おきぐんとう), 이곳에 있었던 오키 국(隱岐国(おきのくに), 시마네 현의 오키 군 맞은편의 한반도 동해안‘오구곶’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죽은 영혼을 위한 곳이지만, 부산 지방에 한해서 ‘산오구곶·생오구곶·생축제(生祝祭)’로 불린다. 이를 통해 ‘오구’는 원래 통치신관이었고, 죽어서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뉴기니아 섬의 동쪽 솔로몬 군도에 소속되어 있는 Malaita 주의 주도인 Auki와 ‘Uvea or Fiji 섬에서 1580년경 5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통가 섬을 점령 지배하였던 ‘Uluaki-mata의 하인이었던 ‘Auku (or ‘Uka)에게서도 볼 수 있다.

‘Uluaki-mata는 Tu‘i Tonga 왕가에 속하는 왕인데, 왕가의 시조 ‘Aho‘eitu는 AD 900년경 Popua와 Hahake 지구의 다른 곳들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랐었다. 하인의 이름

‘Auku (or ‘Uka)를 통해, 태평양에도 ‘오크>오크’ 문화가 전해졌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집안은 오래된 오크 문화의 신관이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의해 Tonga 왕조의 지배를 당하는 하인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동유럽

후기 구석기 시대 Haplogroup C3 계열의 사람들은 유라시아 동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지금의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섬 부근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올라갔고, 이어 러시아의 치타 시 일대에서 길을 나누어 이동하였다. 이들은 적어도 53,000-60,000년 전에 출현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C-M130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몽골·러시아 극동지역·폴리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토착 원주민 사이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들은 인도네시아 Toba 화산 폭발 이후 생존하였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이들은 대략 40,000년 전 인구증가, 기온변화 등의 요인으로 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해안을 따라 북상하였기 때문에 북아시아·동부아시아·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은 약 6,000-8,000년 전으로 믿어지고, 북아메리카 북서태평양 지역의 Na-Dené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가 대략 4만 년 전부터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Na-Dené 어 사용자들은 아시아의 C-M130 중에 신석기 시대 최고 기온 상승기에 북아메리카로 이주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도표3. (Y-DNA Haplogroups에 의거한 인류이동로) 지도를 참고하면 Haplogroup N1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서부 산맥 줄기를 타고 바이칼 호 서부 지역으로 올라온 다음,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과 만주 지역 위의 북 시베리아 지역으로 나뉘어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퍼져나간 지역은 Haplogroup C3 투르크 족의 활동지역이기도 한데, Haplogroup N1의 원적지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어 ‘아가씨’를 gadis(인도네시아어), Girlie(자바어), girlie(이그보어), Kērli(타밀어), kmengosrei(캄보디아어), Dēk phūh̄yng(태국어), Mēye(벵골어)로 부르고 있다. 이 지역의 ‘아가씨’를 뜻하는 단어에는 ‘으ᄃ’음이 없고, 언어 연대학적으로 그 이후 시대의 소리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으ᄃ 문화는 구석기 시대 4-6만 년 전에 형성된 말이고, 이 말은 유라시아 해안을 따라 한국어/만주어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Haplogroup C3의 이주를 따라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에 통구스 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말에 ‘누이(, 저(姐[jiě])’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으ᄃ(əgə 또는 əkə, əxə, əxi, əki, 아가씨)’가 있다. 이 말은 가정의 불(씨)을 지키는 안방마님을 칭하는 Agni, Oku, oikos, おかあさん, おくさま와 같이 여신관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남성지도자를 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동북아시아의 만주에서 Age ("阿哥")는 왕의 부계 왕족과 귀족을 표시하는 명예스러운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청 황실의 왕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곤 했다. 한국어 ‘아가/아기’는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 신관의 자식으로 네팔의 쿠마리와 같은 ‘신동(神童)/신녀(神女)’의 위치에 있었던 하느님의 핏덩어리(일본어 Akanbouあかんぼう(赤ん坊))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으ㄹ/아가씨’ 와 관련 있는 말	
Evenki 어(埃文基語)	əki, əkɛ_(e위에 대시), əkə_(ə위에 대시), əkə_kə_, ikə_, əkə_j (1)저(姐), (2)수자(嫂子:칭호), 嫂[sāo]형수,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의 뜻으로도 쓰인다, 부인의 노칭(老稱)
Solon 어(索倫語)	əxī, aká, eké, okín, okcí “ (1)저(姐), (2)연장(年長)의 (여자)
랍목특어(拉穆特語)	əkə_(ə위에 대시), əki (1)저(姐), (2)수자(嫂子:칭호) (3)모(母)(칭호)
Negidal 어(涅基達尼)	əgə, əxī, əxə, əxəj, okoj (1)저(姐), (2)수자(嫂子)(칭호)
Oroch 어(奧洛奇語)	əgə, əkə, əxə, (1)저(姐), (2)형수(兄嫂)(칭호) əki (1)저(姐), (2)형수(兄嫂) əkən əʒə 주부(主婦), 여주인(女主人)(칭호)
Udege 어(烏德蓋語)	əxi(n) (1)저(姐) (2)부모지매(父母之妹) (3)(부모어릴 적에 비해)연장녀(年長女) əxə (1)저(姐), (2)수수(嫂嫂)(칭호)
Nanai어(納乃語)	əgə저(姐)(칭호) əjkə, əki(n) 저(姐) əktə(복수 əkər, əkəsəl) 여자(女子)
만어(滿語)	əjun(복수 əjutə), əjən 저(姐)
《여진어, 만어 연구(女眞語, 滿語 研究)》, (金東昭 저, 황유복 역, 신세계출판사, 북경, PP185-188)	

언어표9. (으ㄹ/아가씨)

이렇게 지배자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으ㄹ’은 Haplogroup C3 집단의 서진으로 널리 확산되었는데, 고대 투르크 어 aqa("elder brother")에서 파생된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는 형(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의 어원을 *ək'v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으ㄹ+ㅅ’로 표기할 수 있으며, ‘ㅅ’는 일본어 ‘보- -ぼう(坊) 1.(승려 이름 밑에 붙어) ...스님. 2.남을 조롱하는 말. 3.에칭(あかんぼう)’의 인칭접미사로 남아 있는데, 원래는 신(神)을 나타내는 존칭접미사였고, 나중에 그 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를 참고하면 Aga/Agha는 ‘으ㄹㅅ>으ㄹㅅ>으ㄹㅅ>으ㄹㅅ>으ㄹㅅ>으ㄹㅅ>’의 과정을 거친 말로 볼 수 있다.

고대 투르크 족의 ‘으ㄹ(Agha, also Aga (Ottoman Turkish/Arabic: آغا): ağa "chief, master, lord", Persian: آقا)’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행정과 관련된 고위 지배층의 명예로운 직책으로 사용되었고, 간혹 사법관의 직명에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진출하였던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튀니지에서는 agha를 지역 통치자의 칭호와 가족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에서는 Agha/Aga가 가족의 성씨로 사용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직책명과 가족 성씨로 사용되고, Kurdistan에서는 부족장 또는 최고 부족장이나 마을의 우두머리,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지주를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서양 지역에 살고 있는 투르크 인들은 조부를 뜻하는 말로 Aga를 사용하는데, 이는 조부가 가족의 모든 일에 절대권을 지니는 족장이었던 시절의 문화를 보여 준다. 페르시아에서는 최고위의 남성을 칭하는 말로 Agha가 사용되고, 발칸반도의 루마니아에서는 사법부 관리 agie의 총지휘자를 aga로 부르곤 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 신앙자 집단인 Moro 족은 Aga/Agha를 품위 있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Moro 족은 오스만 제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오스만 제국의 종교였던 이슬람 문화를 통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유럽

북극 해안을 따라 순록을 치면서 이동하였던 사람들이 살았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은카를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Aga는 가족의 성씨로 사용되는데, 그들은 Aga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였던 특정 집단의 후예일 것이다. 이렇게 신관집단의 가족 관계 용어로 은카(은마)가 사용된 것은 Agha Ganda 또는 Agha Gunda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고, 아르메니아에서는 Aghasyan 또는 Aghassian의 형태로 사용된다.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연결한 서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는 아프리카/아시아의 오래된 문화가 거의 그대로 잘 남아 있는 편인데, 그 중에 주목할 것은 Ukk이다. Ukko는 핀란드 신화에 있어 하늘, 날씨, 추수 그리고 천둥 번개의 신이다. 종종 Äijä 또는 Äijö (핀란드 어: 조부(祖父), 노인, 천둥)로도 불리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유일한 토착 원주민이랄 수 있는 Sami(,Sámi 또는 Saami) 족이 숭배하는 Aijeke(또는 Ajeke)와 거의 비슷한 신이다.

‘조부 또는 증조부’라는 의미의 Aijeke는 천둥신인데, 번개를 상징하는 뜻을 정수리에 박고, 해머를 몸에 걸친 장승으로 묘사된다. Äijä는 ‘은카>은즈’로 발음된 것인데, 한국어 아재(‘아저씨’를 낮추어 이르는 말, ‘고모’의 방언), 중국어 阿姐 [ājie](누님, 언니, 손위의 젊은 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칭호)와 음이 비슷하다. ‘Äijä와 아재, 阿姐 [ājie]’는 ‘여자’의 의미가 있는 원시 퉁구스 어 äki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Aga 성씨는 원시 퉁구스 어 äki 집단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핀란드 어 Äijä, Äijö, Aijeke와 백제 근초고왕 때의 천제(天際)를 지냈던 신관이었거나 또는 그 집안 출신이었을 것으로 고려되는 ‘아직기(阿直岐 [ā,á,e-][zhí][qí]) 또는 아직길사(阿直吉師)’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Sami 족이 사는 지역과 만주 초원의 부여는 mtDNA Haplogroup X에 의해 연결되고, 부여에서 남하한 집단은 백제 왕실의 중심 세력이다.

결과적으로 북유럽-부여-백제는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핀란드 어 Äijä, Äijö, Sami족의 Aijeke 신, 부여 지역의 Oroch 어 äkən ə3ə /나나이 어 əjkə, əki(n) 저(姐)/만어(滿語) əjun(복수 əjutə), əjən 저(姐), 백제의 아직기, 한국어 ‘아재/아저씨’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4) ㄸㄴ ㄹ>은ㄴ

① 은ㄴ

세르비아에서는 Anna를 은카(Anka)로 변형하여 부르는데, Anna는 그리스 이름 Avva와 히브리어 이름 Hannah (Hebrew: חַנָּה Ḥannāh, "favor" or "grace")를 라틴어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여자 이름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이름 Ḥannah (חַנָּה)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변형체로 Hanna, Hana, Chana, Anna, Ana, Ann, Anne, Anča, Ance, Ancsa, Anechka, Aneta, Anett, Anelie 등등 매우 많다. 이들 이름은 모두 ‘ㄸㄴ’에 인칭접미사

‘ㄱ, ㄴ, ㅌ, ㄹ, ㅍ’가 붙은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은꺈는 아랍 어 العنقاء al-‘anqā’("the phoenix"), 이에서 파생된 별자리 이름 Ankaa로 사용된다. Anka는 나이지리아 Zamfara 주의 지방 정부가 있는 지역의 명칭이다.

② 음꺈

‘음꺈’의 발음으로 된 것으로는 이집트 제1왕조 Djer, Djet 그리고 Den 세 파라오를 섬겼던 원로 대신 Amka가 있었다. Amqu (also Amka, Amki, Amq)는 1350-1335 BC 시기의 Amarna 문자 문학 자료집에 현재 레바논 동부에 있는 Beqaa 계곡에 있었던 지역 이름으로 나오는데, Hatti 왕과 관계있다. 그리고 기독교 성경 여호수아 19:27에 나오는 도시 Beth Ha-Emek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지명 Amka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시절에 Kefar Amqa로 불리는 마을이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명은 인명으로 사용된 Amka와 관계있을 것이고, 음꺈(Amka)의 뜻은 한국어 ‘엄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응꺈

응꺈의 의미

이집트 신화의 핵심적 요소는 Ka, Ba, Akh, Ib(heart), Sheut(Shadow), Ren(name)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꺈(Ka)와 ㅍ(Ba)라는 영혼적 상태로 떠돌게 되는데, 사후의 영적 심판을 받은 자는 꺈과 ㅍ가 합쳐져 응꺈(Akh ("magically) effective one"))로 부활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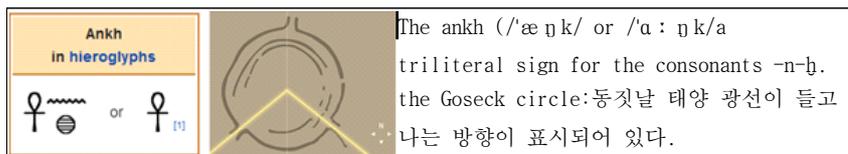


도표8. (이집트 Ankh와 동짓날 태양광선)
《wikipedia:Ankh/Site of the Goseck circle 》

응꺈의 준어 응꺈(Ankh) 의 고대 이집트 신성문자 기호 우는 -n-ḥ로 읽혀지는데, ‘-n-ḥ에서 ‘-n은 [n], -ḥ는 Ḥā’ (ḥ, transliterated as ḥ (DIN-31635), ḥ (ISO 233), "kh" or "x")로 발음된다. 그래서 -n-ḥ는 ‘은ḥ>ḥ>꺈’로 표기할 수 있고, 생명("life")과 영생의 관념을 나타낸다. 이것의 기호 모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녀성기의 교합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한데, 이는 영생의 관념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 기호의 원초적 의미를 딱 하고 지적한 것은 Thomas Inman(1869년)이었다.

그는 “몇몇 조각품은 태양광선이 응꺈(Ankh)를 들고 있는 손에서 끝나면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In some remarkable sculptures, where the sun's rays

are represented as terminating in hands)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Goseck circle의 유적지 도면을 보는 것이 좋다. 동짓날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저녁에 지는 햇빛이 원의 중심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 옹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는 태양이 일 년 주기로 생(生)·사(死)를 반복하면서 재생하는 곳이다. ㄹㄴㄱ(Ankh)는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느님(, 옹 ㄱ, Ngai, Engai)이고, 이는 보통 태양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집트인이 금으로 만든 옹크를 태양의 빛으로 생각하는 것은, 먼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태양의 재생에 대한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옹크 문화 전파

옹크(, 옹 ㄱ)라는 말은 청동기 문명이 발전하면서 신관통치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사용된 예는 오스트레일리아 Peramangk 족의 말 "Tarra-**angga**: 봉우리(High (Rising) Place)", 사할린 섬을 나타낸 만주어 "sahaliyan ula **angga** hada"(검은 강 어귀 봉우리)에서 볼 수 있다. **angga**는 '높이 솟아 오름'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높이 솟아 오른 고위 신관 통치자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었다.

부연하자면 옹크(, 옹 ㄱ)는 신관 집단의 지도자였고, 그의 직책은 보통 Engeco로 불리었다. Engeco(=Enge+co)의 Enge는 아프리카 동부 지방 최고신 Ngai(=ᄒᆞᆫㄴᆞᄂᆞᆫ>ᄒᆞᆫㄴᆞᄂᆞᆫ>ᄒᆞᆫㄴᆞᄂᆞᆫ>Ngai)를 부르는 말 Enkai/ En-kai/ Engai/ Eng-ai/ Mweai/ Mwai 중의 하나이고, co는 인칭접미사인데 -ka,-go,-co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옹크 문화 중에 한국문화와 연관하여 주목할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New South Wales의 Lower Hunter 지역에 위치한 Yengo 산(668m)이다. 이곳은 Wonnarua, Awabakal, Worimi and Darkinjung 부족의 정신적인, 의식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에 있는 Macquarie 호 부근 일대에서는 Baiame이 모든 산맥과 호수들, 강들, 동굴들을 만들었고, 그는 이 작업을 마친 후 Mount **Yengo**에서 훌쩍 뛰어 올라 몽환시 정령들의 세계로 돌아갔다고 믿어진다. 그가 하늘로 뛰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Yengo 산은 봉우리가 납작한데, 이 일대 80 헥타 정도의 지역에는 Baiame 동굴로 불리는 곳과 암혈 주거지가 매우 많다.

Yengo 산은 천주(天柱)산으로 하늘과 조상들의 정령들이 살고 있는 "꿈의 시대, 세계"와 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창조신이면서 천부(the Creator and Sky Father)인 Baiame(,Baayami or Baayama)를 만날 수도 있다. "Yengo"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서 지역에서 사용되는 Nyungar (Nyunga), or Noongar (Noonga)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996년 조사에는 170명이 남아 있었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Nyunga는 'N+yunga'로 분석되고, '인간("human being")'을 뜻하는데, 원래 의미는 신인(神人)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 지역에는 Pama 어를 사용하는 부족도 있는데, 원(原)Pama-

kachina spirit)와 Angwusnasomtaka(Crow Mother, the mother of all the hú and all the kachinas), 그리고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에서 있었던 Inca 제국(혹은 Inka Empire 1438-1533)의 'Inca'로 이어진다.

잉카 제국은 13세기 초 페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문화적 내용을 보면, 그 이전의 것을 계승하여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의 지배자를 사파 잉카(The Sapa Inca)라 하였는데, 이는 위대한 잉카("The Great Inca")라는 뜻이다. 잉카(Inka:ruler, or "lord,")는 아프리카의 Ngai, 수메르의 Enki와 관계있는 말로 통치자들의 통칭인데, 만주어 inenggi(日, 天, 一能吉 = ᄃᆞᆫᄃᆞᆫᄃᆞᆫ)로 번역할 수 있다.

이들의 대표는 Sapa Inca (paramount leader)로 불리었다. Sapa Inca ("The Great Inca")는 Apu ("Divinity"), Inka Qhapaq ("mighty Inca"), 간단히 Sapa ("The Great One")로 불리었다. 'ᄃᆞᆫᄃᆞᆫᄃᆞᆫ(Apu)'와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Qhapaq), ᄃᆞᆫᄃᆞᆫ(Sapa)'의 과정을 거친 Apu와 Sapa는 통치자의 존칭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유럽 어에서 ᄃᆞᆫᄃᆞᆫ(enge)와 음훈이 같은 것을 찾아보면 angel이 있다. angel의 프랑스 어는 ange, 고대 프랑스 어는 angele, 라틴 어는 angelus(divine messenger)이고, 이는 angaria로 연결된다. angaria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국가의 업무를 알리는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릴레이 조직이었다. 특히 왕에게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문서를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들의 임무였다. 이것이 잘 활용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차스퀴스로 불리는 잉카 제국의 전령과 우편제도였다.

물론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원래는 종교적인 신탁의 업무를 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을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신성한 전달의 임무를 행하였던 이가 Angeco였고, 그를 도우는 이들이 나중에 angels로 불리었던 것이다. Angeco와 angels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곱자(angle, 矩)를 든 복희와 여와의 그림이다. 곱자는 한자어로 구(矩)로 표기되는데, 고대 아일랜드 어 ankah, 고대 영어 anga, 고대 독일어(OHG) angu, 영어로는 angle이다.

복희와 여와는 이것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하늘의 뜻을 알렸던 것이다. 곱자를 부르는 말이 이집트의 ᄃᆞᆫᄃᆞᆫ(-n-ᄃᆞᆫ, ankh)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 Angeco와 angels은 ᄃᆞᆫᄃᆞᆫ(-n-ᄃᆞᆫ, ankh)를 들고 천주(天主)의 뜻을 전하였는데, 나중에 왕의 서신과 정보를 전하는 사자(使者)가 된 것이다. 그래서 angel은 한자어로 천사(天使)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를 죽명으로 한 것이 양키(Yankee: ①미국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②본래 뉴잉글랜드 원주민의 이름이었으나, 미국의 독립 전쟁 때는 영국 사람이 미국사람을,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는 남군이 북군을 얹잡아 이르던 데에서 비롯되었다)이다.

(3) ᄃᆞᆫᄃᆞᆫ

1)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로 발음되는데,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의 음으로 된 것을 살펴본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ㅎㄷ’의 음으로 된 것은 탄자니아 북-중앙 지역의 Rift 계곡 중앙에 있는 Eyasi 호 근처와 이웃하고 있는 Serengeti 고원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고 있는 Hadza, or Hadzabe 족의 문화에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들이 살고 있는 Hadzaland 는 올두바이 계곡에서 50Km 떨어져 있고, 근처에서 많은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인류의 요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Hadza 족은 그들 스스로는 Hadzabe'e(Hadze의 여성형)로 부르고, 그들의 언어는 Hadzane라 하는데, **Hadzapi** ("they are Hadza")와 Hatsa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들을 부르는 다른 인종학적 이름은 Tindiga (Watindiga), Kindiga, Kangeju 그리고 Wahi가 있는데, 영어식 표기로는 Hadza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Hadzapi ("they are Hadza")는 Hadza부(Hadzabe'e)로 볼 수 있고, 이는 이들이 ‘Hadza 신 또는 Hadza를 믿는 무리’라는 뜻이다. ‘Hadza’는 ‘ㅎㅈ’로 발음되지만, 실제음은 ‘ㅎㄷ+즈=ㅎㄷ+za:존칭접미사’로 분석된다. 이 말은 하늘의 뜻을 탐구한다는 Hatata (Ge'ez: **ሐተታ** ḥatāta, "inquiry")와 알을 깨고 나온다는 뜻의 영어 hatch, 순례자를 뜻하는 아랍어 Al-hjaj와 관계있다. 그래서 Hadza, or Hadzabe는 **ㅎㄷ(ḥatāta =ḥatā + ta)**가 기본어이다. 이들은 ‘ㅎㄷ(ḥatā)’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ㅎㄷ**는 약 5만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역사는 크게 4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는 Akakaanebe 또는 Gelanebe ("ancestors") 시대이다. 몸에 털이 나 있는 거인 시대로 화산 근처에서 불과 도구가 필요 없이 살았던 시대였다. 사냥감을 눈으로 점찍고 노려보고는 뒤 돌아보면서 도망가는 동물을 쉬엄쉬엄 뒤 따라 가서 지쳐 쓰러진 것을 잡아 날 것으로 먹었는데, 일체의 도구가 필요 없는 이 사냥법은 주로 영양이나 노루를 잡을 때 사용되고 있다.

제2기는 털이 없는 거인시대인데, Tlaatlanebe 시대로 불린다. 불을 사용하고 개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현재도 전통 Hadza 인은 사냥에 개를 데리고 가지 않는데, 사냥개 문화는 개가 가축화되기 시작한 15,000-20000년 전 이후의 일로 보인다. 제3기는 Hamakwabe("nowadays")로 선조들보다 몸이 작고 활을 사용하였다. 처음으로 비수렵인들과 거래를 한 시기다. 제4기는 Hamaishonebe("modern")로 정착인의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인 시기다.

Hadza 족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구전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적이 없다. 이는 올두바이 협곡에서 50km, Laetoli 유적지에서 40km 떨어진 이 일대에서만 생활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현재의 호수 지역에서 최소한 50,000년은 살아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는 30,000년 전 서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해간 Khoisan 어의 발음에 보이는 clicks 현상은 있지만 같은 언어는 아니다.

그리고 150km 떨어진 Sandawe 족과는 15,000년 전에 분리되었는데, 현재 아프리카의 어느 언어와도 어울리지 않는 고립어이다. 이는 이들의 언어가 현재 사용되는 아프리카 어들의 조어이고, 어느 시기엔가 과거의 언어가 되어버렸으며, 고립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현재 탄자니아 Serengeti 국립공원에서 사냥이 허락된 유일한 전통 수렵인이고, 20~30명 단위로 무리를 지어 후기구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후의 수렵-채집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것은 아니다. 유전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최근 몇 천 년 동안 Bantu, Nilotic and Cushitic-speaking 족들과 혼혈이 이루어졌었는데, 2007년 조사로는 150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Hadza 족 이외에 아프리카에서 헛드 문화를 잘 유지하여왔던 족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나미비아에 살고 있는 Hottentots 족이다. 이들은 Khoikhoi (/ˈkɔɪkɔɪ/; "people people" or "real people") 또는 Khoi, Khoekhoe로 보통 불리는데, Khoikhoi는 꺾꺾를 꺾꺾로 발음한 것이고, Hottentots (/ˈhɒtən,tɒts/)는 코이코이족의 독특한 혀 차는 소리 clicks 현상을 흉내 내어 붙인 이름이라고 하지만, 헛드와 이집트 토트 신(Djhut/Djhowtey)의 이름을 참고할 때 ‘헛드>헛드즈(Hadza)’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유라시아

아프리카에서 가까운 중동 아랍의 대중적인 이름은 헛드(Huda (/ˈhʊdə/)인데, ‘정도(正道) "right guidance"'라는 의미이고, 보통 Hoda로도 많이 사용된다. 기독교 성경에는 호다 위야(인명)/호다브야 Howdavyah([ho-dav-yaw', hy;wd'h])로 나온다. 중동을 지나 아나톨리아 고원 중앙 지역으로 가면, Akkad (ca. 2300 BC) 제국의 Sargon 왕 시절 아주 초기부터 이곳의 Hatti 지역을 중심으로 Hattians (/ˈhætiənz/)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Hattusa ("Hattus")에서 북쪽 방향으로 Nerik 지역까지 퍼져 살았는데, 언어는 인도유럽어가 아닌 Hattic (, Hattian) 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북서쪽 흑해 연안 일대의 코카서스 지방에 걸쳐 살았는데, 이 일대의 Kaska (also Kaška, later Tabalian Kasku and Gasga) 인, Abkhazians 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루지야 어로 Abkhazians은 ap'khazebi(= ap'+ khazebi)로 부르는데, 아프리카의 Hadzapi와 같은 문화족의 후예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떠난 Hadzapi 문화인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흑해 Hatti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매우 오래된 헛드 문화를 이어온 족들이다.

이들은 2000-1700 BC 사이에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Hittites 족들에게 서서히 흡수되었다. Hittites(/ˈhɪtaɪts/) 족 역시 Hattusa (, "Hattus")를 중심으로 아나톨리아 북(北)중앙 고원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northern Levant and Upper Mesopotamia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당시 세계를 주도하였었다(BC 18세기-BC 1180,-BC 8세기 신(新)히타이트). 이들은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였고, 족명은 기독교 성경(Hebrew Bible)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Heth (Hebrew: חֶת, Modern Hēt, Tiberian Hēt,ḥt in the consonant-only Hebrew script)와 연관 지어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단 중동 지방의 가나안(Canaan) 일대에 BC 2000에서 BC 1500 사이로 추정되는 아브라함 시절부터 בני-חֶת (bny-ḥt, "children of Heth") and חֶתִי (ḥty, "native of Heth")이 살았다는 기록은 있다. 이들과 Hittites 족들이 서로 관련이 있든 없든지 간에, Akkad (ca.

2300 BC) 제국 시절부터 히타이트 제국이 완전 막을 내릴 때까지 BC 8세기까지 중동 지방에서 코카서스 산맥 사이 지역에는 **헛트**(, **헛드**)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인도의 라자스탄 주 Hadoti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한때는 Bundi와 Kota 지역들을 통치하였던 Hada 족이 있다. 이들은 12세기 경 Hadoti 지방에 정착하여 세력을 넓혔다. 지명 Hadoti는 ‘헛드의 땅’이란 뜻이다. Hada 족은 불의 신 Agni를 믿고 숭배하는 Agnikula 왕조의 후손의 일파인 Bisaldev Chauhan의 한 분과이라고 자처하며, Hada Chauhan의 아들 Anuraj는 Hansi에서 통치하였다. 이곳의 지명 Hadoti와 Hansi를 볼 적에 이곳의 지배자였던 Hada 족은 후기구석기시대 **헛드** 문화 시절부터 내려오던 문화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도를 지나면 동남아시아·일본·한반도·만주·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되는데, **헛드** 문화의 흔적은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고대 일본 열도 동방(現在の関東地方と東北地方)、북방(現在の北海道地方)에 하이(蝦夷)(Emishi or Ebisu)로 불리는 종족집단의 일부가 세웠던 **히타카미국**(Hitakami no Kuni: ひたかみのくに 日高見国)이 있었는데, 현재 동북 지방 태평양 연안의 이와테 현(いわてけん岩手県)이다. 이들의 족명 ‘하(蝦[xiā,xià,há] 새우, 두꺼비)’는 **헛트**(, **헛드**)의 ‘**헛**’에서 유래된 것이고, 국명 **히타**(Hita)는 **헛트**(, **헛드**)를 음역한 것이고, 카미(kami)는 신(神)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히타가미국은 ‘**헛트** 신을 모시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이를 고대어로 번역한 것이 히타가미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常陸国 (Hitachi no Kuni ひたちのくに)이다. 이 (常陸)는 일본 혼슈(本州) 이바라키 현(茨城縣)에 있는 Hitachi(ひたち, 日立)와 같은 말이고, 그것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일고견국(日高見国)이다. 이 단어는 일본 고대에 대화(大和) 혹은 하이(蝦夷)의 땅을 미화하여 불렀던 말이다. **헛드**(Hida 飛田, 飛彈 or 肥田)는 일본 혼슈 섬 중앙 Gifu 지방 북쪽에 있었던 산맥의 이름인데, 이곳의 ‘Hida’는 ‘**헛드**’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다.

히타카미국에 살고 있는 하이(蝦夷)Emishi or Ebisu)족의 이름을 보면, 이는 Emishi=E+ mishi or Ebisu=E+ bisu 로 분석되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므스(Masai), 벡스(Bes, Bisu)와 관계있으니, 이들은 후기구석기 시절 일본열도가 유라시아의 동남 해안이었던 시절부터, 태평양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한국어 ‘하다(爲, do)’는 **헛트**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헛드**(Hada, or Khata)는 티베트와 몽골에서 사제들이 축복의식에 주로 사용하는 의식용 스카프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것은 ‘**헛트**’ 시절부터 내려오던 것이다.

이들과 관계있는 단어로는 ‘머리:두(頭)’를 의미하는 ‘영어 head, 노르웨이어 hode, 일본어 ヘッド(Heddo ひたい이마 額), 줄루 어 Ikhandu(=I+ khanda**헛드**)’가 있다.

모로코의 중거리 육상선수 Mahjoub Haïda (1970-), 유럽의 성씨 하이디(Heidi), 일본의 성씨 **헛드** 등은, ‘**헛드**’문화의 사제 집단과 관계있다.

아메리카

캐나다 서부 해안에 Haida 또는 Hydah(영어 발음/haidə/, hy-də, Haida 어 발음 X

aayda)족이 있는데, 그들의 영역은 알래스카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고, 중심지는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Haida Gwaii(/hardə gwai/ hy-də-gwy; Haida: X̱aayda gwaay; 문자적 직역 "Islands of the Haida people")로 알려진 지역이다. 그들은 17,000년이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왔다. 이들의 언어는 고립어이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17,000년 전 이전에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이후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Haida Gwaii에 속하는 Maude 섬 동부 지역에는 Haina 섬이 있는데, 이는 Haida 어로 ‘양촌(陽村, "Sunshine Town")’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요 마을인 Ninstints 또는 Skungwai 지역의 추장으로 Koyah(, also Coya, Coyour, Kower, Kouyer (phonetically /xo'ya/, 의미는 까마귀 "raven" (ca.1795))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음성학적으로 껍야(/xo'ya/)로 발음된다.

/xo'ya/는 신조(神鳥)(까마귀)를 칭하는 말이면서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신관 통치자의 칭호 겸 이름이었을 것인데, /xo'ya/의 원천적 의미와 가까운 단어를 유라시아에서 찾아보면, 히브리 어 Ḥawwāh("living one" or "source of life"),와 ḥayâ, "to live", Ḥawwāh의 셈어 어근 ḥyw.가 있다. ḥayâ의 발음이 /xo'ya/에 가장 가깝다. 아마도 이 단어가 유라시아에 통용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 발음은 어머니를 뜻하는 소말리아 어 Hooyo에서도 볼 수 있다.

까마귀(raven)를 /xo'ya/로 불렀던 Haida 족의 조상들은 31,000년 전의 기온 하강 후 약 30,000년 전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처음 아메리카로 이동하였을 것이고, 그 후 18,000년 전의 대홍수를 겪고 나서 기온이 상승하던 17,000-17,500년 전 시절에 Haida 족의 많은 사람들이 베링 해협 지역을 건너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여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족명 X̱aayda/Haida에는 껍드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도표2. 도표3. 참고)

그리고 /xo'ya/의 상징동물은 신조 까마귀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담장 벽화와 리키아, Pamphylia의 고대 동전에 보이고, 중국에서는 붉은 색의 양오(陽鳥), 금오(金鳥)로 그려졌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검은 색의 삼족오(三足鳥)로 그려졌다. 일본 신화에는 Yatagarasu(八咫鳥?, "eight-span crow")로 불리는 거대한 새의 모습으로 나온다.

일본어 Yata やた(八咫)는 ‘아타의 8배 길이, 또는 긴 것, 거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8은 일본어로 はち이고, はち에는 ① 바리때 ② 여덟 ③ 주발 ④ 화분 ⑤ 머리통, 머리뼈, 머리 ⑥ 투구의 머리 부분 등등의 여러 뜻이 있다. 여기서 머리(head)의 뜻이 있음을 통해 ‘ḥ츠(はち)’는 ‘ḥ트(head, ひたい)’의 변음으로 고려할 수 있기에, Yata(八咫)는 껍드(Haida)에서 유래한 말로 볼 수 있다. Yata やた(八咫)를 통해 껍드의 상징동물이 까마귀였던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Haida 족은 후기 구석기 시절 일본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캐나다 서부 해안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aida 족의 주신(主神)이자 천신은 Sin ("day")인데, 이 말은 ‘ḥㄴ>ḥㄴ, ㄴ, ㅅ ㄴ>Sin’이 어원이고, Sin("day")의 의미가 있는 해 뜨는 동쪽의 Haina 섬은 대략 30,000년 전부터 이들의 종교적 성지였을 것이다. 아메리카의 ‘Sin’은 남아프리카 현생 인류의 가장 오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산 족(San people, or Saan)의 명칭과 중동의 Sin, 한자어 신(神

[shén])에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 아메리카에 걸쳐 𑖇𑖥/𑖇𑖥 (,Sin) 문화가 성행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𑖇𑖥𑖥 > 𑖇𑖥𑖥

𑖇𑖥𑖥 > 𑖇𑖥𑖥(, 𑖇𑖥𑖥)의 발음으로 된 단어에 hunter(, 고대 영어 hunta, 중세 영어 hunte, 사냥꾼)가 있는데, 이는 원시 수렵민 시절 최고의 사냥꾼에게 붙여진 존칭어였을 것이고, 이 전통을 계승해온 HADA로 불렸던 인도 무굴 제국 시절의 전사 씨족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HADA 족은 라자스탄 주에 살고 있었던 라지푸트(Rajput) 씨족이었는데, 가장 용맹하고 충성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족은 나중에 해체되어 인도 각지로 흩어졌다. 당시 구자라트로 간 이들은 "Handa", 마하라쉬트라로 간 이들은 "Hande", 카시미르로 간 이들은 "Handoo", Haryana로 간 이들은 "Hudda/Hooda"로 불렸다. ‘𑖇𑖥𑖥 > 𑖇𑖥𑖥(, 𑖇𑖥𑖥)’ ("Handa", "Hande", "Handoo")는 ‘𑖇𑖥 > 𑖇𑖥’(HADA, Hudda/ Hooda)의 준어 표현이고, Hanta, Honta, Hunta, Hunda 등의 표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Handa는 인도의 편자브 지역과 파키스탄에 바탕을 둔 저명한 Khatri, Kshatriya 씨족인데, 이들의 일부는 Kambojas 문화인과 결합하기도 하였고, 현재 이들은 편자브 인으로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이들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크샤트리아 왕조 중의 하나인 Suryavansha or Solar 왕조(Sūrya-vaṃśa)의 후손으로, 인도-파키스탄 분리 때에 주로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긴 세월을 살면서 상황에 따라 Kambojas 문화인과 결탁하면서 지내기도 하였지만 Hada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Honda(本多) 성씨는 ‘𑖇𑖥’문화의 사제 집단이 대를 이어온 것이고, 스코틀랜드의 섬 Handa (Scottish Gaelic: Eilean Shannda)를 통해 𑖇𑖥 문화가 유럽 서쪽 끝 섬에 까지 전파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외에 handa는 19-20세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용된 화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모양이 십자(十)처럼 생겼다 해서 Katanga cross("위대한 tanga의 십자가")라고도 하였다.

인간의 신체기관 중 생명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肝)이 있다. 이를 인도네시아어로 hati(𑖇𑖥), 하우사어로 hanta(𑖇𑖥𑖥)라 하는데, 요루바어로는 ẹdọ, 타밀어로는 Eṭō라 한다. 요루바어 ẹdọ와 타밀어 Eṭō는 ‘𑖇𑖥 > 𑖇𑖥, 𑖇𑖥’로 발음된 경우이다. 그리고 요루바어 ẹdọforo(허파)는 {ẹdọ(간)+ foro(다음, then, 然後)}로 풀이되는데, 이는 간 다음으로 허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𑖇𑖥 문화 시절부터 신체기관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ㅎㅏ > ㅑㅏ

ㅑㅏ(, ㅑㅏ)는 대체로 Ada·Eda·Ida·Oda·Uda·Edo 등등의 여러 표기로 사용되는데, Ida가 가장 널리 사용되기에, 이것을 중심으로 ㅑㅏ 발음과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아프리카

약 6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출발지 중의 한 곳인 나이지리아로 가면, 베누에 강과 나이지리아 강의 합류 지점인 Niger 강 동쪽 언덕의 사암 절벽에 이갈라(Igala, Igara) 족의 전통적인 수도 ‘이다(Idah)’가 있다. 그리고 Niger 강의 서쪽 언덕에 에도(Edo 또는 Edo Bini) 족이 살고 있는데, ‘에도(Edo)’는 14-17세기에 번성했던 베냉 왕국의 수도 베냉 시의 고유한 이름이고,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는 주(州)이름이기도 하다.

Igala 족 사람들의 통치자는 ‘Attah Igala’로 불리는데, 이는 ‘Igala 사람들의 아버지("Attah)"라는 뜻이고, 이갈라어로 왕은 Onu 라고 부른다. 7세기에 Abutu-Ejerk가 건국한 ‘Idah 왕국’은 Igala Mela로 불리는 9명의 신관들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통치자의 직위("Ata")는 왕실의 4대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계승하였다. Idah 왕국은 19세기까지 존속하였는데, 1901년 영국 보호령이 되었다가, 현재 나이지리아(Nigeria)의 일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요루바 인들이 사용하는 장검을 Ida라 하는데, 이것은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Ida/Ata/Idah/Attah’는 ‘ㅑㅏ, ㅑㅏ’를 음사한 것이다(Idah/Attah의 h는 장음표시). 이렇게 서아프리카에 보이는 ㅑㅏ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볼 수 있다. 1997년 에티오피아 아팔(Afar) 삼각지대의 중앙 아와쉬(Awash) 유적이 있는 홀토 마을(Herto Bouri) 강가 계곡에서 10명의 조각난 뼈 화석과 석기 640개, 하마와 물소 뼈가 발견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화이트(Tim White) 교수가 이끄는 미국·에티오피아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골의 연대는 154,000년 전-160,000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사람들은 수렵과 어로생활을 했으며, 강가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교수 연구팀은 홀토(Herto) 유골을 호모사피엔스인 것으로 결론짓고, 현지의 Saho-Afar어로 ‘조상 또는 시조(elder or first born)’를 뜻하는 "이달투"(Homo sapiens idaltu)로 이름 지었다.

Saho-Afar어 "Idaltu"(조상,시조)’는 Idah 왕국의 이갈라어 Attah(아버지)와 통하는 점이 있고, 이 말은 고트어 또는 동 게르만어파로 고트어에 속하는 Gepids족의 말 atta("fathe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이 중앙아시아 토하라어(Tokharian) atär("hero.")와 동유럽을 휩쓸었던 훈족 대왕의 이름 Attila(434-453)일 것이다. Pritsak는 Attila를 우주의 통치자("universal ruler")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하느님 아버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Idah의 원래 뜻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Idah 왕국’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강림하여 있는 왕국’, ‘지상천국’ 정도로 해석된다.

그리고 Idaltu의 고향이랄 수 있는 ‘에티오피아’는 ‘Idah 왕국’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데, 이집트의 나이든 혹은 말에 따르면 { Ethiopia(/i : θi'ɔ:piə/; Amharic: ኢትዮጵያ, 'Ītyōp̄p̄yā) = Et(Peace, Truth) + Op(high or upper)+ Bia (land, country) }로 풀이 된다. 이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지성소(至聖所)'이다. 이곳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신성하고 존엄, 존귀한 곳이다. Idah와 Et(Peace, Truth)는 ʾṯṯ를 음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TT [oṯ] (over the top at top)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에티오피아는 고인류 시절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고, 약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로 볼 수 있는 유골이 남서부 Omo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 약 16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 idaltu 유골들은 할토부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참고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서아프리카 Idah 왕국 지역으로 ʾṯṯ 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구석기 시대의 아프리카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홍해를 건너 처음 정착했을 예멘의 아덴 Aden 일대에는 ʾṯṯ(, ʾṯṯn)문화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덴의 예멘 발음과 아랍 어 발음을 보면, 아덴의 원래 이름은 ʾṯṯn(<ʾṯṯn)이었음을 알 수 있다.

ʾṯṯn에서 유래한 ʾṯṯn(Idan, Eden)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건조지대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수메르 어 Edin('스텝, 초원, 평원, 사막, 황무지')과 같은 말로 볼 수 있고, 이는 히브리 어 에덴(Eden עֵדֶן, 樂 delight)과도 통한다. 보통 천국 같이 좋은 곳을 칭하여 에덴동산이라 하는데, 이 말은 먹을 것이 풍족한 수렵 채집인의 생활 무대 Edin('스텝, 초원, 평원, 사막, 황무지')을 칭하던 말이었다.

바로 이러한 곳(Edin)에서 무리를 이끌고 생활을 하던 지도자가 ʾṯṯ(, ʾṯṯ)였고, ʾṯṯn(Adam)이었다. 원래 ʾṯṯ와 관련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모계 사회의 문화에 주로 남아 있는데, 청동기 시대 이후 부계 사회가 발전하면서 ʾṯṯn(Adam)이 인류의 시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Adam은 히브리 어 אָדָם (a-d-m)("red", "fair", "handsome")에서 발전한 단어로도 보는데, a-d-m는 게르만 어 Ada("nobility"), 히브리 어 Adah-אָדָה, 에 존어접미사 n이 붙은 단어로도 볼 수 있다. 남성형 명사 'adam은 "man", "mankind"를 뜻하고, adamah ("ground" or "earth")의 남성형 단어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기독교 성경 창세기를 너무 많이 반영한 해석이다.

그리고 ʾṯṯ(, ʾṯṯ)는 히브리 어 Adah-אָדָה,로 표기되는데, 이 말은 게르만 어 여성 이름 Adelaide와 Adeline의 축약형 단어 Ada(고귀함, 거룩함, nobility)로 사용된다. Adelaide의 고대 독일어(OHG) 표기는 Adalheidis "noble natured"이고, 현대 체코 어 표기는 Adléta이다. 이 말은 에티오피아의 Saho-Afar 어 Idaltu와 통한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ʾṯṯ(, ʾṯṯ)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간 흔적이고, Adalheidis는 '고귀한 ʾṯṯ'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면 후대에 좀 더 체계화된 ʾṯṯ의 의미를 중동 지역에서 찾아보면, 아랍 어 yādḥā :he knew, 히브리 어 yādḥā :he knew, 아카드 어 idū :to know가 있다. 이들 단어와 내적인 통찰을 하여 '안다(idū)! 알았다(yādḥā)!'하고 외친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앗!, 온!'은, 모두 득도(得道)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을'이다. 즉 Edda, Ida, Et 등은 이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인명으로 사용한 예로는 한국 초기 불교사에 등장하는 아도(阿道, 我道, 我頭) 화상을 들 수 있다.

유라시아

현대 터키어 Kaz Dağı로 불리는 소아시아 북서부에 뻗어 있는 산맥의 옛 이름은 Ida였는데, 해발 1,800m의 산맥 최고봉에서 신들이 트로이 전쟁을 지켜보았다고 하며, 그리스·로마 시대의 성소(聖所)였다. 그리고 Ida는 크레타에서 가장 높은 산(2,456m)의 옛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또 다른 성소와 제우스가 자랐다는 동굴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있어 Ida 또는 Ide는 Ida 산의 요정 이름이기도 하고, 제우스 신의 유모들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북유럽 지역으로 올라가면 게르만 족의 신화집 《에다(Edda)》를 만나게 되는데, 그 책 속에 Ida 평원(독일어 Idafeld, 영어 Idavold)이 있다. 아스가르드 인근의 평지인데, 신들의 거소 가운데 하나이며, 세상이 몰락한 뒤에도 존속한다고 알려진 곳이다. 그리고 게르만 신화집 《에다(Edda)》에 나오는 이둔(Idun)은 신들의 노화를 막아주는 사과를 지키고 젊게 해주는 풍요의 여신이다.

게르만 어 "Edda"는 '증조할머니'라는 뜻이다. 이 말과 독일어 id(일, 노동)에서 유래된 여성 이름 Ida를 통해, 으드는 구석기시절 자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였던 증조할머니를 일컫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증조할머니가 인자한 표정으로 후손들을 지켜주는 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으드는 주로 여성 이름에 많이 보인다. 터키의 여성 이름으로 Eda가 있는데, 이는 양가집 규수가 지니고 있는 '훌륭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고, 이는 게르만 어 여성 이름 Adalheidis "noble natured"에 보이는 Ada("고귀함, 거룩함 nobility")와 뜻이 같다.

으드(Ida)의 존어가 으드스(Idan, Idun, Edan)인데, 주로 이스라엘의 인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동투르크스탄의 몽골 준갈이부(準噶爾部)의 지도자 간덴(Dga'-Idan(재위 1676-1697)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으드 문화가 터키를 거쳐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 인도로 간 사람들이 남긴 것이 대지·풍요·양육의 여신 Ida와 Idar(또는 Edar)(구자라트 주)이다. 인도의 Idar은 Elva Durg 신이 머무르고 있었던 외경(畏敬)스러운 곳이었다. 이들은 인도(아유디아, 아유타)와 안다만 제도(Andaman Islands)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갔다. 필리핀의 니그리토로 불리는 종족 중에 Aeta 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3만-6만 년 전 정도에 필리핀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Aeta·Agta·Ayta로도 표기하며, 발음은 "eye-ta"로 하고, Ida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을 지나면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곳에 이도국(伊都國)《삼국지·동이전 왜인》이 있었다. 이도(伊都), 이다(飯田), 에도(えど [江戸])는 아마도 으드(Edo, Idah)를 음역한 지명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으드 성씨로는 Itō Hirobumi(伊藤博文)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뽑은 최고의 미인 'Nukata(額田)'의 'nuka'를 나타내는 한자 '액(額)'자는 중국 사성음으로 é, 만주음으로 e이고, 일본음으로는 gaku(ガク)로 읽는다. 전(田)은 중국 사성음 tián, 일본어 음독 den(デン) 훈독 ta(た)이다. 그래서 액전(額田)을 중국어·만주어와 일본어를 종합하여 읽으면 '에다'또는 '에덴'이 된다. 이는 에도와 함께 일본 으드 문화의 핵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에다'를 확실하게 이해하

기 위해, 일본인의 혈통에는 만주의 부여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의 먼 조상들의 일부가 살았을 만주 북쪽 끝 지점, 아무군 강과 헤이룽(黑龍) 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네꾸다’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다. 네꾸다는 보통 네꾸다렌으로도 불리고, ‘이다’라고도 한다. 네꾸다는 ‘ㄴ ㅋ ㄷ’, 즉 ‘누카다’이다. 네꾸다를 ‘이다’로도 부르는 것과 누카다를 ‘에다, 에덴’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동일한 문화권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주족의 시조 설화에 나오는 장백산 동쪽의 악다리성(鄂多duo理li城)지역을 지나 캄차카 반도로 가면, 이곳의 원주민 Itelmen이 있다. 이들은 나중에 캄차달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들의 이름 Itel은 아프리카의 Idaltu·만주의 악다리(e-duo-li)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주와 일본의 중간에 있는 한국 고어 ‘인’은 ‘으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

“인(仁)의 근훈(近訓)은 ‘어딜·클(賢也·大也)’이나, 고훈(古訓)은 ‘(善也·慈也의) 의(義)로 ‘인’이다” (《중정 고가연구》, p857)

인(仁)의 한국어 고훈 ‘인(善也·慈也)’의 뜻은 증조할머니 ‘에다’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구석기 시절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 에덴(Edin)은 단순한 초원 지대, 황무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그것을 채집하여 오면 증조할머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고루 고루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하였었다. 증조할머니는 ‘인’이었고, ‘인’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동산’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에는 ‘인’이 있었던 ‘에덴’이 ‘자(慈)·선(善)·낙원(樂園)’으로 남아 있고, 신의 대리자인 증조할머니의 이미지를 글자로 표현한 것이 ‘인:인(仁)’이고, ‘이다·에다’이다.

아메리카

캄차카 반도를 지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중앙아메리카에 마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트사(Itza)로 불리는 과테말라 인이 있다. 그들은 토착 원주민 문화를 이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단계에 있고, 과테말라 Petén Itzá 호수 근처의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의 조상은 마야 문명의 유적지로 유명한 치첸이트사(chichen itza, Yucatec Maya: Chi'ch'èen ìitsha'[tɕ'hi'ɾtɕ'e : n-ɫ i : -ɫts'haʃ]; "at the mouth of the well of the Itza"))를 건설하였다.

Itza (= its("sorcerer"마법사,마술사,무당) + ha("water")= 물무당("enchanter (or enchantment) of the water"))는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던 신관지배층이었고, 이들은 유카탄 반도의 마야 혈통 Ah Itzá의 후손이다.(‘이트사/itza’는 ‘이차’로도 읽는다) 이들은 아마도 동북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바로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미의 ‘안데스(Andes)’ 산맥과 잉카 제국의 태양신 Inti 등에서도 으드(으드)를 볼 수 있는데, Andes와 Inti는 ‘ㅎㄴ드>으드’에서 유래된 것이다.

4) ㅎㅏㅓ > ㅎㅓㅓ

ㅎㅏㅓ는 hanta, honta, hunta, 등등의 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ㅎㅓㅓ(, ㅎㅓㅓ)는 위에서 언급한 것을 참고하면 된다.

(4) ㅎㅓㅓ

1) ㅎㅓㅓ > ㅎㅓㅓ

아프리카(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남부에 Igbo 족이 있다. Igbo는 "Iboe", "Ebo", "Eboe", "Eboans", "Heebo"로도 알려졌는데, 지금은 간단히 "Ibo"로 표기되고, -g-는 음의 명확성을 위해 첨가된 것이다. 이들이 ㅎㅓㅓ 문화의 계승자라는 것은 Heebo와 Igbo 족의 한 구성 부족인 Ohafia(=O+ hafia) 부족명을 통해 알 수 있다. Ohafia 족은 전사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고, 전사의 모자 또는 "표범 머리 모자"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ㅎ("Hee")를 신앙으로 하는 집단이 "ㅎㅓㅓ/Heebo"족이다.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에 표시된 아프리카 내부의 인류 이동(L,L0,L1,L2)을 고려하면, 이들은 동부 아프리카의 Hadza와 문화적으로 관계가 있다.

아메리카(1)

미국 애리조나 주 북동부 Hopi 족 보호구역에 원주민 Hopi 족이 살고 있다. 부족명 Hopi는 Hopituh Shi-nu-mu ("The Peaceful People" or "Peaceful Little Ones")의 준말인데, Hopi 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 Hopi의 길을 따르는 예의바르고 평화로우며 공손한 사람 "이다. 이들이 자칭하는 부족명 Hopituh Shi-nu-musms 남아메리카 브라질과 콜롬비아 아마존의 원주민 Hupd'äh, or Húpd'əh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hopi와 Húpd'əh는 ㅎㅓㅓ(, ㅎㅓㅓ) 문화가 아메리카 지역에까지 전파된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Hopituh/Hupd'äh/Húpd'əh는 ㅎㅓㅓ(=ㅎㅓㅓ+ ㅓ:존칭접미사)로 분석되는데, 이 말의 원(原)어원은 ‘ㅎㅓㅓ(=ㅎㅓㅓ+ ㅓ)’이고, 이에서 파생된 말이 PIE *kaput- "head" (cognates: Sanskrit kaput-, Latin caput "head"), Proto-Germanic *haubudam (cognates: Old Saxon hobid, Old Norse hofuð, Old Frisian haved, Middle Dutch hovet, Dutch hoofd, Old High German houbit, German Haupt, Gothic haubiþ "head"), Old English heafod "top of the body," also "upper end of a slope," also "chief person, leader, ruler; capital city,", 그리고 두(頭)를 뜻하는 영어 head, 노르웨이어 hode, 일본어 へッド(Heddo ひたい이마 額), 스웨덴 어 huvud, 아이슬란드어 höfuð, 목동을 뜻하는 shepherd(/ˈʃepərd/)이다.

ㅎㅓㅓ(=ㅎㅓㅓ+ ㅓ)가 ㅎㅓㅓ의 우두머리라면, 그 구성원은 ‘ㅎㅓㅓ+ ㅓ’인데, 중앙아메리카의 히바로(Hívaro (also Jivaroan, Jívaro, Jibaroana, Jibaro) 족은 남아메리카 몬타냐(안데스 산맥 동쪽 기슭), 마라봉 강 북쪽의 에콰도르·페루 등 지역의 Amazonas, Cajamarca, Loreto, and San Martin, Peru and the Oriente region of Ecuador에 거주하는 남아메리카

카 인디언이다. 이들의 언어는 Shuar/Achuar/Awajun/Huambisa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Shuar은 Chiwaro, Jibaro, Jivaro, Shuara, or Xivaro로도 불리어지고, Huambisa는 Huambiza, or Wambisa로도 불리어진다. 이들의 언어 이름은 ‘헝브르 >스브르 (Xivaro,Shuara) >즈브르(Jibaro,Jivaro) >츠브르(Chiwaro)’로 발음된 것이다.

이들은 안데스 산맥 적도 근처를 흐르는 마라봉 강을 중심으로 열대 우림 속에서 카사바·옥수수·고구마 등을 재배하며 야생식물채집·사냥·물고기잡이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방식과 사람의 머리를 오렌지 크기로 줄여서 보관하는 풍습(,해골 숭배문화의 일종)을 볼 때, 이들은 석기 시대에 이곳으로 이주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언제 아메리카에 도착하였는지는 Hopi 신화에 나오는 Hú(, also known as Huhuwa and Tithu)를 통해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Hú는 비를 내리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조(神鳥) hummingbird의 조상령인데, 모든 hú와 조상령의 어머니는 Angwusnasomtaka이다. 신령조(神靈鳥) hummingbird의 조상령이 헝 (Hú, also known as Huhuwa)이고, Hopi 족의 조상령이 wuya라는 것, 이는 중국어 오아(烏鴉,Wūyā)와 음이 같다는 것, 그리고 Haida 족의 신조 헝야 /xo'ya/가 북아메리카에서 최소 17,0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 등을 통해, 대략 31,000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에 정착하였다가, 18,000년 전의 대홍난을 전후한 시기에 아메리카로 이주하였을 것이다.

아프리카(2)

‘헝브’는 ‘헝브·꺄브·스브’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집트 신화에서 헝브와 관련된 것을 찾는다면, ‘헝브’는 Hapi, ‘꺄브’는 대지의 신 Geb로 남아 있다. 그리고 Geb는 Seb 또는 Keb로도 불렸었는데, Gebeb와 Kebeb가 원래의 이름이다. Hapi(헝브), Geb(꺄브)와 Seb(스브)는 모두 ‘헝브’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이집트에서 헝브>헝브’로 발음되어 남아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집트의 Hapy(,Hapi)는 때때로 ‘신들의 아버지’,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조화 유지하는 자’로 홍수를 조절하고, 풍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었다. 그래서 Hapi는 강의 신이면서, 특히 나일 강의 범람과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다. 헝브는 강과 물의 신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나일 강의 이름이 H'pī이고, 원초적 심연수를 뜻하는 이집트 어는 hxap(, "water")이다.

이 외에 이집트의 Horus 신의 네 아들 중의 한 명인 장례의 신 Hapi(,Hapy), 이집트 상형문자 "h-p-(det.-Rudder)", xapi), 멤피스의 황소신 Hapi-ankh 등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멤피스 지역에서는 신성한 황소 신 Apis 또는 Hapis (, Hapi-ankh)로 숭배되었다. Hapis는 때때로 머리의 두 뿔 사이에 태양의 원판을 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태양신(,광명신)과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pi 숭배는 이집트 제2왕조(2890-2686 BC)를 개창한 Kaiechos에 의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장려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헝브’라는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신앙은 오시리스와 결부되어 저승의 신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Hapi는 저승으로 가는 배의 키잡이이기도 하였다.

제3왕조(2686-2613 BC)가 등장하면서 태양신 Ra가 사회에 통용되더니, 마침내 제5왕조(2498-2345 BC) 때는 Ra가 왕조와 사회의 통치이념으로 고정되었다. 이때부터 이집트의 ‘헵브’(Hapi, 'h-p-, 'h-p-ii-, Hapy) 문화인은 통치계급의 주류의 대열에서 밀려나 종교적 자유인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데, 당시 헵브 문화인의 지도자는 대체로 ‘커다란 배·(미개인 등의)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장발·여성의 유방과 같이 늘어져 흔들거리는 (젓)가슴’을 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헵브 문화집단이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불렀던 말이 헵브헵(=헵브+헵)이고, 이는 ‘헵브헵·헵브크·헵브스’로 발음된다. 이중 헵브크로 발음된 것이 나이지리아의 바로 북쪽에 있는 세네갈·감비아·모리타니아에서 사용되는 Wolof(세네갈과 감비아의 이슬람계 종족,"Volof" and "Olof", "Jolof", "Jollof" and "Dyolof".)족의 말 hepicat(開眼智子 "one who has his eyes open", "hepi+ ca+ t")이다.

이집트의 Kaiechos가 제2왕조(2890-2686 BC)를 개창하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헵브’(Hapi)를 제시하였을 때, hepicat은 사회의 지배층 주류로 활약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신관 예언자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말하였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예언자의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이 전통을 이어온 집단 중의 일부가 Hebrew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하바꼭’(The Book of Habakkuk)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 חֲבַקּוּק (Standard Havaquq Tiberian Ḥābaqqûq), 그리스어 Ἀμβακούμ (Hambakoum), 라틴어 Abacuc으로 번역되었다. 이름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고, 히브리어에 이와 같은 형태의 말은 없어서, 아마도 아카드어 khabbaququ(향기로운 나무 이름) 또는 히브리어 ḥbq("embrace")와 관련이 있지 않나하고 추정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서아프리카의 hepicat, 그리스어 Ἀμβακούμ (Hambakou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헵브헵을 헵브스로 발음한 것이 악숨 왕국과 에티오피아 황실의 궁중 공식어인 Ge'ez(['gi : ez][Gə'əz [gɪ'iz]/Gi'iz]어)로 기록된 ḤBŠ or in "pseudo-Sabaic as ḤBŠTM"이다. 이 언어가 말해지는 에티오피아 북부와 에리트레아 남부에서는 헵브헵을 보통 헵브스(Habesha, Ge'ez: ሐበሻ Ḥabašā, Amharic (H)ābešā, Tigrinya: ? Ḥābešā; Arabic: الحباشة al-Ḥabašah)로 발음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Habesha 인 또는 아비시니아 인 (Abyssinians)으로 알려져 있다. Abyssinia는 ‘Habesh/"Ḥabašāt" (unvocalized "ḤBŠT")에서 유래하였다. Habasha의 문화적, 언어적 기원을 D'mt (,보통 Di'amat으로 발음됨)왕국과 악숨(Aksum) 왕국에 두기도 하는데, 이는 이 왕국들의 지배층이 그 문화를 지켜온 Habasha의 일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용병으로도 활동하였는데, 인도 테칸 지역 족장들이 주로 고용하였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헵브’(Hapi)문화는 이집트 제2왕조 시절에 왕성하였었고, 이 때 이집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는데, 당시 종교의 지도자가 hepicat이었고, 그 문화집단 또는 구성원은 헵브르(=헵브+르:吏)로 불리었다. 아카드어 Hapiri("서쪽에서 온 병사들")는 이

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이동해왔음을 알려주고, 이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히브르/히브리(Hebrew)**이다.

히브르(Hebrew)의 어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헵(Ḥapī)**에서 유래된 **히브르**로 보면 될 것이다. 보통 유대인(Jew, Judah)으로 불리는 Hebrews(Hebrew: **עִבְרִי** or **עִבְרִיָּם**, Tiberian 'Ibrīm, 'Ibriyyīm; Modern Hebrew 'Ivrim, 'Ivriyyim; ISO 259-3 'ibrim, 'ibriyim)는 유대교 성경 Tanakh에서 인종이름으로 사용된다.

영어 표기 Hebrews는 고대 그리스 어 Hebraïos, 고대 라틴 어 Hebraeus에서 유래되었고, 현대 히브리 인 발음으로는 이브리('Ivri(단수) / 'Ivrim(복수))인데, 성경어 Ivri(Hebrew: **יְרִיב**)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 통과하다(to traverse or pass over)’는 의미다. 참고로 이집트 어 "ibr(단수), ibrw(복수) "는 말(馬)을 의미한다.

히브르(Hebrew) 이외에 대략 1800-1100 BC 기간의 수메르 인, 이집트 인, 아카드 인, 히타이트 인, 미타니 인, 그리고 우가리트의 자료에 **히브르(Habiru, 또는 Apiru 또는 'pr.w(이집트 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북동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에서 가나안에 있는 이집트 국경 지역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유목민적 침략자로 살았다. 여러 기록에는 이들이 유목민 또는 반유목민, 반역자, 범법자, 침략자, 용병, 그리고 뱃머리의 노 젓는 사공, 하인, 노예, 이주노동자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거의 중동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일정한 거주지에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않고, 형편 되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부랑민(浮浪民)이었다. 이들을 유대인의 조상 Ivri(Hebrew: **יְרִיב**)와 유전적 연결을 해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관계있다는 연구도 있고, 전혀 관계없다는 연구도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정착민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야 했던 사람들이다. 이집트의 **헵(Ḥapī)** 문화를 수용한 이들을 통칭 ‘**히브르**’로 불렀는데, 한때는 지배층이었을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하바리**’(품위나 지위가 맨 아래에 속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 많은 하바리들이 형성된 것은 BC 21~20세기경부터 장기간 기온 상승이 지속되어 기존 농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토는 가뭄으로 농토에 염분이 많아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환경재해로 인해 많은 기상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생계를 위하여 하바리의 다양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히브르**는 원래 말을 타고 다녔던 **헵(Ḥapī)** 문화의 지배자이자 전사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그들의 최고지휘관이 Havaqquq / Hābaqqûq이었다. 그런데 BC 28세기부터 하강하던 기온이 BC 25세기부터 상승하는 변화를 겪으면서 이집트 제5왕조 Ra 문화 시대가 되자, **히브르**는 역사의 주역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용병으로 고용되었고, 나중에는 사회적 하류층 하바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헵** 문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었는데, 그 문화를 계승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3대 칸국 중의 하나였던 **히바 칸국(1511-1920)(The Khanate of Khiva)**이다. 이 나라의 수도는 Khiva(Uzbek: Xiva Хива; Persian: **خيوه** Khiveh; Russian: Хива)였는데, 이곳은 카스피해 동남부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대를 이어 여러 종족들이 살아온 Khorasam(Khoresm, Khwarezm, Khwarizm, Khwarazm, Chorezm, and Persian: **خوارزم**)

)이었다.

그래서 Khwarezm이 투르크어 Khivarezem으로 차용되었고, 이 말이 Khiva로 줄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Khiva는 헝브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땅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라고 선언된 내용을 담은 Achaemenid 비문에는, Khiva가 Huvarazmish으로 기록되어 있다. Khwarezm와 Huvarazmish는 헝브를 나타낸 말이고, zm과 zmish는 zam (زم, "earth, land")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이곳은 ‘헝브의 나라’, ‘헝브 신을 믿는 나라’ 그런 의미가 되겠다. 오늘날 Khwarezm은 Uzbekistan, Kazakhstan, Turkmenistan 세 나라가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헝브(르) 문화가 Khorasam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발음이 애매모호해져 원뜻이 손상될 무렵 Khiva 칸국이 세워졌다.

인류이동을 고려할 적에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헝브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은 인도일 것인데, 이곳에서의 헝브는 ‘헝브>헝브, 쿠브, 스브’의 변음 중 스브에 가까운 발음으로 남아 있다. 힌두교의 주요 신 Shiva(/ʃivə/; Sanskrit: Śiva, meaning "The Auspicious One")는 힌두신학이 발달하면서 매우 다양한 신들과 결합하였지만, 가장 대중화된 이미지는 생사(生死), 재생(再生)을 주관하는 신("the Destroyer" or "the Transformer")이다. 단어의 어근 √śi는 "상서(祥瑞auspicious)롭다"는 뜻인데, 이는 헝의 이미지이고 보통 붉은 태양의 빛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시바 신은 인도 남부 타밀어로 śivan(, "the Red one")으로 불리고 태양과 결부된다.

인도의 헝브(Shiva)는 상당히 후기의 음과 뜻이고, 후기구석기 시대의 음훈은 영어 happy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appy의 음훈과 같은 단어가 한국의 전라도 방언 허벌나 계/허벌나다 ① 양이 푸지게 많거나 정도가 심하다와 ‘헤프다’이다. ‘허벌’, ‘헤프’는 헝브 신을 모시는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 음식을 마음씨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때에 사용되었던 말이다.

이 문화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hovel{미 [hʌvəl] 영 [hɒv-] small crude shelter used as a dwelling(오두막집; 광; 가축의 우리)} 을 해 짐작할 수 있다. hovel은 후기구석기시대 헝브 문화 시절의 주택을 칭하는 말이었다고, 이는 아메리카 나바호 족의 주택 hogan, 한국 경남 방언 ‘호간:뒷간(-間)’과 함께 후기구석기 헝브 문화시절부터 사용되어온 말이다.

유럽

핀란드어 hyvaa hyvaa는 '참 잘했다!(good job!)'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hyvaa를 중첩하여 사용한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자주 접하는 어법이다. 그래서 유럽의 헝브(hyvaa) 문화 또한 후기구석기 시절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문화가 북유럽까지 전파된 것은 북유럽 오딘(Odin) 신의 별명 Havi(,Havi:High One)와 Hovi(High One)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헝브의 종교적인 면은 Havi(,Havi:High One)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세 가지 덕목 중의 하나인 Hope에 잘 남아 있다. 영어 Hope은 라틴어로 Spes이라 하고, Spe Salvi (English: "Saved in Hope")의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 Hope과 Spes을 통해, 이 말은 헝브의 파생어임을 알 수 있다.

Huber는 독일어 사용권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0성(姓) 중의 하나인데, 이는 독일어 Hube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은 앵글로 색슨 어 hide와 같은 말이고, hide는 hid (or 동의어 hiwisc)로 사용되었는데, 1 hide는 한 집안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약 120에이크(acres)의 땅이다. 두 단어는 같은 어근 hiwan("family")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hiwan("family")은 쾨브의 존어 쾨브^h에서 유래된 말로 쾨브 문화인 집단이 가족 단위로 농경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성씨 Huber는 쾨브 문화집단의 후손임을 알 수 있고, Hueber, Huemer, Humer, Haumer, Huebmer and (anglicized) Hoover로도 발음 표기된다.

그리고 유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합스부르크(Habichtsburg) 가문의 이름 또한 쾨브와 관계있다. Habichtsburg라는 말은 고지대 독일어 Habichtsburg (Hawk Castle, 응성鷹城) 또는 중세 고지대 독일어 hab/hap(, "ford 요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경우이든 ‘쾨브’가 원래 어원이다. 이 외에 ‘쾨>h·k·s’ 음변환법칙에 따라, ‘쾨브’를 ‘헨브’로 발음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합스(Habichts)’에서 볼 수 있고, ‘크브’로 발음한 것은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카보우르(Cavor) 가문에서 볼 수 있고, ‘스브’로 발음한 것은 중세시대 이후 알프스 산맥 서부 지역에 기반을 둔 사보이(Savoy) 왕가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성씨는 서로 다른 집안으로 보이지만, 모두 ‘쾨브’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태평양 섬 지역

다른 지역보다 쾨브의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은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은 태평양의 섬 지역이다. 태평양 지역의 유전인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중국 동남부 타이완 섬 일대에서 BC 3000 이후에 이동해온 사람들이 많고, 하와이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이 남긴 섬의 이름을 보면, 이들은 후기구석기 시대 쾨 문화시절부터 내려온 쾨^h· 쾨^t· 쾨^b 문화를 계승하여 왔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터 섬 지역 가까운 곳에 쾨브 문화가 잘 남아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인류의 이동을 고려할 적에 대략 3만-4만 년 전에 태평양의 섬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검색창:Hawaiki

태평양 마키저스 제도(Marquesas Islands)에서 볼 수 있는 Hiva는, 다른 폴리네시아 문화지역에서는 Havaiki, Havai'i, or 'Avaiki로 나타나고, 이를 영어 "Hawaii"로 잘못 채록하였다. (Māori 족의 말) Havaiki는 Hawai'i (the 'okina denoting a glottal stop that replaces the "k" in some Polynesian languages)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 말은 태평양 하와이(Hawai'i) 섬의 이름과 사모아 제도(Samoa and the Samoa Islands chain)의 가장 큰 Savai'i 섬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미국 하와이(Hawaii (English /hə'waɪi/ hə-WY-(y)ee; locally, [hə'wɛ(ɪ)?i]; Hawaiian: Hawai'i[hə'vɛjʔi]) 주의 이름은 이곳의 가장 큰 섬 이름 Hawai'i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이곳에 가족배를 타고 무리를 이끌고 와서 정착한 하와이 신화의 전설적 지도자 Hawai'iloa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하와이 어의 단어 Hawai'i는 원(原)폴리네시아 어 *Sawaiki (, "homeland")와 매우 유사하고, 이것의 동종어들은 다른 폴리네시아 어에서 볼 수 있는데, Māori (Hawaiki), Rarotongan ('Avaiki) and Samoan (Savai'i)도 이에 속한다.

언어학자 Pukui and Elbert에 따르면, 하와이 섬이 아닌 폴리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Hawai'i와 동종어들이 지하세계 또는 조상들의 집(,네크로폴리스의 무덤)를 뜻하는데, 하와이 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죽음과 관련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호브** 문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현재 하와이 섬의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은, '호브 문화'의 의미를 모르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살고 있고, 소수자가 된 Hawai'iloa(=Hawai'i + loa = 호브카 + la'a(, "sacred") 또는 호브카 + Aloha ([ə'lo.hə]) in the Hawaiian language means affection, peace, compassion, and mercy)의 후손들이 다른 문화인들에게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Hawai'iloa는 신성한 호브카(>호브카>hou'eiki ("chiefs" in Tongan))였는데, 그를 대신하는 다른 문화(,카브)의 지도자 집단으로 Kahuna가 있다. 그들은 의무(醫巫,healers), 선장(navigators), 건축가(,builders), 예언가(,prohets)/사원 노동자들, 그리고 예지자들(philosophers)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금기의식을 Kapu라고 한다. 호브에서 카브(Kapu)로 변하는 시대와 문화의 변천이 있었고, 카브 문화인들은 그 이전 시대의 호브(ho'opi'opi'o, another's evil thoughts.) 문화를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와이 섬에서는 Hawai'i와 동종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태평양의 호브

On Easter Island, the name of the mythical home country appears as **Hiva**. According to Thor Heyerdahl **Hiva** allegedly lay east of the island. Sebastian Englert records:

He-kí Hau Maka: "He kaiga iroto i te raá, iruga! Ka-oho korua, ka-ú'i i te kaiga mo noho o te Ariki O'Hotu Matu'a! [Translation:] "The island towards the sun, above! Go, see the island where King Hotu Matu'a will go and live!"

Englert puts forward the claim that **Hiva** lies to the West of the island. The name "**Hiva**" is found in the Marquesas Islands, in the names of several islands: Nuku **Hiva**, **Hiva** Oa and Fatu **Hiva** (although in Fatu **Hiva** the "hiva" element may be a different word, '**iva**'). It is also notable that in the Hawaiian Islands, the ancestral homeland is called Kahiki (a cognate of Tahiti, where at least part of the Hawaiian population came from). 《wikipedia:Hawaiki》

언어표10. (태평양의 호브)

이 말을 하와이 제도에서는 Kahiki로 부른다. 종합하면 { 호브카>호브카(Havaiki),카브카(Kahiki<Kavika<Kapuka), 스브카(sawaiki) }로 음변화한 것이고, 언어학자들은 이들 단어를 원(原)-핵(核) 폴리네시아 어(Proto-Nuclear Polynesian) *sawaiki로 재구성하였다.

{호브카>호브카(Havaiki),카브카(Kahiki),스브카(sawaiki)}의 의미와 활용 사례는 sauali'i ("spirits" in Sāmoan) dhk hou'eiki ("chiefs" in Tong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u'eiki ("chiefs" in Tongan)는 '호브카(Havaiki)>호브카>호브카>hou'eiki'의 과정을 거친 말이고, 호브카(Havaiki)는 서아프리카 Wolof 족의 말 hepocat(開眼智子 "one who has his eyes open", 'hepi+ cat')과 히브리 어 חֶפְצִיק (Standard Havaquq Tiberian Hābaqqûq), 그리스 어 Ἀμβακούμ (Hambakoum), 라틴 어 Abacuc에서 볼 수 있다. sauali'i ("spirits" in Sāmoan)는 {스브카>스브카>스왈리으} 의 과정을 거친 말로, 이는 인도의 Shiva(/'fivə/)와 그리스 어 Sophia (σοφία, Greek for "wisdom"), 라틴 어

Sapiens("wise")/sapientia(Wisdom), 그루지야 어 ჭგოსბო(ch'k'viani,"wise")/ბობრძე (sibrdzne, "wisdom"), 신라의 제1 관등직 명칭 서발한(舒發翰), 서불감(舒弗[shū][fú]邯)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태평양 폴리네시아 지역의 Havaiki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hepocat(開眼智子, hou'eiki,"chiefs") 신관통치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들이 통치하였던 곳, 폴리네시아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故國 the ancestral homeland)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신의 이름을 따서 왕명, 국명, 부족명을 짓는 것과 같다. 때때로 고국(故國)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Mangaia 섬에서는 'Havaiki, Avaiki'를 조상 Havaiki 들이 머물고 있는 지하세계("underworld")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그리스 어 Hades (/ˈheɪdɪːz/; Ancient Greek: Ἅιδης or Ἅδης, Háidēs)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의 Háidēs는 흑드 문화 시절의 신관통치자 칭호이면서 이름이었는데, 그가 죽어서 지하세계의 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Háidēs는 지하세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폴리네시아의 흑드 (Háidēs)는

He-kī Hau Maka: "He kaiga iroto i te raá, iruga! Ka-oho korua, ka-ū'i i te kaiga mo noho o te Ariki O'Hotu Matu'a! [Translation:] "The island towards the sun, above! Go, see the island where King Hotu Matu'a will go and live!"

Hotu Matu'a was the legendary first settler and ariki mau ("supreme chief" or "king") of Easter Island and ancestor of the Rapa Nui People

의 노래에서 볼 수 있다.

Hotu Matu'a는 Hiva 섬에서 이스터 섬으로 이주한 전설적 최고 지도자 ariki mau ("supreme chief" or "king")였다. 그의 이름에 보이는 흑드는 Hiva 섬들이 몰려 있는 Marquesas 제도의 북부 지역에 있는 Eiao 북동의 작은 섬 Hatutu (also called Hatuta'a)에서도 볼 수 있다. 아마도 Hatutu는 Hiva 섬들 지역의 망자의 섬, 네크로폴리스이었거나 신전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흑드는 위대한 조상들이 살았던, 살고 있는 행복(幸福 happy)한 고국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죽음과 관계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는 힌두교의 생과 사, 재생을 주관하는 신 Shiva(/ˈʃɪvə/; Sanskrit: Śiva, meaning "The Auspicious One")와 유대교의 shibah(, shiv'a ;유대교에서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장사한 뒤 지키도록 되어 있는 7일간의 애도기간)가 있다. Shiva와 shibah는 흑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유대교에서는 shibah를 야콥이 아버지 요셉을 7일간 애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문자적으로 7("seven")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 의미를 많이 변용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 "Shabbat" (안식일, שַׁבָּת)이 있다. 이는 동사 shavat (Hebrew: שָׁבַת)에서 비롯된 단어라 하면서, 천지창조를 이루고 7일째 안식(rest)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런데 "seven"의 고대어 PIE *septm "seven" (cognates: Sanskrit sapta, Avestan

hapta, Hittite shipta, Greek hepta, Latin septem, Old Church Slavonic sedmi, Lithuanian septyni, Old Irish secht, Welsh saith)를 참고하면, seven은 헛브의 존어 헛브스를 음역한 것이고, 이는 힌두교 Shiva 신의 타밀 어 이름 **Śivan**(,Shiva is linked to the Sun (śivan, "the Red one", in Tamil)에서 볼 수 있다.

헛브스(**Śivan**, "seven")을 ‘헛브+ ㅌ:존칭접미사’로 표현한 것이 ‘sapta, hapta, hepta, shipta, septem’이다. 이는 태양신을 하느님으로 간주하였던 시절의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이 불렀던 노래 "The island towards the sun, above! Go, see the island where King Hotu Matu'a will go and live!"는 헛브와 헛트 시절의 문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아메리카(2)

1492년 이후 아메리카로 이주한 아프리카 인의 후손들 사이에, 헛브(hip/hep)는 20세기 초에 ‘알아요’("aware" and "in the know")의 의미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즈브(jive) 문화시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hip을 지적(知的)이면서 세련되고 최신식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안(開眼)이라는 hip의 본래 의미보다는 걸멋만 부린, 좀 부족한 헛브 세대를 나타낸 말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히피(Hippie) 족은 현실을 비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의 주류에서 밀려나 곁도는 헛브 세대이다.

2) 헛브 > 헛브

헛브는 ‘헛브, 훗브, 흥브’로 발음되는데, 이 중 ‘훗브’가 대표적이다. 현생 인류의 가장 오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에 Himba 족이 있다. 이들이 사는 지역 부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를 추모하는 말 Hamba Kahle, Madiba!!를 볼 적에 Himba와 Hamba는 "Hopi"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아프리카 반투 어에 속하는 isiZulu 어와 SiSwati 어로 hamba는 "go"라는 뜻인데, hambahamba는 가기는 가되 그다지 많이 가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은 한 발(또는 두 발)로 조금씩 짱충 짱충 뛰는 것을 나타내는 말 Hop과 관련 있을 듯하고, 이것은 마사이 족이 의식을 치르듯 제자리에서 높이 치솟아 뛰는 것에 남아 있다. 이들의 행위는 신을 향한 경건한 의식으로 볼 수 있고, hambahamba는 이를 표현한 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hamba 문화는 아프리카 인류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발판이었던 루마니아 Rusciori 강의 지류 Hamba 강의 이름과 그리스 어 Ἀμβακοῦμ (Hambakoum)에 남아 있다.

3) ㅎㅂ > ㅁㅂ

‘ㅎ+ ㅂ:존칭접미사> ㅁ+ ㅂ:존칭접미사’의 ㅁㅂ 문화는 많은 지역에 남아 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원주민 Khoikhoi 족은 강, 물, 샘, 호수 등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ab"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ㅎㅂ>hxap > ㅁㅂ>읍(ab)’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ㅁㅂ의 역사적 표기는 주로 Ibi의 형태로 된 것이 많다. 인명에 보이는 Ibi를 조사해보면, 북아프리카 이집트 제8왕조(2181-2160 BC) 3번째 파라오 Qakare Ibi가 있었다.

Qakare는 ‘Re 신의 영혼은 강력하다’는 뜻이고, Ibi가 이름이다. 또 한 명의 Ibi는 제26왕조(672-525 BC) Psamtik I의 통치시기에 Amun 신의 숭배자 (Nitocris I)이었던 귀족 Ibi (때로는 Aba 또는 Abe로 번역됨)가 있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사용된 Ibi는 신의 대리자인 Ibis([áibis])라는 새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따오기(,황새과의 총칭 ibises (집단적 복수 ibis;고전적 복수 ibides and ibes)로 번역되는 Ibis는 고대 이집트 어로는 dḥwty, 영어로는 Thoth (/ˈθoʊθ/ or /toʊt/; from Greek Θῶθ thóth)로 불리고, 토트 신이 따오기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는 신관통치자의 상징 동물이었다.

dḥwty를 어떻게 읽는가는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고대 그리스 표기 Θῶθ thóth를 참고하여 /tʃiˈhauːti : / or */jiˈhauːti : /가 아닐까하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서 파생된 이름이 { Jehuti, Tahuti, Tehuti, Zehuti, Techu, or Tetu. Thoth (also Thot or Thout) } 등이다. dḥwty의 마지막 음절 -y는 자음일 것이고, 모음은 아니라고 한다. Theodor Hopfner는 dḥwty(=d+ ḥwty)의 어원은 dḥw이고, 어두 "d"는 신성접두사로 영어 "Th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상적 표기로는 hbj인데, 이것이 Ibis를 부르는 가장 오래된 이름이고, -ty는 Ibis의 속성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dḥwty는 "Ibis같은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hbj는 Ibis의 다른 이름 “A, Sheps, Lord of Khemennu, Asten, Khenti, Mehi, **Hab**, and A'an” 중의 **Hab**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Theodor Hopfner가 주장한 hbj는 ‘hb+ j:존칭접미사’이고, ‘hb’는 ‘ㅎㅂ’이다. ‘ㅎㅂ/hb’가 후대에 ‘ ㅁㅂ/ Ibi(Aba 또는 Abe)’로 발음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토트(dḥwty)로 발음되는 것은 ‘ㅎㅎ>ㅎㅎ, ㅋㅋ, 스스>트트’로 된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히브리 어 야페(hp,y:) yapheh {yaw-feh'}는 ‘멋지고 좋은 것’이란 뜻이다(fair 21, beautiful 5, well 5, fairest 3, fair one 2, beauty 1, beautiful + 08389 2, beauty 1, comely 1, pleasant 1; 41/fair, beautiful, handsome. [스트롱코드사전(히)] 이 말의 어원은 아마도 ‘ㅎㅍ’일 것이다.

야페(hp,y:)와 음훈이 비슷한 단어로 יהוה (YHWH)가 있다. יהוה (YHW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많은데, 초기 기독교 그리스 어 문서에 Ιαβε(ㅎㅍ> ㅁㅂ>[jave])가

있고, 라틴 어로는 Jehovah /dʒiˈhoʊvə/로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Yehowah" 또는 "Yahweh"로 번역되어 있다. 또 달리는 YHWH, YHVH, JHWH, JHVH 등으로 적기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JHWH로 통일해서 쓴다.

יהוה (YHWH)의 의미를 가장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벼락과 천둥, 번개의 신” 《엔하위키 미러 사전:야훼》이고, 이에 접근하여 조금 부연한 것이 “이 이름은 원래 「Yo, Yah, Yahu라는 짧은 형태로」 신비스럽고 두려운 광채에 압도되어 특별한 뜻 없이 신을 부르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브리태니커:야훼》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더 부연한 것이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한다」 (Yahweh-Asher-Yahweh)는 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믿는다” 《브리태니커:야훼》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대 유대인들의 ‘벼락과 천둥, 번개의 신’ 야훼는 비를 내리게 하는 고마운 하느님을 부르는 말인데, 이것의 원말은 ḥp(y:)일 것이고, 이것은 Iαβε([jave])와 YHWH, YHVH, JHWH, JHVH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생명의 물인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 ḥb(hp,y:)(,으브)에 대한 후기구석기 시대의 문화는 약 3만 년 전 아시아 대륙에서 필리핀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보이는 Pinatubo 산 주변의 니그리토 Aeta 족이 숭배하는 "Apo Na"에 잘 남아 있다. 필리핀 타갈로그 어 Apo("grandfather"), Na("that"), Apo Na("grandchild"), apoy("fire"), sunog("fire", 화재)와 인근의 인도네시아 어 api("fire")/gunung berapi(화산)를 통해 apoy("fire")는 일상 생활 속의 불(sunog)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 번갯불이나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불을 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하늘에 있는 위대한 아버지 Apo("grandfather")가 일으키는 번갯불이 apoy이고, 그의 독생자가 Apo Na("grandchild")이다.

Apo("grandfather")가 불을 일으키면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일으키는 불은 그의 아들 Apo Na("grandchild")이고, 그가 내려준 물도 Apo Na("grandchild")인데,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모든 물의 원천적 심연수를 나타내는 말 이집트 어 hxap를 통해, Apo("grandfather")의 원래 말은 ḥb(hp,y:)(,으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으브로 발음된 것은 비·물·강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남아프리카의 ab', 베다에 쓰이는 산스크리트 어 Ap (áp-), 고전 산스크리트 어 apa-(단수)·apas(복수)와 힌디어 ap("water"), 힌두이즘의 물의 인격화된 신의 이름이 Āb, 수메르와 아카드 신화에 나오는 지하 깊숙한 곳의 심연(深淵)의 원초적 대양(大洋)이 Apsu 등에서 볼 수 있다.

ḥb(,으브)는 Apsu/Abzu로도 표기되었는데(설형문자 ZU.AB; Sumerian: abzu; Akkadian: apsû) Ab은 대양('ocean'), Zu는 앎('to know') 또는 심(深'deep, 沈), engur(설형문자:𒂗, LAGAB×HAL; Sumerian: engur; Akkadian: engurru)로도 쓴다. Apsu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들이 사는 곳의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청스러운 물이라,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사원에서는 세례의식에 이 물을 사용하였다. 이 물을 머리에 맞아야 영적으로 재생(再生)하게 되는데, 그 의식을 불교에서는 알가관정(闍伽arghya, argha 灌頂)이라 한

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태초의 신성한 물 대신 성스러운 기름 Chrism을 머리에 부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리는 하느님 아버지가 Apo의 원천적 의미인데, Aeta 족의 으브(Apo)를 통해 31,000년 전 기온 하강 후, 다시 기온이 상승하던 시기에 으브 문화는 유라시아로 확산되어나간 것을 알 수 있다. 후기구석기시대의 유라시아 동남 해안이었던 필리핀 지역을 지나면, 일본 열도가 이어진다. 일본에는 Abe([abe])(安倍, 安部, 阿部) 성씨가 있는데, 이들의 한자 이름을 보면 계통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본 중앙 시즈오카 현을 흐르는 아베 강(安倍川 아베카와)의 이름을 볼 적에, 일본에도 으브 문화가 전개된 적이 있었다.

이 외에 가야의 이비가(夷毗訶[yí][pí][hē]), 신라 지마 니사금의 태자였던 이칠 갈문왕(伊柒葛文王)의 휘 이비(伊非[yī][fēi]), 한국어 '에비'(명사: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로, 무서운 가상의 존재/감탄사: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이나 더러운 것 따위를 만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려고 하는 말), 만주어 abkaī bīra(阿瓜亦必刺)/천하(天河) 등과 카스피 해 일대의 초원지대를 점령하고 발전하였던 투르크계 반유목민의 하자르 왕국(the Khazar Khanate or Khazaria, 대략 AD 650-965)의 실질적 창업자로 추측되는 Yīpīshèkuī (Chinese: 乙毗射匱, who lost power or was killed around 651)의 이름(Yīpī, 乙毗), 그리고 고구려 을불(乙弗[yī][fú])에서도 후기구석기 시대 으브 문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야의 '이비가'에 대해서는 장(章)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성스러운 기름 Chrism과 관련된 으브 문화는 인도-이란인의 Apam Napa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스크리트 어 pām Napāt과 아베스탄 어 Apam Napāt은 천하동자(天河童子) ("son of cosmic waters")Sanskrit and Avestan napāt ("grandson") 인데, 《리그베다(Rig Veda 2.35.2)》에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을 창조한 최고 신 Apam Napāt, 《아베스타(Yasht 19 of the Avesta)》에는 인류의 창조자 Apam Napāt으로 나온다.

그는 황금빛 광휘(光輝)에 불려 싸여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광휘는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번져나가는 번개의 섬광(閃光)인데, 그런 뇌광(雷光)에서 있을 수 없으니, 땅에서 솟아오르는 석유(가스)의 불꽃이 아닌가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래서 "naphtha(석뇌유)"라는 말이 "Apam Napat"에서 나온 것으로도 본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어 api("fire")/gunung berapi(화산)를 참고하면, "Apam Napat"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속의 용암이 물의 형태로 분출되어 나올 때의 광휘에 둘러싸여 있는 위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후대에 "naphtha(석뇌유)"로 광휘를 연출하여 신비감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 인도-이란인의 Apam Napat으로 보이고, 이를 간단히 한 것이 성유(Chrism)를 머리에 붓는 관정(灌頂)을 하여 독생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후대에는 정수(淨水)로 알가관정하고, 강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정병(淨瓶)에 물을 담아 몸에 뿌려주는 세례(洗禮)의식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

시베리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 북반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이곳에는 거의 모든 문화가 다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베리아의 서쪽에 오비강(Ob)과 이르티슈 강(Irtysh)이 흐르고 있다.

Ob의 정확한 의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 아프리카의 물을 뜻하는 hxap > ab' }, 서아프리카 요루바 족 신화의 주신(主神) 이름 Oba(또는 Obbá), 몽골의 오보/어브(Ovoo)', 한국 민간신앙의 **업주가리 신** } 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의 어원은 'ᄃᆞᆫ+ᄃᆞᆫ:존칭접미사>ᄃᆞᆫ+ᄃᆞᆫ:존칭접미사'의 ᄃᆞᆫ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르티슈강(Irtysh)은 {Irtysh=을트스>ᄃᆞᆫ트스=이트사Itza = its("sorcerer"마법사,마술사,무당) + ha("water")}로 분석된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넓은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족이 Evenki이다. Evenki는 시베리아의 서쪽 지역 오비강(Ob)과 이르티슈 강(Irtysh)에서 동쪽 지역 태평양 오흐츠크 해(Okhotsk) 연안~웁스키 북극 해안까지, 북쪽 지역 북극해 연안에서 남쪽 지역 바이칼 호수 부근(중국 동북, 몽골 부이르누르 호수 부근까지 포함)·중국 동북지구 북부·몽골 북부·연해주·사할린 북부 등에 퍼져 살고 있다. 시베리아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예니세이 강과 레나 강 사이의 저지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예벤키스키 군에 예벤키 자치구가 있다. Ewenki 어는 만주-통구스 어의 북부 지파어이고 시베리아의 동쪽 해안에 가까운 Even 족과 Negidal 족의 언어와 가까운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이들을 인류학적으로 예니세이 강의 지류인 Podkamennaya Tunguska (문자적의미, Tunguska under the stones, also Middle Tunguska or Stony Tunguska)강의 상류 지역인 Katanga에서 오흐츠크 해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였던 구석기시대의 구(舊)시베리아 인에 뿌리를 둔 몽골리언 형의 구(舊)시베리안 또는 바이칼 인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곧 시베리아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Katanga 지역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서(西)유라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혼혈과 문화의 섞임을 겪었고,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에벤키 족은 스스로를 '에벤키(Evenks, Ewenki, Evenki,Evenkil, 鄂温克族 Èwēnkè Zú), 오라첸(Orochon/Oroqen), 일레, 마타, 통구스'로 자칭하였는데, 몽골인은 함네간으로 부른다. 시베리아 타타르 족과 야쿠트 족은 에벤키 족을 tungus 족으로 불렀고, 러시아 인들이 17세기에 이 말을 들은 이후 '통구스'로도 불렀지만, 1931년 공식적으로 evenk로 부르고, 이들의 다양한 이름을 고정시켰다.

에벤키(Evenks, Ewenki, Evenki,Evenkil)의 바로 옆에 Even 족이 있다. 러시아 인은 이들의 이름을 아마도 고대 Norse 어 auja-, -winduR ("gift" and "winner")에서 유래된 현대 노르웨이 성씨 Even(=E:존칭,어(御)+ven)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종족명을 확정지었을 것 같은데, 에벤키 족의 생활무대에 'ᄃᆞᆫ(Ob)'강으로 불리는 큰 강이 있다는 점에서, '에벤키'이름의 뿌리는 'ᄃᆞᆫ+ᄃᆞᆫ:존칭접미사>ᄃᆞᆫ'에서 유래된 만주어 abkai bira(阿瓜亦必刺)/천하(天河), 가야의 이비가(夷毗訶), 아메리카의 Yupanqui와 연관 짓는 것이 나올 듯하다.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옛 문화는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 에 보이는 유전인자 <A,B,C,D,X>의 이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26,000-34,000년 전, 12,000-15,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로키 산맥 일대에 도착하여 한 줄기는 플로리다를 향했고, 나머지는 중앙아메리카를 지나 남아메리카로 이주하였었다. 이들이 지나갔던 지역 중에 AD 16-17세기에 Ibi, Yui 또는 Ibihica로도 알려진 곳이 있었는데, 미국 남동 플로리다 반도와 연결한 조지아 주 남동 해안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지역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플로리다 중북부와 조지아 주 남동 지역에 Timucua로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이 살았는데, 약 35개의 추장국(chiefdoms)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스페인 인들이 1601년 기록한 것에 따르면 50명 정도의 추장들(caciques)이 있었다. 이곳에는 매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계통의 50,000-200,000명의 Timucua 인디언이 살았다.

추장이 거주하는 주요 마을이 Ibihica였고, 그는 다른 4 개의 마을도 관리하였다. 이들을 조사하였던 인류학자 John Worth는 그들을 ‘Ibihica 족’으로 즐겨 불렀는데, 이는 왕의 명칭이 신, 국가, 왕조, 부족, 성씨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에 해당한다. ‘Ibihica 족’은 추장족이 속한 지배층 부족이었을 것이고, 이들의 이웃으로 Icafui (or Cascange)부족이 있었다.

‘Ibihica 족’은 Itafi로 불리는 Timucua 어의 방언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의 언어 ‘Itafi’는 이들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Itafi(= I+ tafi)는 옛 문화족의 중심지 중앙아시아 투바 공화국과 관련 있다. ‘Ibihica 족’이 Itafi 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조상 옛 문화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옛보다 나중에 형성된 옛(=I+ tafi) 문화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 옛 어를 사용하는 옛 족이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Itafi 어를 사용하는 ‘Ibihica 족’으로 남았음을 알려준다. 또는 이미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옛 문화족이 나중에 이주해온 옛 문화족의 언어를 수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Ibihica의 Ibi는 Yui로도 알려졌지만, 이는 Yvi 또는 Ybi의 오기일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Ibi는 Timucuan 말로 ‘물,(water)’을 의미한다. Ibi가 물을 의미하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 바스크 족의 말 ibai(江)에서도 볼 수 있다. 즉 Ibihica는 비를 부르는 의식을 집행하는 신관이었을 것이고, 강물의 사용권을 장악하고, 주변 부족들을 통제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Ibihica는 ‘Ibihi+ ca:존칭접미사’로 분석되고, Ibihi가 핵심어다.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를 참고하여 Ibihi와 같은 것을 찾아보면, aba(父)의 소말리아어 aabaha와 가야의 지도자 명칭 이비가(夷毗訶[yí][pí][hē])의 사성음 [yí][pí][hē]가 있다. 이를 통해 Ibihica를 Ibi, 또는 Yui 로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말의 어원은 ‘옛’이고, Ibihi · aabaha · [yí][pí][hē]의 ‘-hi · -ha · -hē’는 존칭접미사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서 아프리카 세네갈·감비아·모리타니아의 hepocat(開眼智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hepocat에서 어두 h음이 묵음되면 epicat이 되고, 이는 Ibicat으로 표기할 수 있고, 어미 -t는 인칭접미사로 생략하면, Ibica는 ‘이비가’와 음이 같다. 그리고 Ibihica는 Ibiica로 발

음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비가’와 음이 같다.

{ hepikat(아프리카)–Evenki(시베리아)–Abakan(‘곰(天神)의 피’)강(러시아 하카스 Khakassia 공화국–이비가(가야)–여진/만주어 abkaī bīra(阿瓜亦必刺)/천하(天河)–I bihica(아메리카) }의 이동 흐름은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와 도표3. (Y-DNA Haplogroups에 의거한 인류이동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ㄹ브 문화의 전파 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내려가면 잉카 제국의 땅에 들어선다.

제국의 열 번째 Sapa Inca("위대한 통치자") (1471–93)가 Topa Inca **Yupanqui** or Túpac Inca Yupanqui (Quechua: Tupaq Inka Yupanki)인데, ‘존귀한 잉카 조정자 ("noble Inca accountant")’라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통치자의 칭호에 보이는 Yupanqui 이다. Yupanqui는 미국 플로리다 반도 주변에 살았던 ‘Ibi, Yui 또는 Ibihica’의 잉카 제국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잉카 제국에는 Lluq'i Yupanki(재위 1260경–1290년경)/Qhapaq Yupanki(재위 1320 경–1350경)/Tupaq Inka Yupanki(재위 1471–1493)/Manqu Inka Yupanki(재위 1533–1544)/Titu Kusi Yupanki(재위 1560–1571)가 있었다. 이들을 통해 남아메리카에서는 매우 오랫동안 ㄹ브 문화가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아프리카의 ㄹ브(Efè, Ifè) 문화는 아프리카 인류의 이동을 따라 퍼져나갔는데, 그 이동 과정 중 유럽 지역과 관련된 ‘ㄹ브’지명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보면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고대 요루바(Yoruba) 족의 도시 Ifè, 나이지리아 Taraba 주에 있는 교역의 중심도시 Ibi, 이곳의 바로 서북 지역 국가 Burkina Faso, Bam 주의 **Ibi** 등의 마을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한 사람들이 남긴 지명이 스페인 Alicante 지역에 있는 Ibi (Valencian and Spanish: [iβi]) 마을일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Iberia’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거의 다 연결할 정도로 긴 강의 이름(그리스어 Ἰβήρη/Hibēr, 로마어 Hiber)에서 유래되었다. 이 강 유역의 사람을 Hibēri 또는 Iberi로 부른다. 고대 강의 이름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Hibēr은 ㅎ브 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Hibēr의 기본형은 ㅎ브(Hibē)이고, 이것에서 ㄹ브(Ibēri>Iberia)가 나왔으니, Ibi (Valencian and Spanish: [iβi])는 ‘ㅎ브>ㄹ브’를 표기한 것이다. 이 지역의 현대 바스크어로 ibar은 ‘계곡 또는 습한 초지’를 뜻하고, ibai는 ‘강’을 뜻한다. 이베리아 반도의 ㄹ브(Ibi)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강의 신인데, 이것은 강을 뜻하는 바스크어 ibaia /라트비아어 upe /리투아니아어 upė /아이슬란드어 Abhainn, 러시아 하카스 Khakassia) 공화국의 Abakan 강, 여진/만주어 abkaī bīra(阿瓜亦必刺)/천하(天河), 일본 Ibi 강(揖斐川 Ibi-gawa?)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서부 지역/벨기에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Eifel** 산맥줄기의 최고봉은 Adenau(新에덴) 지방의 동부에 위치한 **Hohe Acht**(746.9 m)인데 정상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산 제3기의 산이다. 이곳은 빙하기 시절 신전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고, 당시 ㅎㅎ(Hohe) ㄹㅎ(Acht) 신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리고 온난기가 되면서 ㄹ드

(Adenau) 문화족이 이곳 주변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 으브/으푼(Eife) 문화족이 산맥 주변에 정착하였다.

4) 𐌺𐌹𐌺𐌹 > 𐌺𐌹𐌺

으푼(, 𐌺𐌹𐌺)는 {으푼(은브)·으푼(음브)·으푼(옹브)}로 읽을 수 있는데, ‘음브’(Umba, Emba, amba, āmbā, imbā, Aoba, Ambae, Emba, 등등)로 된 것이 많이 남아 있다.

탄자니아 Umba 계곡에 거주하던 음브 문화족이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남겼던 지명이 에리트레아의 최고봉 Emba Soira인데, 아프리카 대협곡이 홍해와 만나는 에리트레아 고원지대의 일부분이다. 에티오피아에는 amba (Ge'ez:āmbā, Tigrinya:imbā)로 불리는 탁자형의 깎아지른 고원이 있는데, 자연적인 방어 성벽이 갖추어진 곳이다. 이 주변에 우물과 마을, 농장의 유적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였음을 알 수 있다.

음브(Amba)와 관련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Omphale이다. Omphale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왕비였거나 왕의 딸, 또는 하신(河神 river-god)의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어원적으로 Omphalos와 관계있다. 그리스의 Omphalos 돌은 우주와 연결되는 지구의 ‘배꼽’으로 여러 지역에 설치되었었는데, 델피 신전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옴팔로스의 모양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amba 지형과 거의 같다. 에티오피아의 것이 자연적 ‘배꼽’이라면, 그리스의 것은 인공적 ‘배꼽’이다. 이를 통해 음브 문화는 배꼽을 통해 태아와 어머니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지상의 ‘배꼽’을 통해 ‘하느님 어머니’와 연결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와힐리 어 nyumba(=n+ yumba, 은 음브, "House")를 볼 적에 지명에 보이는 음브(Amba)는 신이 머무는 집이 있었던 곳을 칭하는 말이었고, 이를 통해 음브는 탄자니아 Umba 계곡의 신전이름이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모신(母神)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서 파생된 산스크리트 어 Amba는 보통 어머니(母)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Kashi (Varanasi) 도시국왕의 제일 큰 딸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녀에게는 Ambika와 Ambalika로 불리는 두 여동생이 있었다.

지명을 보면 탄자니아 Umba 계곡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협곡을 따라 에티오피아의 Amba와와 에리트레아의 Emba Soira를 거쳐 홍해를 건넌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러시아·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갔었고, 또 일부는 동남해안을 따라 태평양 지역으로 갔는데, 그 흔적은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위치한 바누아투(Vanuatu) 섬 국가의 Ambae(, Aoba) 지역에서 말해지는 방언 **East Ambae** (also known as Omba, Oba, Aoba, Walurigi, Lolovoli, Northeast Aoba, and Northeast Ambae)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의 언어는 Omba, Oba, Aoba로도 말해지는데, 이 말은 서아프리카 요루바 족 신화의 주신 이름 Oba(또는 Obbá)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사람이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뚜렷한 흔적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동부 Tanga 지대의 음브(Umba) 강은 케냐 국경을 거쳐 인도양으로 흐른다. 또 다른 Umba 강은 러시아 Kola 반도를 흐르고, 러시아 Murmansk 주의 도시형 정착지를 Umba로 부르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마을 이름으로 Umba가 있다. 새로운 주

거지역의 명칭을 음보로 한 경우는 카자흐스탄 Emba 강 좌측 독에 위치한 Embi 마을, 브라질 Rio Grande do Sul 해안의 작은 마을 Imbé가 있다.

(5) ㅎ스

1) ㅎ스 > ㅎ스

언어적으로 ‘ㅎㅎ > ㅎㅎ, ㅎㅋ, ㅎ스’의 변화를 하기 때문에 ㅎ스 문화는 구석기 시대의 상당히 후기 가을 기후 시절의 문화로 보이는데, ‘ㅎ스’의 의미는 태초의 혼돈상태(chaos)를 뜻하는 남아프리카의 Xitsonga 어 "hasahasa"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sa" 자체는 어떤 의미를 띠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ㅎ스’를 나타낸 말로 태초의 신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아메리카 나바호(Navajo) 족의 창조 신화 Diné Bahane’

(Navajo: "Story of the People")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Haashch'ééti'i(,Talking God)/Haashch'éé'ooghaan(,House God)/ Haashch'ééshzhini(,the god of fire)에서 ‘ㅎ스 /Haashch'éé’를 볼 수 있다.

그리고 ‘ㅎ스 > ㅎ스’를 어원으로 하여 사용되어지는 신전의 이름이 영어 house이다. House에 신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고트 어 gudhus(,"temple", 문자적으로 "god-house;")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영어 house는 고트어 razn로 번역되는데, "god-house;"를 "gud-razn"으로 하지 않고, gudhus(,"temple")로 한 것은 hus의 어원이 Hosah(, trusting) / Hosanna(, save I pray thee; keep; preserve) / Hosea, Hoshea(,savior; safety)/Hoshaiah(,the salvation of the Lord)와 관계있다는 것이다. 서양 언어연구자들은 house의 어원으로 원(原)독일어 husan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ㅎ스의 존어 ㅎ스ㄴ(, ㅎ스)을 나타낸 것이고, ㅎ스ㄴ의 또 다른 발음 ㅎ슴 Hashem(, named; a putting to; 'the name' [of God])을 통해서 독일어 husan은 신전을 나타낸 말임을 알 수 있다. House는 신전을 뜻하는 말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처를 뜻하는 말로 일반화된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집(house)’은 성직자 가족의 살림집을 뜻하는 말이고, 신전(temple)이라는 개념은 빠져 있다. 이는 house의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고, 시대가 변하면서 temple과 같은 다른 단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명(Hosah, "trusting")으로 사용된 것은 《wikipedia:List of biblical names》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호싸(a Levitical doorkeeper of the temple)는 사원의 문지기였다. ‘ㅎ스(, ㅎ스)’를 부족명으로 택한 것이 북아프리카 차드 호를 중심으로 서쪽 일대에 살고 있는 Hausa (autonyms for singular : Bahaushē (m), Bahaushiya (f); plural Hausawa and general: Hausa/Haoussa; exonyms being Ausa, Mgbakpa, Kado, Al-Takari, Fellata and Abakwariga) 족이다. 이 외에 부족명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명은 남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에 있는 Al-Ahsa, sometimes Al-Ahasa, El Hasa, 또는 Hadjar (Arabic: الأحساء al-Aḥsā', locally al-; Turkish: Lahsa)는 물이 풍부하여 선사 시절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곳으로, 현재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60Km만 더 가면 페르시아 만이 나온다. 이곳을 Al-Ahasa, El Hasa 또는 Hadjar이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Hadza 족이 이곳에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외에 흐스 지명은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Akkar 지방의 레바논 인의 마을 Hisah (Hokr el Haïssa, El Haïssa, Hisa, Arabic: حمصا)가 있다. 현재 이곳에는 대부분 이슬람의 일파인 Alawites 신앙인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아셀의 서북, 두로의 남방에 있었던 성읍(수 19:29) 마을 호사(Hosah, hs;jo, 발음:호싸 Chocah[kho-saw'])의 어의는 "소망스러운"인데, "피난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2) ㅎㅏㅓ > ㅎㅏㅓ

‘ㅎㅏㅓ’는 ‘ㅎㅏㅓ · ㅎㅏㅓ · ㅎㅏㅓ’로 발음된다.

Hamsa (Arabic: خمسة khamsah, khamsa, meaning lit. "five")는 보통 파티마의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가락을 짝 편 모양이다. 이 모양의 부적 장식물은 현재 중동 지방과 북부 아프리카에서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처음 그려진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스페인 엘 카스티요 동굴에서는 37,300년 전에 손 그림 벽화가 그려졌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의 마로스 동굴에서 39,900년 전의 손 그림이 발굴되었다. 동굴벽화로 남겨진 손 그림은 신의 현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의 보호를 비는 신화(神畫)이다. 검색창:Hamsa

인도네시아의 hamsa(, Hansa) 그림을 통해 ㅎㅏㅓ 신앙의 문화는 약 4만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오랜 전통을 이어온 집단이 ㅎㅏㅓㅏ를 성씨로 삼은 사람들이다. 아랍어 Hassan (Arabic: حسن, Ḥasan)은 잘생기고 강하며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handsome", "manly", "strong", "good" or "benefactor".)이란 뜻이고, 히브리어 Hassan (Hebrew: חסן)은 기도문의 독창 부분을 노래하는 선창자(先唱者)("cantor", or "good cantor")라는 의미다.

이를 보면 ㅎㅏㅓ는 사제 집단이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갈리어로는 Ó hOsáin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ㅎㅏㅓㅏ의 다른 표기 Haşim 도 있는데, 이는 투르크계의 이름에 보인다.

그리고 신의 대리자 Hamsa (< Sanskrit हंस hamsa)는 종종 거위 또는 백조로 간주되는데, 인도와 동남아시아(Hindi: hans, Burmese: ဟံဆာ, IPA: [hínθà], and commonly spelt hintha or hinthar; Mon: ဟံဆာ, [hɔ̃psa] or hongsa; Shan: ဟံဆာ, [haŋt̪sʰa : -] or hong; Thai: ห่าน, [hǎn].)에서는 신의 상징물과 장식물로 사용된다. 타이어 [hǎn]을 한자어에서 찾아보면 홍(鴻[hóng])이 있다. 이를 통해 큰 기러기(鴻)를 신의 대리자 Hamsa로 믿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위를 뜻하는 그리스어 "χηνή chên", 라틴어 "(h)anser", 독일어 "Gans" 러시아어 "гусь gus" 영어 "goose"와 동종어로 취급된다. 이들 단어의 어원은 ㅎㅏㅓ이다.

3) ㅎㅏㅓ > ㅎㅏㅓ

‘ㅎㅏㅓ > ㅎㅏㅓ’에는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동부 대협곡 호수 지역에서 카메룬·나이지리아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으로 이동해간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ㅎㅏㅓ’가 지니는

의미를 동아프리카 대협곡 화산지대의 에야시 호수에서부터 살펴본다.

아프리카

(a)에야시(Eyasi) 호

동아프리카 대협곡에서 고인류의 유물이 주로 발견되는 곳은 탄자니아 북부 Eyasi 호에서 케냐 북부에 있는 Turkana 호에 이르는 지역이다. 케냐 산과 말라위 호 사이의 꼭 중간쯤 되는 곳에 Eyasi 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 Serengeti 고원지대와 Ngorongoro 분화구 고원지대가 가까이 있고, 그 옆에 Manyara 호가 있다. 이 일대에는 인류의 요람지로 불리는 올두 바이 협곡(Olduvai Gorge)이 있고, Eyasi 호에서 45km 떨어진 곳에 360-38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하였던 사람의 발자국이 화산재에 찍혀 보존되어 있는 Laetoli 유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발자국 화석 외에도 호미니드와 동물의 뼈, 아슐리앵(Acheulean) 시기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곳의 Ngaloba Beds는 120,000-150,000 년 전 인류의 생활터전이었다.

Eyasi 호의 주된 유입수는 Sibiti 강이고, 그 외에 Baray 강, Oldeani 산언덕(Mount)에서 내려오는 물, Budahaya / Udahaya 강, Serengeti에서 내려오는 Sayu 시냇물, 등등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물은 없다. 우기에도 수심은 1m 정도도 안 되는데, 호수가의 Mumba(=M+umba) 동굴에서는 중기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의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었다. 오래된 것의 정확한 추정연대는 31,070 + 500 BP로 나오는데, 이 연대는 31,000년 전의 기온변동 사건과 일치하고 있다.

이곳에 유물을 남긴 사람들은 기온 강하의 변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지의 호수가로 들어와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는 50,000년 전 정도부터 이 일대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호수 지역의 원주민 Hadza 족이 살고 있다. 이 호수 주변의 유적과 유물에 따르면, 이 일대는 3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끊임없이 살아왔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의 이름 Eyasi는 매우 중요하다.

신은 모든 것에 들어가 존재하기에, 강과 화산, 신관통치자 등등이 모두 으스로 불리었던 적이 있었다. 호수는 ‘ᄃᆞᆯ>ᄃᆞᆯ>으스’로 불리는 신의 거주처이고 생명의 탄생지이니, 이 이름은 어느 호수에서나 불리었을 것이다. Eyasi 호 부근에는 보통 Malawi 호로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이름은 현지의 대부분 나라에서 Nyasa 호로 알려져 있고, Nyassa 호·Niassa 호·Nyaza 호로도 불린다. N은 ‘ᄃᆞᆯ>으스>N’의 과정을 거친 말로 ‘위대한’, ‘매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핵심어는 ‘ᄃᆞᆯ>ᄃᆞᆯ>으스(yassa/iassa/yaza)’의 ‘으스’이다. Eyasi는 Nyasa의 N(ᄃᆞᆯ>으스>N) 대신 E(ᄃᆞᆯ>으스>E)가 붙은 것이고, 이것 역시 으스(yasi)가 기본어이다.

빅토리아 호를 Victoria Nyanza, 탄자니아와 말라위의 경계를 이루는 말라위(Malawi) 호수를 Nyasa로 부르는 것을 참고하면, Eyasi는 ‘E(존칭접두사)+yasi’로 보는 것이 좋다. 즉 호수의 이름은 으스(Yasa 또는 Yasi)이고, Eyasi는 존칭어이다. 그리고 히브리 어 **Asaiah** (Hebrew: אֱשָׂאִיָּה "God made me")를 참고하면 으스(Yasa, Yasi, Eyasi, Nyasa) 호

수는 신이 만든 것이다.

Malawi 호의 생성연대를 4만 년 전으로 보기도 하고, 1-2백만 년 전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과 흙스 문화의 손그림 벽화가 약 3.7-3.9만 년 전에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에서 그려졌다는 것을 맞추어보면, 이 일대의 ‘으스’문화는 약 4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Eyasi 호 주변에서 5만 년 정도 지속적으로 살아온 Hadza 족의 종교와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으스 문화의 본래 모습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Hadza 족의 주신은 태양의 얼굴을 한 Ishoko(, 또는 "Ishoye")와 달의 얼굴을 한 Haine이다. Ishoko는 Haine의 아내로 모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인사를 하거나 사냥을 갈 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Ishoko의 이름을 부른다. Ishoko(, 또는 "Ishoye")는 {I+ sho+ ko(, 또는 "I+ sho+ ye")}로 분석되는데, 이 중 "I+ sho+ ye"는 북아메리카 Haida 족의 **꺄야**(xo'ya)와 언어적으로 연결된다. "sho+ ye"는 **꺄야**(xo'ya)가 ‘스으’로 발음된 것이다.

그리고 태양신 "I+ sho+ ye"는 미국 남서부 Zuni 족과 Hopi 족의 조상령의 하나로 되어 있는 Soyal로 불리는 동지(冬至) 의식에서도 볼 수 있다. Soyal은 ‘꺄야(sho+ ye/xo'ya)’에 다 어미 ‘늘(-al)’이 연결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Hadza 족의 태양숭배(Ishoko, Ishoye)는 아메리카 Haida, Zuni, Hopi 족의 Soyal로 이어져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year)를 뜻하는 이란 제어(諸語)와 한국어 ‘설’의 어원은 아프리카의 "I+ sho+ ye"와 아메리카의 "Soyal"과 관계있을 것이다.

English	Zaza	Kurdish	Pashto	Tati	Talyshi	Balochi	Mazandarani	Persian	Middle Persian	Partian	Old Persian	Avestan	Ossetian
year	serre	sal/sal	kāl	sāl	s o r , sal	sāl	sāl	sāl	sāl		Øard	ýāre , sarad	az

언어표11. (soyal 관련어)

Hadza 족이 살고 있는 곳의 옆에 "Anyihanzu"로 자처하는 Isanzu 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계사회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사는데, Hadza 족과 식량교환 및 문화적 교류를 하는 우호적 부족이다. 이들은 Kinyihanzu라는 반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Hadza 족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반투족도 아니어서 반투족 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확실치 않다. 이것은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반투어를 그들의 언어로 차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종적 뿌리는 Hadze 족과 같은 수렵-채집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Isanzu는 Ihanzu로도 불리는데, 이는 ‘꺄>h·k·s’ 음변화 법칙이 적용된 것이고, Haine · Kiny · san · Any는 **꺄**의 다른 표현(**꺄**>**훈**, **꺄**, **꺄**>**은**)이다. 이는 이들의 문화 핵심이 ‘꺄’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17,000년 전 Haida 족이 북아메리카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정착한 섬의 이름 Haina는 Hadza 족의 월신 Haine와 함께, **꺄**에서 유래한 이름일 수 있다.

그러면 Eyasi 호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꺄>꺄’문화인이었는데, 그들은 **꺄**(해)를 신(Sin)으로 믿었고, 하루가 끝나면 해는 호수 아래로 들어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믿었다. 호수나 저습지를 태양신의 거처로 생각하였던 것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고, Hadza 족의 태양신 "Ishoye"가 잠자는 호수는 곧 신전이였다. 이 호수 신전에 있는 ㅎ(해,sun)를 존칭하여 ㅎㅎ로 불렀고, “ㅎㅎ>ㅎ스>으스”의 음변화를 하여 으스(Isho)가 되었고, 이것의 존칭어가 으스쿠(Ishoko)이다.

아프리카의 으스쿠의 의미는 후기구석기시대 유라시아의 동남 해안 지역이었던 일본에서 더 뚜렷이 볼 수 있다. 매일 밤이면 죽었다가 아침이면 다시 날아오르는 불사조(不死鳥) 태양새, 이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일본어 Asuka(飛鳥)이다. Asuka는 아프리카의 Ishoko를 일본어 발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어에 남겨진 으스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많은데, 원래 의미에 그런대로 접근한 것은, {洲処 (suka, meaning sandbar, sandbank or delta) or 崩地 (asu) + 処 (ka)}로 해석하는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고 생성된 호숫가에 모래가 쌓인 곳이 {洲処 + 崩地 + 処}이다. Eyasi 호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으스 문화가 있었던 곳은 이러한 지역이고, 사실 이러한 곳이 생존하기에 매우 좋다. 이러한 호수는 태양의 거주처이고, 그곳의 태양신을 으스쿠로 불렀던 것이다. 일본지명 Asuka, Yamato (飛鳥)와 Asuka, Nara (明日香)는 으스쿠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으스쿠 지명은 지중해 Cyprus 섬의 마을 Askas와 스웨덴의 Aska Hundred, or Aska härad에서도 볼 수 있다. Cyprus 섬의 마을 Askas는 중세 시대 Askas 성씨를 사용하는 귀족 가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유럽 지역에서 으스쿠 문화를 계승해온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으스쿠(Aska Hundred, or Aska härad)는 스웨덴 동부지역의 작은 마을인데, 이를 일본 지명으로 변안 번역하면 Asuka, Nara (明日香)이다.

(b)콩고(자이레) 강 지역

동부 아프리카 고원지대 빅토리아 호가 있는 큰 호수 지역과 서아프리카의 Niger 강 사이에 Congo 강(, Zaire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 유역에 피그미로 불리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다. 언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크게 서부 콩고 분지의 Mbegna(, Aka와 Baka) 족과 Ituri 열대우림의 Mbuti(,Efe, Asua, Kango) 족, 그리고 동부 고원 큰 호수 지대와 중부 내륙 분지에 살고 있는 Twa 족으로 나뉘는데, 오직 Aka/Baka/Asua 족만이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 중에서 Asua 족이 특히 주목되는데, 부족의 이름 Asua(, 또는 Asoa, Asuae, Asuati)에는 으스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Asuati는 { 으스Asua + ㄷti:존칭접미사 }로 분석된다.

(c)서아프리카

하늘의 불, 태양새 으스와는 별도로 땅속의 불 으스를 나타내는 말은 인간계와 신계의 전령자로 인식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요루바 족의 Eshu 신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 Eshu는 Eleggua, Èṣù, Exú, Esu, Elegba, Legbara, Papa Legba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화산의 불기둥과 가스이다. 이것은 신성한 붉은 바위 Yangi에서 올라오는 기운으로 신인(神人)이 Irunmole, Orisa, Orunmila 등등의 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화산 지대에서 올라오는 가스와 신인의 관계는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바닥에서 솟아

오르는 증기가 무녀(巫女)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증기는 에틸렌이고, 무녀는 에틸렌 흡입 환각 상태에서 신탁을 내렸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세계의 모든 신화,p306》, Scientific American, 2003년 8월호)”

나이지리아 Igbo 족의 Asa("aa-saa"로 발음)는 현재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사람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원래 신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신녀(神女)를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었고, 현재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들에게 인사치레로 붙여주는 "Asa("aa-saa") Mpete"라는 말로 남아 있다. "Asa Mpete"는 본래 화산지대의 신전에서 에틸렌 가스를 마시고, 하늘과 소통하며, 가스 불을 다루던 신녀였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Asa([asha])는 ‘매’(hawk, little hawk)라는 뜻의 사람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날카로운 부리를 지닌 때는 지배자의 상징이고, 신의 대리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Asa([asha])는 그러한 신인 집단 으스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d)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Afar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골 화석이 많이 발견된 지역인데, ‘아프리카의 빨’ 지역에서 살아온 Afar 인은 전통적으로 염소와 양, 그리고 가축을 사막에서 기르는 유목민이다. 그들의 씨족은 asaimara("reds")로 불리는 지배집단과 adaimara("whites")로 불리는 노동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들의 사회조직에서 지배집단을 칭하는 asaimara는 으스를 모셨던 신관집단이었을 것이다. 이 지역에 으스 문화인이 세운 오사 왕국(Aussa Sultanate AD 1734-현재)이 있었다.

Aussa는 Awsa 또는 Assaw로도 표기되는데, asaimara의 asai와 같이 으스를 음역한 것이다. 전통적 지배자 계층을 뜻하는 말 으스는 이슬람교의 ‘술탄’을 만나, 왕국 이름은 ‘으스 술탄의 나라’를 의미하는 Aussa Sultanate가 되었고, Afar 사람들은 Aussa Sultanate(Afar Sultanate)를 정신적 지주로 여기고 있다.

Afar 지구에서는 Awash 강을 We'ayo로 부르는데, 에티오피아의 가장 주된 강이고, 이 강의 하류에 Asaita 지방이 있다. Asaita는 Aussa Sultanate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좌("seat")’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Asaita=Asai(붉은)+ ta(땅,land)}로 분석하여, 신인이 거주하며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붉은 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e)이집트

이집트 문화 중 으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이시스(Ἥσις, Isis) 여신이다. Isis는 그리스 어 이름인데, 고대 그리스 어 Isis의 어미 -s는 단어를 명사격으로 만들기 위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단어는 Isi이다. 이것의 이집트 본래 발음은 Aset/Eset으로 들리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ee-set"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ee-sa"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 여신은 BC 3100 이전, 이집트에 고대 왕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나일 강 델타 지역의 Sebennytos를 중심으로 믿어져 왔던 가장 대중적인 신앙이었다. 여신의 이름 Aset/Eset(is.t 또는 3s.t)은 "왕좌(의 여주(女主))" "(She of the) Throne"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Asaita는 Aussa Sultanate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좌("seat")'를 의미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Aset/Eset는 Asaita이고, "ee-sa"는 '으스 aa-saa'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집트 신화의 Isis 여신은 으스 여신이다.

그리고 Isis 숭배는 으스 문화의 전파로를 따라 하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그리스·로마·마케도니아에까지 퍼져나갔었다. 로마에서는 남자 아이의 이름으로 "Isidore"("gift of Isis")이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대중적인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행하여졌던 Isis 의식은 기독교 마리아 의식의 원형이었고, 'Isa는 이슬람에서 예수(Jesus)를 부르는 이름이고, 아랍과 터키의 남자 이름으로 보통 많이 사용된다.

(f)아시아

아시아의 으스 문화는 '아시아(Asia)'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다. Asia는 '으스'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말의 어원에 대해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으스(Asia)'의 사회적 활용 예는 히브리 어 Asa(, 주술치료사(healer and/or physician, Ase), 유대 제3대 왕 'Asa (אסא/ʾay-sah/)와 예수의 아랍 어 이름 으스(an-Nāṣira, and Jesus (Arabic: يَسُوع, Yasū` or Arabic: عيسى, `Īsā)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 { **Asaiah** (Hebrew: אֲשַׁיָּה "God made me"), **Ashan**(, smoke), **Ashbel**(, an old fire), **Ishi**(, salvation, saving, my help, saving), **Isshiah**(, there is God), **Isshijah**(, there is God), **Ishiah**(, it is the Lord; Jehovah exists, forgiveth), **Isaiah** (US /aɪˈzeɪ.ə/ or UK /aɪˈzɑɪ.ə/ Hebrew: אִישַׁיָּהּ, Modern Yeshayahu Tiberian Yəšəʔayāhū ; Syriac: ܐܝܫܝܗܐ Eshaya; Greek: Ἰσαΐας, Ēsaīās; Arabic: إيشيا Ishiya; "Yah is salvation") } 등등이 있다.

이 외에 중동 지역 동 셈계의 Akkadian, Assyrian and Babylonian의 풍요와 사랑, 다산을 위한 성교, 전쟁의 신 Ishtar (/ˈɪʃtɑːr/; DIŠTAR; Akkadian: 𒌆𒌷𒍪 ; Sumerian𒌆)이 있다. Ishtar 여신의 속성이 으스 문화 초기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인도 유럽어에 남아 있는 으스의 종교적 의미 발전을 살펴보면, {헉스(큰 슬기 Great spirit) > 원(原)인도유럽 어원 hensu- >ṛsu->(Proto-Germanic) ansuz, (Sanskrit) ásu-, "breath, life, spirit}으로 정리된다. 이것이 아프리카 대협곡 대호수 지역의 말 으스(Yasa, Yasi, Yaza, Yanza)의 종교철학적 의미인데,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젠드아베스타》에서 거의 완성되었다. 아프리카의 Yasa는 조로아스터교의 yaz-(, "to worship, to honor, to venerate")로 되었고, 이 말에서 yasna("worship, sacrifice, oblation, prayer")와 Yazata("worthy of worship" 또는 "worthy of veneration"), yazatō와 원(原)이란 어 yazatah가 생겼다. 그리고 Ashi(aši)는 조로아스터교의 증득(證得)된 상태를 나타내는 아베스탄 어인데, 이 말은 보통 Aša Vahišta, Arta Vahišta("Best Truth")로 표현되고, Asha (aša)는 진리(, "truth"· "existence"· "right working")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이란 고원의 옆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부탄 어 Ashi(Dzongkha: ཨ་ཇེ; Wylie: A-zhe)는 문자적으로는 '아씨(, "Lady")'란 뜻이고, 사회적 직함으로는 '공주(, "Princess")'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은 때때로 통치자의 딸들을 나타내는 "Princess Ashi"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으스’가 지배계층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부탄에 가까운 인도 북동부 Arunachal Pradesh 주에 Nyishi(i=N:존칭접두사 + yishi=으스) 족의 족명을 Nyi,"a man" and Shi,"a being"(= a civilized human being)로 해석하고 있는데, Nyishi/‘N으스’는 신인(神人)의 이름을 부족의 이름으로 택한 경우이다.

이란고원과 히말라야 산록 지역에 전파된 으스 문화는 당연히 인도에도 남아 있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석가모니와 관계있는 네팔의 Ashita 선인을 통해 으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이것 외에 Yaksha (Sanskrit: यक्ष yakṣa, Pali: यक्ख yakkha, Tamil: யக்ஷ Yākka, Thai: ยักข yaksa, Chinese: 夜叉 yèchā or yaochā, Korean: 야차/夜叉 yacha, Japanese: 夜叉 yasha, Burmese: ဝိဇ္ဇ: [bilú], Tibetan: སྐྱེན་གྱིན་ gnod sbyin)를 통해서 으스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약 3만 년 전 필리핀에 도착한 Aeta 족을 Agta로도 표기하고, 모두 eye-ta로 읽는 것을 참고하면, 옥스(Yaksha)와 으스(yasha)는 같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발음의 명확성을 위해 K 음이 추가된 것이다. 옥스(Yaksha)에 대하여는, 이것을 ‘호수의 수호정령’으로 보는 견해와 원래 숲과 마을의 수호정령이었지만, 나중에 대지와 그 아래에 묻혀있는 부를 관리하는 신으로 인식되었다는 것, 등이 있다. 호수와 대지와 관련된 부(富)는 대체로 사금과 같은 광물질 종류이다.

그런 점에서 물과 관계있는 ‘으스’는 금속의 명칭에도 보인다. 현대 영어 Ore(광석, 원광)의 어원은 aȳos-인데, 이는 산스크리트 어 ayas(금속, metal), 영어 aes(구리:brass, copper), 라틴 어 aurum(金<ausom <awes-:to shine), 지중해 동광 수출 섬이었던 Cyprus 섬의 옛 이름 Ayashya, 쇠·금을 뜻하는 만주어 aisin과 관계있다. 터키 어 altun, 몽골 어 altan/altyn/altai/alocu도 금을 뜻하는데, 이들 단어는 ‘으크>으트>으스’의 음변화와 관계있다.

인도 예술에 있어서 남성 yakṣas는 무서운 전사(戰士) 또는 뚱뚱하고 살찐 난쟁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현재 중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Twa 족과 같은 피그미 족 신체 크기의 이집트의 Bes상과 일치한다. 이들의 조상이 으스 문화를 인도에 전파한 것이다. 인도의 여성 yakṣas(yakṣiṇīs)는 행복감이 넘치는 둥근 얼굴에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하고 늘씬한 키의 아름답고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yakṣiṇīs가 주로 아리아 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힌두교와 관련된 문화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으스는 훗날 BC 4세기 경 인도 시바파(Shaivism, Shaivam)의 경전이랄 수 있는 Śvetāśvatara Upanishad (400-200 BC) 속으로 들어와 힌두교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시바파는 Shiva 신을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으로 믿는데, 시바 신의 속성은 Mahādeva ("Great God"; mahā(Great)+deva(God)), Maheśvara ("Great Lord"; mahā(Great)+īśvara(Lord)), 그리고 Parameśvara("Supreme Lord")로 표현된다.

이 중에서 īśvara (= Lord)는 《Śvetāśvatara Upanishad》에 훗날 Śiva로 불린 주(主 the Lord, Sanskrit: Īśa)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īśvara = Īśa+ 바(ba,va)+ra(라:인칭접미사, -리)}로 풀이되고, Īśa(으스)의 뜻은 산스크리트 어 동사 īś- (ईश, Ish) ‘할 수 있는, -의 主君’,("capable of", "able to" and "owner, ruler, chief of")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단어의

원래 기원은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 호수 으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sva는 이집트의 Isfet, 수메르의 Ishib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신라에 처음 전해졌을 때의 명칭은 신라 지증왕·법흥왕·진흥왕 때 활동하였던 ‘이사부(異斯夫[yi][si][fū])’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부는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어졌었는데, 실제로는 ‘정치·종교·군사’를 모두 관장하였던 사제 겸 관리의 직명이었다.

그리고 일본 고대 국가 이세 국(伊勢国 いせのくに)과 유리 니사금 때 금성(金城:경주)을 공격하였던 이서국(伊西國: 현재 청도군), 경상북도 포항과 영덕 지역의 삼국시대 이름 야시홀(也尸忽), 강원도 화천군의 삼국시대 이름 야시매(也尸買), 금성현(지금의 강원 철원군 원동면·원남면·임남면 일대)의 삼국시대 이름 야차홀군(也次忽郡),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동에 속하는 법정동의 옛 이름인 야사동(也史洞) 또한 ‘으스’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로 신라 지역에 보이는 지명 ‘야시’는 여우를 뜻하는 경상 방언을 뜻할 수도 있으나, 야시홀이 야성군(野城郡)으로 개명되었다가 고려시대에 영덕으로 개칭되었고, 야(也[yě])와 야(野[yě]), 시(尸[shī])와 사(史[shǐ])의 사성음이 [yě][shī]로 같은 것을 볼 적에, 이는 으스([yě][shī])의 음역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로 신라 지역에 보이는 으스([ye][shī]) 지명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다.

(9)유럽

아프리카 Eyasi(=E:존칭접두사+ yasi)의 으스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서 야시(Yashi)로 발음되는데, 루마니아의 문화적 수도 이아시(Iasi)(Iași ([jaʃi] ,야시Jassy or Iassy,)와 Yash(불가리아 어), Jassy(영어, 폴란드 어), Iásio(그리스 어), Iassi(이탈리아 어), Yassy(러시아 어), Yaş(터키 어), Yas, Яс(이디시 어) 등에서 볼 수 있다. 흑해 주변에 보이는 야시(Iași[jaʃi] ,Jassy or Iassy)는 예수의 아랍 어 이름 으스(an-Nāṣira, and Jesus (Arabic: يَسُوع, Yasū` or Arabic: عيسى, `Īsā)와 같은 것이니, 흑해 주변 국가의 으스는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神)을 뜻하는 헝가리 어 Isten과 발트 해로 흘러드는 Bug 강의 고대 이름 Istula, 고대 트라키아 어로 부르는 Dniester 강의 다른 이름 Ister, Danube 강의 고대 트라키아 어와 그리스 어 이름 Ister 등과 북유럽의 Æsir(, áss, óss "god" (gen. ásir))'신을 통해, 후기구석기 시대에 전파된 으스 문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Asia" (Ἀσία) or "Asie" (Ἀσιή)는 리디아의 님프 또는 티탄 여신("Nymph or Titan goddess of Lydia.")의 이름이었다. 이는 아프리카 으스 여신의 문화가 나중 시대의 ‘님프’, ‘티탄’신과 합체된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그리스 인은 Asia가 Prometheus (i.e. Hesione)의 아내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도 하고, 소아시아의 리디아 인들은 Cotys의 아들 Asies의 이름을 딴 것인데 Sardis 지방에 사는 부족의 이름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의 이름은 왕명, 부족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주로 리디아와 관계된 것이 많은 것은, 아프리카 으스 문화인이 이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북유럽의 으스 문화는 소아시아에서 루마니아를 거쳐 북유럽으로 전해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북유럽 지역 신화의 ၽ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고대 북유럽어 áss (또는 óss, ás, 복수형 æsir; 여성형 ásynja, 복수형 ásynjur), Æsir 신을 부르는 스웨덴 어 Åsa ([o-sa]), 고대 영어 ōs (복수형 ēse), OHG ans(복수형 ensī), 고트 어 ans-, 보통 게르만 어 ansuz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는 "god"이다. 이렇게 ‘ၽ스’의 음을 가진 신은, 그 이후의 Odin · Frigg · Thor · Baldr · Tyr 등의 신과는 어울렸지만, 기독교와는 섞이지 못하였다.

북유럽 종교에 있어 Asgard (Old Norse: "Ásgarðr"; "Enclosure of the Æsir")는 구천(九泉,九天,久喘)(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넓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 고대 중국에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던 말, 비슷한 개념으로 Hades;the highest heavens가 있다)세계 중의 하나이고, Æsir 신들의 안식처이다.

(h)아메리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ၽ스 문화는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발달하였던 ‘아스텍 문명(AD 1200-1522)’일 것으로 고려된다. 아스텍(Aztec)은 Nahuatl 족의 말 Aztlan(/'as.tʃa : n/)에서 유래하였고, Aztlan은 ‘ၽ스(as.) 신의 땅’을 뜻하는데, 이는 에티오피아의 {Asaita=Asai(붉은)+ ta(땅,land)}, 한국의 ‘아사달’과 같은 말이다.

이것 외에 ၽ스와 관계있는 것을 찾는다면, 북아메리카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중앙 서쪽 사면, 캘리포니아 북부의 산악 지역에 원주민 Yana 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Ishi (ca. 1860-1916)를 마지막으로 멸절되었다. Yana의 Ya-는 사람(person)이라는 뜻이고, 인칭접미사로 -na(북부방언)와 -hi([xi])(남부방언)가 사용되니, Yana는 Yahi 또는 Yaxi로도 부를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Ishi는 Yaxi([ၽᄃ])의 다른 발음 형태로 이해된다.

일단 Yana와 관계되는 지명을 찾아보면, 서아프리카 시에라 레온(Sierra Leone)의 북부 지구에 있는 마을 Yana, Sierra Leone, 나이지리아 Bauchi 주의 행정수도 Yana, 미얀마 북서 지역의 Hkamti 지역에 있는 마을 Yana,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에 있는 마을 Yana, 러시아의 동북 끝 Sakha 주에 있는 Yana 강 등이 있다. 이들 지명을 참고하면, 아메리카의 Yana 족이 아프리카의 Yana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다는 사실은 찾기 힘들지만, Yana 족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 Yana와 Yahi[xi]의 관계를 볼 적에 이들은 Ya 문화족이고, 이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Yao 족 · 중국 남부의 Yao 족(요족(瑶族)) · 중국 남부와 베트남과 태국의 Yi 족(이족(彝族)) 등과 요(堯[yáo])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ၽ스 문화와 관계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4) 𐎠𐎢𐎽𐎢𐏁 > 𐎠𐎢𐎽

𐎠𐎢𐎽(은스, 음스, 응스)의 발음으로 된 것 중에 신조(神鳥) Hamsa를 달리 부르는 말 Angsa가 있다. 이것은 은스의 준어 𐎠𐎢𐎽를 나타낸 말인데, 《리그베다》에 나오는 Aditi(무한"limitless") 신의 자식들 중의 하나인 12 Ādityas("Sun-God)"들 중의 한 신인 Anśa 또는 Aṃśa로 기록되었다.

은스는 롬바르드 왕국의 Desiderius 왕의 왕비(fl. 753-774) Ansa, 핀란드 여배우 Ansa Ikonen (1913-1989)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고, 은순(, 안소니/Anthony)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다.

(6) 𐎠𐎢𐎽

1) 𐎠𐎢𐎽 > 𐎠𐎢𐎽

𐎠𐎢𐎽 > 𐎠𐎢𐎽는 "𐎠𐎢𐎽"에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 ‘𐎠𐎢𐎽 > 𐎠𐎢𐎽 > 𐎠𐎢𐎽’로 된 경우(, 유라시아 문화)와, ‘t-d-r-s’법칙에 따라 ‘𐎠𐎢𐎽 > 𐎠𐎢𐎽 > 𐎠𐎢𐎽’로 된 경우(, 아프리카 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이든 𐎠𐎢𐎽(, 𐎠𐎢𐎽, 𐎠𐎢𐎽, 𐎠)는 신을 뜻하는 말이고, 이것은 국명·지명·왕명·부족명 등등에 사용되었다.

카프카스 산맥 주변 지역

아프리카를 떠난 고인류가 처음 정착하여 살아왔던 곳은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흑해연안 그루지야 일대이고, 현생 인류가 처음 정착하였던 곳은 이곳에서 히말라야 산록 일대에 이르는 고원 지대였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인류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곳이다. 먼저 이 일대의 (하늘의 신)/god과 (대지의 신)/earth의 이름을 살펴본다.

English	Zaza	Kurdish	Pashto	Tati	Talysh i	Baloch i	Mazandarani	Persia n	Middle Persia n	Partia n	Old Persia n	Avesta n	Osset ian
god	homa huma oma heq	Yezdan xwedê xuda xodê xwa(y)	xwədaɪ	xəda	X i do	hwdā	xedā	xodā/ izad	xudā/ yazdā n		baga-	baya-	xwyca w
earth	erd	zemîn, zewî, ‘erz, erd	dməka mdzəka	zemi n	zamin	zemin	zamin bene	zamīn	zamīg	zamīg	zam-	z ā m , z ā m , zem	z æxx

언어표12. (god,earth)(이란 諸語)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로 불리는 신의 이름:
 Al(투르크어), Xal(아제르바이잔어), Г а л "Qal"(몽골어), Hal(오이라트어), al(페르시아어), Ал
 ы(Aly러시아어), alk(아르메니아어, 쿠르드어), ol, hal and xal(타지키스탄어, 아프가니스탄
 어), almas̄ti or albas̄ti(중앙아시아 투르크어 사용국가들), halmasti(다르트어족Dards), 그 외
 Turkmen: Ал veya Al(투르크멘어) / Azerbaijane: X а л or Xal/ Lezgian: Ал / Georgian: Али
 / Tat: Ол / Talysh: Ал а / Udi: h а л / Kurdish: Alk or Hal/ Armenian: Ալ or ԱԼԿ or ԱԼԿ

언어표13.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로 불리는 신의 이름)

신의 이름에서 xwdai, xwede/xwa, xude, xuda는 ‘ᄃᆞᆫ’에서 유래된 것이고, Xal/Hal은 ‘ᄃᆞᆫ>ᄃᆞᆫ’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를 보면 아프리카의 ᄃᆞᆫ 문화에서 유라시아의 ᄃᆞᆫ 문화로 발전한 것이 있다. 그렇지만 ‘ᄃᆞᆫ’의 문화는 아프리카보다는 유라시아에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로 불리는 신의 이름은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보다는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어 "Хорошо"(하라쇼, xərɐ'ʂo. "좋아"라는 의미)는 ᄃᆞᆫ 신을 찬양하고 부르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ᄃᆞᆫ 문화의 대표적 단어이다.

그러면 유라시아 문화의 중심축이었던 카프카스 산맥 일대의 문화를 먼저 살펴본다. 이곳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카프카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엘브루스(Alborz, Elbrus) 산이다. 산의 이름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나오는 전설적인 산 Harā Barazaitī에서 유래되었다. 중세시대에 Harā Bərəzaitī, Harborz 로 되었다가 현대 페르시아어 Alborz로 불리고 있다. Harā Bṛzaitī에서 형용사 *bṛzant—"high"를 제외한 Harā는 *ser—"protect"이 어원이라고들 하지만, Harā와 ser-는 ᄃᆞᆫ에서 유래된 단어다. 즉 ‘ᄃᆞᆫ>ᄃᆞᆫ, 쿨, 술’이 원(原)어원이다.

엘브루스 산(ᄃᆞᆫ산)의 종교적 의미는 조로아스터교의 우주론에 잘 정리되어 있다. Harā Bərəzaitī,(High Harā)는 지리적으로 우주의 중심이어서 못 별들은 이 산의 주위를 돌고, 밤에는 태양이 산 뒤에 숨어서 쉬는 천주산(天柱山)이고, 다른 모든 산들이 이곳에서 뻗어나갔다. 마찬가지로 이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ᄃᆞᆫ 문화는,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ᄃᆞᆫ 문화 자료는 대체로 신석기 시대 이후의 것인데, 엘브루스 산(ᄃᆞᆫ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ᄃᆞᆫ 문화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아리엘 골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2005, 푸른역사, 정석배 옮김,p191)의 연구를 잠시 인용하기로 한다.

“수많은 자료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신석기 시대의 지신이 다음 시대의 신화에서 지하의 신과 하늘의 신이라는 두 신으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바이나크 인의 신화에 지옥신에서, 이미 지옥신의 하늘 신성에서 기원하는 인물이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할에르데 Hal'erdä가 그 신의 이름인데, Hal은 신(神)을 의미한다. 그의 이름은 오세치아의 알라르데 Alardä 여신과 비교된다. 이 여신에게는 신석기 시대의 큰 여신에게서 기원하였다는 많은 특성이 있다. 할에르데 신은 많은 숭배를 받았고, (벼신, 번개를 의미하는)‘하늘불의 신[天火神]’으로, 출산의 수호자로, 동시에 잔혹한 복수자로 간주되었다....인구세치아와 다게스탄 인은 기도를 할 때 helai라는 후렴을 붙였는데, 아마도 할(Hal 또는 Hel)신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로마의 저자들이 다게스탄에 Heli(또는

Gheli)라는 종족이 있음을 기록에 남긴 사실...이 같은 명칭을 지닌 종족은 현재 북 이란에 거주하고 있다...다게스탄에는 Gheli, huli, Heli 등의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

홀 문화는 카프카스 산맥의 홀 신이 머무르는 Hal'erdä('홀의 땅')/Alardä, 현재의 엘브루스 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하는 홀 문화는 카프카스 산맥 주변 북방 초원 일대의 여러 지역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아리엘 골란은 주로 산의 남쪽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였다.

그의 연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엘브루스 산을 중심으로 하는 카프카스, 이란, 그리고 러시아 남부 지방의 민간전승 신화에 등장하는 ‘ᄃᆞᆯ>홀’신이 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에 매부리코를 한, 어깨에는 갈대 바구니를 맨 마귀할머니 모습을 하고서 어린 아이의 태생과정과 출산 후 아주 어릴 때의 죽음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화에는 ‘살찌고, 추악하며 머리털이 무성하고, 늘어진 젓가슴을 한쪽 어깨에 메고, 또 다른 어깨에는 그녀의 희생제물이 된 사람들의 간과 심장을 넣어 둔 털 망태를 맨 쪼그랑 할머니’로 등장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유아 사망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은 이 신이 데려가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러한 사연 때문인지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이 신은 악마로 간주되었다. 이 신의 이름은 보통 올(Al) 또는 홀(Hal)로 표기되는데, 옴(Alk)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것은 신의 이름이 ‘ᄃᆞᆯ>홀>올,옴’로 변음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근동의 전승 이야기에 따르면, 신(God)은 아담의 첫째 배우자로 Al을 창조하였지만, 지상에 태어난 아담은 Al의 불같은 성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이 Al과 Eve와 그녀의 딸들 사이에 벌어진 증오의 기원이다. Al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에야 유럽 문학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민간 생활 문화 속에 남은 전통춤이나 노래에는 출산과 관련된 ‘홀’문화가 뚜렷하게 전승되어 있었다.

그 예를 들자면 ‘ᄃᆞᆯ>ᄃᆞᆯ,ᄃᆞᆯ,ᄃᆞᆯ’신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슬라브 어 Hora(,horo, oro)가 있다. 이는 ‘원형 군무("circle dance", "round dance")’를 나타내는 말(,루마니아와 몰도바, 우크라이나 Hora (Xopa, Khora), 불가리아 Horo, 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 Oro, 터키 Hora, 그리스 Choreia, 러시아 Khorovod, 보스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Kolo, 히브리 Hora)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집단 춤 Halay or Yalli or Dilan (Azerbaijani: Yallı; Armenian: Շուրջալար šurjpar; Syriac: ܚܘܠܗܗ Heggā', Greek: Χαλᾶτι Chalái; Kurdish: Govend or Dilan, Turkish: Halay, Sakha: Ohuokhai, Persian: هالای "Hālāy") 이 있다. 아르메니아 어 šurjpar은 한국어 ‘수월래’와 음이 가깝고, 아제르바이잔 어 "yal"은 쇠사슬의 가로줄, 세로줄을 의미하는데, Yalli는 그렇게 여럿이서 줄 지어 추는 춤이다. 이를 참고하면 <청산별곡>의 “알리 알리 알량성”의 후렴구는 여럿이서 줄지어 춤을 추면서 신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이다. 그리고 춤을 의미하는 그리스 어 χορός: "dance"의 원래 의미는 원("circle")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원형군무가 춤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choros 자체는 ‘ᄃᆞᆯ>ᄃᆞᆯ,ᄃᆞᆯ,ᄃᆞᆯ’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리고 생명의 신 ‘ᄃᆞᆯ>ᄃᆞᆯ>홀’신과 원형군무 Hora가 관련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말이 한국어 ‘홀레<석보24:26>’이다. 한국어 ‘홀레’는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성적으로 관계함”으로 풀이되고, 영어로는 tread, copulation 등으로 번역되는데, tread는 땅을 밟는 것이다. 이는 원형군무를 추면서 땅을 밟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생명탄생을 위한 성행위 동작의 춤(Hora)을 추면서 ‘헝르/홀르’신을 부르던 신성한 말이 ‘홀레’이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서로 껴안고 성적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장면과 관계있는 단어가 영어 hug인데, 이 단어와 관계있는 것은 이란 지역의 Zazaki 어 haq("god")과 Ossetic 어 xwycaw("god"), 그리고 Gothic 어 hugs("mind, soul, thought,")이다. 이를 통해 신을 생각하고, 신을 마음에 품고 껴안는 것이 ‘홀레/hug’의 본질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다산(多産)이 주된 목적이었다.

영어 Sex는 라틴 어 sex, 러시아어 seks, 페르시아 어 jnsy, 힌디 어 Sēksa, 한자어 性別, 그리스 어 fylo이고, 영어 sexual intercourse는 라틴 어 concubitus, 러시아어 polovoye snosheniye, 페르시아 어 mqr̄bt jnsy, 힌디 어 sambhōga, 한자어 性交, 그리스 어 ἡ sexualikī epafī이다. 어느 나라 말에도 출산을 위한 성행위를 한국어와 같이 단적으로 ‘헝르>헝르>홀’ 신의 이름 그대로 ‘홀레’로 표현한 것은 없다.

이를 통해 한라산[홀르산]을 중심으로 한 원(原)한국어 문화권,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홀 문화는 카프카스 산맥의 엘브루스 산(홀산) 중심의 홀 문화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의 헝르(Hera, Hora)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Hera(/ˈhɛrə/,Greek Ἥρα, Hēra, equivalently Ἥρῆ, Hērē, in Ionic and Homer)는 “올림포스 신화가 자리 잡기 전부터 모신(母神)으로 숭배 받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달리 헤라라는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 어 나 인도유럽어에 속하지 않는 고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스 섬과 아르고스에는 BC 8세기경에 지어진 헤라의 신전이 있다. 이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이다.” 《위키백과:헤라》

그리스 신화의 Hera에 대해서는 그 어원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Hera 자체가 극동 지역의 매우 오래된 ‘홀/홀레’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발칸반도에는 슬라브 족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슬라브(Slav)’라는 말은 ‘헝르브>홀브(Xrovat-,Hrvatska,Harpīi), 켈브(Krapina), 슬브(Serbia, Serbs, Slav)’에서 유래된 말이다. 헝르브는 헝르 신 또는 헝르 신을 믿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고, 나아가 지명으로도 사용되었다. 헝르브로 불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크로아티아이다. 이 나라의 이름 Croatia(i/krovˈeɪfə/)는 중세 라틴 어 Croātia에서 유래한 말인데, 크로아티아 어로는 Hrvatska([xř̩va : tska :])로 불린다. 이 말은 {원(原)아베스탄어 *havar:to shine, 원(原)슬라브 어 *Xarwāt-(*Xъrvatъ) 또는 *Xŭrvatŭ(*xъrvatъ) > 북서 슬라브 어 *Xrovat- > 크로아티아 어 Hrvatska([xř̩va : tska :])}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의 원(原)어원은 ‘헝르브’이다. ‘헝르브’의 음과 밀접한 지명은 Danube 삼각주 가까운 곳에 위

치한 Harpii이고, 이것이 확대된 것이 국명 Hrvatska이다.

그리고 산과 강 이름은 신의 이름에서 취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동유럽의 주요 산맥인 "Carpathian" 산맥의 이름에서도 **헝크**를 볼 수 있다. 이 산맥의 이름은 이곳 트라키아어로 Karpates oros("rocky mountain"), 알바니아어로 karpë (rock), 슬라브어로 skála (rock, cliff), 스칸디나비아의 <Hervarar saga>에는 Harvaða fjöllum 으로, 13-15세기 헝가리 기록에는 Thorchal, Tarczal 또는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Montes Nivium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고대 북유럽어 fell, fjall은 산("mountain")을 뜻하니, 오딘 신의 다른 이름 Herföðr, Herjaföðr(Herfodr, Herjafodr ;Father of Hosts 무리들의 아버지>주(主):임금)을 참고하면, Harvaða fjöllum은 ‘**헝크** 산’, ‘천주(天主)산’ 정도로 번역된다. 이것의 변음(**헝**> **홀**, **쿨**, **슬**)이 **쿨**(Karpates oros, karpë, Carpathian, Carpi)이다. "Carpathian"은 Dacian족의 한 갈래인 "Carpi" 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Carpi" 족은 ‘**헝**>**쿨**’ 문화인으로, **쿨** 신의 이름을 부족명으로 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Harvaða fjöllum과 Karpates oros을 참고하여 카르파티아의 이름 원형을 복구하면 ‘**헝크**’, 즉 ‘**헝크** [dá,tà] 땅, 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원(原)한국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의 신상인 ‘하르방’을 ‘오름’과 연결하면, ‘**헝크** 오름’이 된다. 트라키아어 Karpates oros에서 oros는 산(맥)이란 뜻인데, 이는 제주도 방언 ‘오름’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헝크** 오름’과 스칸디나비아어 ‘Harvaða fjöllum’은 빙하기의 거의 같은 시대의 말이고, 트라키아어 Karpates oros는 이보다 기온이 상승하였던 약간 후기의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헝크** 오름’과 동유럽 Carpathian 산맥의 스칸디나비아어 이름 ‘Harvaða fjöllum’을 볼 적에 후기구석기 시대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천주산을 ‘**헝크**’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후기구석기시대 유럽 제일의 산은 ‘**헝크**’, 즉 ‘**헝크** [dá,tà] 땅, 산’였고, 이것에서 파생된 것이 엘브루스 산, 발칸 반도의 "Carpathian" 산맥, 그리고 알프스(Alps) 산맥의 이름이다.

그리고 트라키아가 있었던 불가리아의 서북부 Kozarnika 동굴에서는 1,400,000 BC로 추정되는 고인류의 주거흔적이 발견되었고, Sliven 주의 Karanovo 마을은 Karanovo 문화 (Karanovo I-III ca. 62nd to 55th centuries BC)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람이 살아왔다.

그리고 Slivan은 광천수 온천이 가까운 곳에 있는 "Sinite Kamani" (The Blue Rocks) 바위 아래 자리 잡은 도시인데, 청정한 공기와 물, 온화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상징 중의 하나가 마법의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호(弧) 모양의 바위 덩어리 Halkata이다. Halkata(=Hal+ka+ta)는 ‘**홀**’로 표기할 수 있는데, ‘Halkata는 *h3reg-의 땅’이라는 뜻이니, 이곳은 ‘**홀**=**홀**+**카**:인칭접미사’문화의 중심지 중의 한 곳이었다.

원(原)인도유럽어 어원 *h3reg- ("to straighten, to order, to rule")의 파생어가 ‘**홀**+**가**(hr+ga)’이다. Halka는 이 지역의 신의 이름이면서, 신의 대리자인 신인의 칭호이기도 하였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고대 켈트 족과 앵글로색슨 족이 행하였던 할로윈

(Halloween) 제를 통해 알 수 있다. Halloween은 Hallow(s) E(v)en이고, E(v)en은 용사(勇士)를 뜻하는 말이니, ‘거룩한 용사님 se hālgā(, "the holy man")’을 기리는 희생제가 할로윈이다.

그는 고트어로 hailags or weihaba, weihs로 표현되었는데, weihs는 신에게 받치는 희생제물(victima)을 뜻한다. 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앙아메리카 아스텍인의 인신희생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의 심장을 꺼내어 신에게 받치는 장면이다. 자신의 심장을 받치는 자, 또는 그 의식을 주관하는 자가 홀궤(hālgā)이다.

Halkata가 있는 불가리아 옆에 그리스가 있다. 그리스 인들은 자신들을 Hellen의 자손 "Hellenes" (/ˈhɛliːnz/)으로 자칭하는데, Hellen은 헬라의 존어 ‘ἥρην>ἥρην, ἡρην, ἡρην, ἡρην’ 발음 중의 하나인 ἥρην(Hellen)이다. 그런데 실제로 신화가 아닌 현실 속의 현대 그리스 인들은 Hellen의 정확한 어원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 신화 속의 Hellen은 대홍수 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살았던 Phthia 지역을 통치하였던 Pyrrha and Deucalion의 자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ἥρην>ἡρην’과 관계있는 것이 Greek (Latin Graeci)라는 말인데, 이것은 Boeotia 해안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Graikos, "inhabitant of Graia/Graea,"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론도 있다. 헬라의 파생어 스투와 관련된 것이 Selloi이다. Selloi는 Dodonian Zeus의 사제들이었고, 단어의 뜻은 아마 제의(祭儀)에 희생을 받치는 자들("sacrificers" (compare Gothic saljan, "present, sacrifice"))이 아니겠냐고 추측한다. 그리고 Aristotle는 이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Dodona 강과 Achelous 강 사이의 Epirus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던 고대 Hellas 인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Selloi가 Sellanes가 되었고, 마침내 Hellanes-Hellenes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리스 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ἥρην>ἥρην, ἡρην, ἡρην, ἡρην’ 음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그들은 ‘ἥρην’문화족의 후손 ‘ἥρην’문화족이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Hellenes, Sellanes, Graikos로 불리었을 뿐이다.

그러면 Halkata 문화보다는 매우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 신화의 Hera와, 이와 비슷한 음의 Horae (/ˈhɔːriː/ or /ˈhɔːraɪ/) or Hours (Greek: Ὥραι, Hōrai, pronounced [hɔːraj], "seasons")신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들은 헬라 문화의 일부인데, Horae는 씨 뿌리고 거두기에 적절한 계절과 정확한 시간의 배당을 맡은 여신이다. 그래서 Karl Kerényi는 “Hora는 정확한 때(moment)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라틴어 Hora가 "hour, or time"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래 각각 다른 계절을 의인화한 것인데, 나중에는 일반적인 질서와 자연적 정의의 여신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의 Horae는 이집트의 hr.w[Hāru], 일본어 Haru(春), 한국어 하루(日)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천체의 운행과 시기,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발칸 반도와 라틴 제국 지역을 지나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 지역으로 가면 Helvetii로 불리는 Gallic 부족 또는 부족 연합이 BC 1세기 로마 공화정 시기에 스위스 고원 거의 대

부분을 접거하고 있었다. Helvetii는 ‘홀브+드’에서 유래한 말이고, 홀 문화인들이 오스트리아 지역에 남긴 것이 Hallstätter See(할슈타트 호)의 이름이고, 중앙유럽의 할슈타트 문화(, BC 12 세기 이후, 8-6 세기 BC)는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Halkata가 있는 불가리아의 Slivan은 구석기 시대의 ‘헝크’문화 중심지였고, 이곳의 사람들은 ‘헝크브드’: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Vistula 강을 타고 북유럽으로 갔었다. 북유럽 Holland의 이름은 도르트레히트의 주변지역이던 Holtland("숲이 우거진 땅")에서 유래했다는데, 홀드란트(Holtland) 근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만(Gulf)에는 Hara 만(Bay)이 있고, 에스토니아에는 Hara 섬, Hara,(마을, Harju County), Hara(마을, Lääne County) 등의 지명이 있다.

북유럽 Odin 신의 별명으로 Hárr(,Har;의미 High)과 Harri Hliðskjálfar(,Lord of Hliðskjálf)이 있다. 핀란드의 가장 높은 곳의 지명 Halti (Finnish: Haltitunturi, Northern Sami: Háldi, Swedish: Haldefjäll)(1,324 m)와 수도 Helsinki(,사미 어 Helsset), 네덜란드의 Holtland(,Helinium), 북 홀란드(Holland) 주의 주도 Haarlem(['ha : r.lɛm])은, 이곳에 헝크 문화가 널리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북유럽에서 쉽게 접하는 홀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Hel로 불리는 죽음의 여신("go to Hel" is to die)이다. Hel은 13세기 이전의 서사시 모음집인 《고(古) 에다, Poetic Edda》 및 13세기에 아이슬란드의 스노리 스투루손이 쓴 《신(新) 에다, Prose Edda》에 등장하는데, 사자의 세계에서 망자들을 통치한다. 원래 Hel은 천둥번개의 신으로 인간에게 비를 내려주는 은혜의 신이고, 번개를 뿌리는 최강존자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북유럽 신화 스웨덴의 무적용사 Hjalmar, 노르웨이의 Odin 신의 아들로 나오는 용사 Hermóðr(Old Norse "war-spirit", ,영어표기 Hermod)와 Angantyr의 딸 Hervor, 그녀의 아들 Heidrek의 딸 Hervor(, 이들은 마술검 Tyrting 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다가 은퇴한다)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

대단한 마법의 검 Tyrting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패해본 적이 없는 Hjalmar는 스웨덴의 신화적인 왕 Yngvi의 왕궁을 지키는 왕족 친위대원의 일원이었다. 그의 이름 Hjalmar(, 고대북유럽어 Hjalmar)는 스칸디나비아 남성 이름으로 사용되고, 게르만 기원의 남성 이름과 성씨 Helmer, 포르투갈 인의 이름 Djalma로 사용된다.

아프리카

우주의 주재자를 뜻하는 말로써의 헝크는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Horus, 신성문자 ḥr.w[Ḥāru] 뜻은 "falcon")에서도 볼 수 있다. ḥr.w[Ḥāru]는 콕트 교 시대에 Hōr로 표기되었고, 이것이 그리스어 Ἥρος Hōros로 된 것이다. 이는 ‘멀리 있는 자’("the distant one") 또는 ‘위에 계시는 분’("one who is above, over")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ḥr.w[Ḥāru]는 매로 상징되어지는 하느님의 명칭이면서 왕의 칭호였다. Har-si-ese(, 문자적 직역 "Horus, son of Isis")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154,000-160,000년 전의 인류 유골 H. s. idaltu가 발견된 에티오피아의 Herto Bouri가 있다. Herto(=Her+ to:홀+ 트:존칭접미사)의 홀(Her)은 엘브루스 산(,

홀산) 지역에서 중동 지역을 거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시리아에는 기독교 성경에 Hara로 기록된 지명이 있고, 중앙 에티오피아에 Hara 마을이 있다.

중동

‘홀’은 유대인의 종교와 생활윤리서인 할라카(Hebrew: הלכה ; Halocho 또는 Halacha)에서도 볼 수 있다. Halakha는 히브리어 halakh (הלך "to walk" or "to go")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어 hr(하늘)과 셈어(Semitic) 아까(akka : "to be true, be suitable")를 통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Hal+ akka=Halakha이다. 그래서 Halakha는 ‘홀(hr.w /Hal)이 제시해준 진리’를 뜻하고, ‘사람이 걸어가야 법도(法道) (the way to go)’를 의미한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Hal이 머무르는 천주(天柱) 산에서 ‘할라카’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Hejaz 지역의 Jabal al-Nour 산록, 메카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Hira (Arabic: حراء Ĥirā') or the Cave of Hira (غار حراء Ġār Ĥirā')로 불리는 동굴이 있다. 이곳은 무하마드가 천사 Jebriel (,기독교의 Gabriel)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느님(God)을 영접한 곳이다.

이슬람교의 hūr 또는 hūrīyah (Arabic: حورية)는 죽고 난 다음 내생에 천국으로 같이 들어갈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가장 정숙한, 멋진 동갑의 동반자나 동료 또는 그러한 신령(神靈)을 의미한다. 이 말은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해탈한 사람을 일컫는 스와힐리어 huri("freedman")와 연관 있고, 터키어 huri, 스와힐리어 hurulaini, 영어 houri(천국의 미녀)와 함께 홀 문화 시절부터 내려온 말이다.

중동의 아랍어 ḥarām (Arabic: حرام ḥarām) or Haraam)은 알라 신이 금지한 어떤 행위를 하는 죄지움(sinful)이다. Ḥalāl (Arabic: حلال ḥalāl, 'permissible') or hallal는 이슬람 율법의 허락에 따라 사용하거나 행하는 것이다. Hallelujah (/ˌhæliˈluːjə/hal-ə-loo-yə)는 히브리어 동사 hallal(, "praise")과 Yah or Jah의 합성어로 보기도 한다. 이들 단어에는 ‘홀/ḥr’이 공통으로 들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홀/ḥr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흔적이다.

이란-인도

엘브루스(, ‘ḥr>홀>을)산 신모(神母)의 자식들 중 산의 동쪽 카스피 해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아온 사람들이 아리안이고, 이들의 후예가 이란-인도 아리안이다. 그래서 이란인은 그들의 조상이 Hara 산에서 내려왔다고 믿고 있다. 인도-아리안은 그들의 주신 비슈누 신을 Hari, 시바 신을 Hara로도 부른다. 이란인의 Hara와 힌두교의 Hara/Hari 신은 그들이 둘로 나누어지기 전, 아리안 공통 조상 시절에 믿었던 신 또는 천주의 이름이다.

고대 인도의 서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Hara-Hunas 족의 일지파가 세운 나라 Hara-Hunas (Red/Dark-Huns, Persian: Karmīr Xyōn, Greek: Κερμιχιώνα)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은 히말라야 가까운 곳에 사는 투르크계 부족이었고, 한때 카시미르-잠무 지역과 중국의 신장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언급되어 있다.

펀자브의 Patiala 지역, 인도 Haryana 주의 Jind and Kurukshetra 지역, 파키스탄의 Multan 일대에는 Hari Jat 씨족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들 Hari 씨족은 처음에는 지배자로 잘 살았겠지만, 나중에 땅도 없는 가난한 농부가 되었으니, 특히 파키스탄 Sindh 지역에 사는 이런 이들을 Hari 또는 Haari로 부른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유물이 출토된 "Harappa ([həɾəppa :])"와 인도 북부 Haryana 주의 이름 "Haryana"는 'Hari (the Hindu god Vishnu) and ayana (home)', 또는 'Hari (Sanskrit Harit, "green") and Aranya (forest)'에서 유래된 말로 보는데, 이란 남부에 있는 Hara forests를 볼 적에, 녹음이 우거진 숲이 있는 곳을 칭하는 말로 보는 것이 나올 듯하고, 이 녹림(綠林)을 주관하는 신이 Hārīti(訶利底(하리저))인데, 이는 북유럽의 Holtland, Hel과 통한다.

【범】 Hārīti 하리제(訶利帝)·하리저(訶利底)·가리제(柯利帝)·하물저(訶栗底)·하리저(訶哩底)라고도 음역. 청색(靑色)이라 번역. 대약차여신(大藥叉女神)의 이름. 귀자모신(鬼子母神)을 말함. 밀교에서는 이 신을 태장계 외금강부의 1존(尊)으로 모신다. ⇒하리제모(訶利帝母) 《불교용어사전》(동국역경원)

그리고 산스크리트 어 Hari(हरि)는 원래 "노르스름한 색조, 노란색, 황금색, 노르스름한 갈색, 붉은 갈색, 연한 황갈색, 황갈색, 옅은 노란색, 녹색이 도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고, 신을 상징하는 색이다. 곰을 뜻하는 "bear"라는 말은 곰의 털색을 뜻하는 "brown"과 관련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곰의 원(原)인도유럽어 *h₂ r̥tkos는 황금 곰의 털색을 칭하는 산스크리트 어 Hari(हरि)와 관련 있다. 이는 홀 문화 시절의 상징 동물이 황금곰 Hari(*h₂ r̥tkos)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의 말기 현상어로 한국어 '후려치다, 흘랑 벗기다'가 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 어근 hr̥ ("to grab, seize, steal")과 의미가 같다.

동남·극동아시아

High Harā(엘브루스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남으로 이동하면 이란 남부의 Hara forests, 아프가니스탄 남서 지역의 고대도시 Herat, 아프가니스탄의 Hari 강 or Harirud (Persian هری رود Hari Rūd, i.e. "Herat River"), 인도 북부의 "Haryana", Hārīti(訶利底(하리저)), 타이 북서부 메남핑(펑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7세기 중엽 고대 문족의 왕국 Haripunjay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Sumatra) 섬에서 가장 긴 하리 강으로 연결된다.

인도네시아의 의무(醫巫) hala는 이곳에 ㅎㄹ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지나 후기구석기 시대의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 중국 동남해안 지역에서 하이난(海南) 섬 일대에 "Hlai" 족이 퍼져 살았는데, 지금은 주로 하이난 섬에 살고 있다. Qi, Ha, Run, Sai and Meifu의 다섯 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중국 정부의 기록에는 Li (黎; pinyin: Li)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은 Hlai 인으로 자처하며, 때때로 "Sai" or "Say"로도 알려 있다.

"Hlai"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어 '홀레'에서 찾을 수 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신성한 족이라는 뜻이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쪽을 쳐다보았을 때 보이

는 천주산이 바로 제주도의 ‘홀르 산’이니, 인도네시아의 의무 hala와 Hlai 족과 홀르 산은 서로 관계있다.

Hlai 족이 살았던 지역을 지나 후기구석기 시대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일본 열도에 도착하게 된다. 일본의 전통적인 신사에서는 천조 대신 Amaterasu가 있는 천궁에서 풍신에 해당하는 Susano-o가 추방당하는 죄를 정화하는 의식이 재연되는데, 그것에서 비롯된 Harae or harai (祓 or 祓い)(はらえ/祓)는 신도(神道)의 4대 제의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겨울을 지내고 봄에 비가 오면서 하늘의 대기를 씻어 정화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맞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음력 3월 3일에 지내는 불계제(祓禊祭)의 민속 제의(民俗祭儀)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어 Harae의 뜻: 액·더러움·죄업 등을 떨쳐내기 위해 신에게 제사지내는 행사. 그때 신에게 기원하며 읊는 말. 또한 그 액막이의 예/죄를 속죄하기 위해 내는 물건./신전에 바치는 공물. 폐백(幣帛;へいはく)(<daum 사전:일본어 はらえ [祓]>). 불(祓[fú]); 푸닥거리하다, 부정(不淨)을 없애다

일본의 신사에서 이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부정털이 채를 ōnusa or haraigashi Ōnusa (大幣?) or simply nusa (幣?) haraegushi (祓串?)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 가정 청소용 먼지털이개 hataki (叩き?)와 구별한다. haraegushi (祓串?)는 흰 종이를 매듭지어 만드는데, 이것의 원형은 바로 꽃이 피어있는 치가야ちがや 다발일 것이다. 일본어 ‘치가야’는 한국어 ‘띠’로 번역되는데, ‘ち,치>띠’이고, 가야(がや)는 ‘가비>가야’로 "생명, 신(神)"이란 뜻이다.

그리고 극동 아시아의 중심축이고 천주(天柱)였던 제주도의 ‘홀르 산 하르방’과 ‘홀레’ 지역을 지나 북상하면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던 홀본(忽本)이 있고, 만주 흑룡강성 성도 Harbin(哈爾濱)이 있는데, 이곳의 고고학적 유물로는 BC 2200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만주어 Harbin은 "물고기 잡는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니, 이는 항구를 뜻하는 말 harbor(, or harbour, or haven)와 통한다. harbor(, or harbour, or haven)를 보면 이들은 배를 타고 이동한 듯하다.

흑룡강성의 지명 Harbin은 미국 네브라스카 주, 조지아 주, 테네시 주, 텍사스 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지명은 Harbine 성씨와 관련이 있는 곳도 있지만, 만주의 Harbin을 지나 아메리카로 이주한 홀브슨 문화인이 정착했던 곳도 있을 것이다.

"haul"은 웨일즈 어로 태양을 의미하면서도, 영어로는 "잡아끌다, 차로 운반하다"는 뜻이 있다. 이는 하르방/홀브 들의 신앙의 중심이 ‘호르>홀’("Haul":태양)이었다는 것이고, 물을 따라 해안을 따라 이동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 어 harma (,이룬전차 "chariot"/현대그리스 어 árma)라는 단어를 보면, 북유럽으로 홀브 문화가 전파된 것은 수레바퀴 달린 전차 문화의 보급과 관계있다.

그리고 농경문화가 발달한 이후의 문화를 보여주는 Harvest(추수, 수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들 집단은 농사지어면서 싸웠던 홀브였다. 이들 농병(農兵) 전사 집단을 홀브 Harb(,hrb)로 불렀고, 때로는 홀브로도 불렀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Odin 신의 아들로 나오는 용사 Hermóðr(Old Norse "war-spirit", 영어표기 Hermod)와 Angantyr의 딸 Hervor, 그녀의 아들 Heidrek의 딸 Hervor(, 이들은 마술검 Tyrfing 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다가 은퇴한다)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성씨로 사용하는 이들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이 John Harbin(, 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 코치)이다. 그는 영국 요크셔 Hazlewood Castle에서 태어났다. 이는 Harbin 집단이 영국으로도 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유럽 끝까지 간 이들이 Hervor 집단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사로서 싸웠고, 이와 관계있는 것이 이슬람 이전 중동 문화를 이어온 아라비아 반도의 수니파 대부족의 족명 **Harb** (Arabic: حرب)("War")이다. 부족이름 ḥrb("War")는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홀브’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그러한 전사 집단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ḥrb("War") 부족으로 남아 있고, 북유럽에서는 **Hervor**로 남아 있다.

그리고 농업신과 군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던 “헤라라는 이름의 어원이 그리스 어 나 인도유럽어에 속하지 않는 고대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제주도 홀르 산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High Harā(엘브루스 산) 지역으로 ḥrb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카프카스 산맥의 홀(, 𐌿) 신이 머무르는 Hal'erdä('홀의 땅')/Alardä는 제주도 ‘할라산 오름’을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의 문화가, 서쪽으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 사건은 아마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Toba 화산의 폭발이 아닌가 한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서쪽 지역은 저온기후와 화산재로 살기 힘든 지역이었고, 제주도의 홀르 산 주변 지역 극동아시아 지역은 그런대로 살 수 있는 지역이었기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것이 아마도 후기구석기시대 최초의 원(原)홀르 문화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략 25,000년 사르탄 빙기가 시작될 때 제주도 홀르 산에 화산폭발이 있었고, 백록담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랭한 기후가 전개되고 ‘ḥrb’문화가 발달하면서 한라산(漢拏山[hàn][ná,rú][shān]) 중심의 ḥrb(ḥ)/ḥrb(ḥ)/ḥrb/ḥrb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문화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해안을 따라 퍼져나갔고, 나중에 카프카스 산맥의 엘브루스 산을 중심으로 한층 더 발달하면서 북유럽 끝까지 전파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원(原)한국어문화권에서 서방 지역으로 해안을 따라 전파된 ḥrb(ḥ)/ḥrb 문화와 관련된 것은 ‘ᄃᆫ’농경문화 항목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후기구석기 시절 한반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제주도 홀르 산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봄비를 내리도록 번개를 일으키는 천신들의 ‘홀레’의식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때 사람들은 홀랭이(, 올가미) 모양으로 둘러서서 선정적인 군무를 추었고, 그것이 유럽에는 Hora라는 원형군무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다듬어 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 신사의 Harae or harai 의식이다.

홀르 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곳의 ḥrb 문화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길을 따라 북으로 가서는 한국어 ‘하루(日, 晝)’, ‘홀레’, ‘(비가 내릴 수 있는) 흐린 날’, ‘호랑이’를 남겼고, 아무르 강변에 토기 문화를 일어나게 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일본의 Hara(原, 들·벌판), 대만의 Hlai 족, 필리핀의 horo-han, 인도네시아 의무 hal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역의 Minangkabau 족의 귀족층 penghulu, 인도네시아 어 harimau(호랑이), 인도네시아 어 · 말레이어 matahari(태양)를 남겼고, 인도 Jharkhand (lit. "Bushland") 주

Munda 족 사회의 남자 성씨 horo를 거쳐 중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Jimma Horo 마을)·유럽으로 갔었는데, 카스피 해와 흑해 주변의 **호르 산**(, 엘브루스 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더욱 발전하였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는 이 길을 따라 카프카스 산맥 **호르 산**(, 엘브루스 산)의 **호르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현재 자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통의 것이다.

2) 호르산, 호르산

호르의 준어 호르산, 호르산은 { 호르, 호르, 호르, 호르, 호르, 호르 }으로 발음될 수 있다.

호르/호르산을 상징하는 동물은 hr.w :*Hāru, "Horus", meaning "falcon""the distant one" or "one who is above, over"), Heron(왜가리), Hirundo(제비:Barn Swallow, 燕, 学名 : Hirundo rustica; Hirundo is the Latin word for "swallow"; rusticus means "of the country."), 할미새, Hari(산스크리트 어 서사시에 나오는 신비한 "원숭이들의 어머니"), 호랑이, horse, h₂ r̥tkos(熊) 등이 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어 **aha rw**(, 戰獅"warrior lion")와 이에서 유래된 아랍 어 남성 이름 Harun (, Haroon or Haroun, Arabic: هارون, Hārūn), Harun의 히브리 이름 Aaron 이 있다. 신라의 화랑은 Harun과 관계있을 듯하다.

aha rw는 ‘호르’ (위대한 리언 신 aha rw)로 읽을 수 있지만, 이에서 유래된 인명 Harun과 호랑이, horse, h₂ r̥tkos(熊) 등을 보면 ‘호+호르’(aha harw)로 읽을 수도 있다. 호르로 불리는 또 다른 신성한 동물로 ‘호리’가 있다. 카프카스 산맥 호르 산자락의 그루지야에서는 제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돼지를 ‘호리’로 부른다. 이들 제사상의 호리 머리는 한국 무속 굿 의식의 제사상에 오르는 돼지머리와 같은 것이니, 호르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 호리(돼지)였던 적이 있었다.

호리를 한자어로는 ‘저(猪)·시(豕)·돈(豚)·체(豕)·해(亥)’ 등으로 나타내고, 영어로는 ‘pig, boar, swine’ 등으로 나타낸다. pig의 원어원은 PIE *perk- "dig, furrow" 로 보는데, 이는 한국어 ‘(땅을) 파다’와 통한다. 이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을 헤집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이고, swine은 {원(原)어원 PIE root *su- (동종어: 산스크리트 어 sukarah "wild boar, swine;"}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호가 본래 원어원이다. 호를 한자어로 나타낸 것이 해(亥[hài])이다. 시(豕[shǐ])는 호의 다른 음표기이고, 보통 돼지를 통칭하는 말 "soo-ie,"는 豕[shǐ]를 나타낸 것이다.

돼지를 나타내는 말:

히브리 어 hzyr, 힌디어 sooar, 코사 어 ihagu, 핀란드 어 sika, 그리스 어 gouroúni, 독일어 Schwein, 스페인 어 cerdo, 러시아 어 svin'ya, 몽골어 gakhain, 순다 어/인도네시아 어 babi, 일본어 Buta(豚), 스와힐리어 nguruwe, 스웨덴 어 gris, 아르메니아 어 khodz, 아제르바이잔 어 donuz, 터키어 donuz, 헝가리 어 disznó, 아일랜드 어 Muc, 요루바 어 ẹlẹḍẹ, 우즈벱 어 cho'chqa, 이그보 어 Ezi, 카자흐 어 ҫоҫқа, 쿠르드 어 beraz, 태국어 Hmū,

It is entirely likely that the word to call pigs, "soo-ie," is similarly derived. "soo-ie,"는 한국어 ‘쇠고기’의 ‘쇠’와 가깝고, 한국어 ‘돼지’, 한자어 ‘돈(豚)’은 아제르바이잔 어 donuz과 가깝다.

언어표14. (돼지)

그리스 어 Hieros (ἱερός)는 '신성(화)한 "sacred, sanctified"'의 뜻이고, Hiero 또는 Hieron은 고대 그리스에 있는 '거룩한 사원(경내), 사당'을 뜻하는 말이다. hero(영웅)의 어원은 PIE root *ser- (1) "to watch over, protect"으로 보는데, 이는 ㅎㄹ 신을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하였고, **Harb** (Arabic: حرب)("War")에서 승리를 거둔 ㅎㄹ 신과 같은 이 ("hero, demi-god, illustrious man,")를 뜻한다. 그를 모신 곳이 Hiero 또는 Hieron이다. Heraion(/hə'reɪ,ɒn/ or Heraeum /hə'ri : əm/)은 Hera 여신에게 헌정(獻呈)된 사원이다.

아랍 어 Harem ([ha'rem])은 원래 문자적 직역으로 봉금(封禁)("something forbidden or kept safe")을 뜻하는 말인데, 여성전용구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ḥarama("to be forbidden; to exclude")와 같이 H-R-M 이 들어가는 아랍 어는 금지된 것을 뜻한다. 이 문화는 무하마드의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훗 문화의 유산이다.

3) ㅎㄹ > ㄹ

카스피 해 주변 ~ 이란-인도

"ㅎㄹ"신으로서의 곱을 불렀던 말이 *h₂ ʔtkos인데, 이 말은 어두음 'h'가 묵음된 'ㄹ/울/웁'의 음으로 사용되어 아베스탄 어 arša, 그리스 어 arktos, 웨일시 어(Welsh) arth (whence perhaps "Arthur"), 라틴 어 ursus, 산스크리트 어 ṛkṣa로 변형되었는데, 이들 단어는 "울"에 존칭접미사 '쿠, 투, 스'등이 연결된 것이다.

천신 "울"의 파생어인 산스크리트 어 ārya ("noble")는 '고귀한 행위를 하는 자, 존귀한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Laroche가 1957년에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이란-인도 어 ārya는 원(原)인도유럽 어 *ar-ya-, ar-yo-에서 유래하였고, 어근 *ar("to assemble skillfully")은 '능숙하게 엮다'는 뜻이다. 그래서 ārya(,Aryan)은 '능숙하게 엮어매는 자/얼개'라는 뜻이고, 한자어로는 조물주(造物主)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있는 원(原)인도유럽어 arta는 '적절하게 결합된'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종교적 관념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ārya와 arta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은 나라가 이란(Iran)이다. Iran은 '아리안(Aryānā)의 땅'이란 뜻이고, 3세기 사산 왕조 시절의 비문에는 Ērān으로, 파르티안의 비문에는 "aryān"으로 표기된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훗>울'은 우주의 에너지인 빛을 능숙하게 조합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는 우주의 주재자인 천신(天神) 하느님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의 화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 떠 있는 'ㅎ>ㅎㄹ>훗>울>웁'이고, 이를 나타낸 것이 아르메니아 어 areg("sun deity", "sun")이다. 고대에 왕은 신이었고, 태양이었기에 아르메니아에 있었던 Urartu왕국의 6대왕 Argishti I(786-764 BC)의 이름은 '웁:태양'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taxiad 왕조(BC 190)의 이름에 보이는 Arta는 Gandhara의 지배자 Maues 또는 MogaArta의 손위 형 Arta (Kamuia) (or Artas in Kharoshthi)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울'에서 유래된 것이다. 신라 김알지(金闕智)의 울지, 고구려의 을지(乙支) 또

한 이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들 단어에 공통으로 보이는 ‘을(ar)/웁(arg-)’은 신으로서의 태양을 부르는 말이고, 이 말은 인도 북부와 동북부 지방에 전하는 Arka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숭배되는 Surya("the Supreme Light")의 가장 중요한 별칭의 하나이다. 인도 남부 드라비다어의 하나인 Badaga (Tamil-Kannada어의 지파)어의 "Ari" ("A:ri")는 "태양과 같은"의 문학적 의미가 있다.

중동

"을" 문화는 아리안의 이동을 따라 엘브루스 산에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중동 지역에 남겨진 al-("The")로 남아 일상어가 되어 있다. al-은 Hebrew어 정관사 **הַ** ha-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hal;** / **ha;** / **ʾa;**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ha;** / **ʾa;**는 **ḥ**에서, **hal;**은 **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al-은 **ḥ** > **ḥ** > **을**로 된 것이다. Allāh는 al- "the"와 ilāh "deity, god"가 합쳐진 단어로 al-lāh는 유일신("the [sole] deity, God" (ὁ Θεὸς μόνος, ho theos monos)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유럽

한랭기온 때 이루어진 **ḥ** (*h₂ er- ("to fit") 문화는 후기구석기 시대의 온난화 시절에 ‘**ḥ**>**을**’의 음변화가 있었고, 대홍수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것이 더 심해졌다. 그리고 BC 4000 이후 청동기 문명이 전개되면서 온난기의 **ḥ**(*prh₃ - ("first") 문화가 새로이 성장하였다. 4500-4000 BC경 이른 원(原)인도유럽어 시절부터 **ḥ** 문화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BC 2000에서 BC 1000 이후로 가면서 ‘**ḥ**>**을**’로 바뀌어 갔다. 대체로 ‘**ḥ**’ 음으로 된 것과 ‘**ḥ**>**을**’ 음으로 된 것이 혼재하고 있는데, 청동기(Bronze, Brass) **ḥ** 문화가 먼저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철기(Iron) **을** 문화로 발전하였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을**/ḥ > **을**’음의 문화에는 후기구석기 시대의 ‘**ḥ**>**을**’문화와 청동기 시대의 ‘**ḥ**>**을**’문화의 시기가 다른 두 문화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을**’ 음의 문화는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어에 남겨진 **을** 문화의 흔적을 살펴본다.

고대 아일랜드어 **aire**("act of guarding, watching over, tending, caring for; notice, heed, attention"), **aire** ("freeman")는 한국어로 **얼**이 있는 자유인이다. 그를 한국어로 **어른**(**어** > **aire**의 **존어** **어** > **어른**)이라 한다. 어른을 산스크리트어로 aryá-, árya-("espectable or honourable person"), 텔루구어로 āryuḍu, 이란 아베스탄어로 airiia-, airya-, 고대 페르시아어로 ariya-, 중세 페르시아어로 **ēr**("noble, hero"), 고대 아르메니아어로 **արի** (ari), 스키타이 사르마티아어로 ***al(I)an-**, 라틴어로 **Alanus**, 오세아티아어로 **állon** 이라 한다.

얼이 있는 어른은 모든 것을 알아서 올바르게 한다. 그런 어른은 집단의 구성원과 조화(harmony)를 이룬다. *Ancient Greek: ἀραρίσκω (ararískō), ἀρμόζω (harmózō), ἀρμός*

(*harmós*), *ἀρτύω* (*artūō*), *ἀρμονία* (*harmonía*) Latin: *arma, ars, artus, ritus* 어른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한다. Lycian: (*ara-*, "rite")Hittite:(*āra*, "right, proper"). 그리고 어른은 전쟁이 일어나면 투구/헬멧(Helmet)을 착용하고(*h₂ er- ("to fit, put together"), 활과 칼을 들고 이륜전차("chariot"그리스 어 *harma*/현대그리스 어 *árma*)를 타고 열심히 싸운다. 그런 어른을 "알마"로 부르고, 종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전투 장비를 갖추고 전쟁에 참여하는 알마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다.

"알마" 고대 아르메니아 어 *աննեմ* (*arnem*), *յարեմ* (*yarem*), *յարմար* (**yarmar**), *արդ* (*ard*), (?) *անարի* (*anari*), (?) *արմանամ* (*armanam*),

"아름" Sanskrit: अरम् (**áram**), ऋत (*ṛtá*), ऋतु (*ṛtú*)/Iranian:Avestan:(**arəm**, "fitting")

arma{*h₂ er- ("to join")}>*h₂ (e)rmos ("fitting")> *arma* ("weapons of war, war, defence, tools")에서

army(군대), *arms*(무기), *arm*(팔)가 파생되었으니, ‘ἄρμα>ἄρμη(*harma*,Helmet)>ἄρμη(*arma*)>알마’의 과정을 거친 ‘ἄρμη>ἄρμη(알마)’의 본래 의미는 이륜전차 *harma*를 타고 한 손으로 말을 몰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지휘자이고, 그 활활(活闊)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니, 헬멧을 착용하고 싸우는 지휘자가 아름답고 훌륭한 ἄρμη/ἄρμη(북유럽의 **Hjalmar/Hermóðr/Hervor**)이다.

그리고 경상도 방언 ‘알마’는 ‘알개’(① 말이나 행동이 조금 괴상하고 알뜰게 되바라진 사람) 비슷한 개념의 인칭명사인데, 이는 ἄρμη(,알마) 문화의 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ἄρμη/을 문화는 북아메리카 오대호(Superior, Michigan, Huron (or Michigan-Huron), Erie, and Ontario) 연안 일대의 원주민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Chippewa(Ojibwa, Oju-Cree,Salteaux) 족, Odawa 족, **Algonuin** 족이다. Ojibwe 족, Odawa 족, Algonquins 족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들은 통칭하여 Anicinàpe(, Anishinaabe)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 "Algonquin"은 Maliseet 어 *elakómkwik* (IPA: [ɛlæ'gomogwik]):그들은 우리 편이다 "they are our relatives/allies")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그들 자신은 Omàmiwinini(복수: Omàmiwininiwak)로 부른다.

Algonquin과 인접하여 살고 있는 **Iroquois** 족이 있다. 이들은 서로 적으로 살아왔는데, **Iroquois** 족은 그들 자신을 Haudenosaune (, People of the Longhouse)로 부른다. 이는 자신들의 집 모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Huron 족은 이들을 *irinakhoiw*("검은 독사" 또는 "진정한 살무사")로 폄하하여 부른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들과 무역 거래를 하였던 Basque 인들이 불렀던 *hilokoa*("killer people")에서 유래하였다고는 것이 있는데, ἄρμη/hilokoa{=ἄρμη(hilo)+ ἄρμη(koa)}, 이들은 ἄρμη 문화족이다. Basque 인들이 불렀던 *hilokoa*는 *Hallow(s) E(v)en, se hālga*를 뜻하니, Huron 족은 ἄρμη 신을 위하여 인신희생제를 지냈던 것이다.

이들 외에 오대호 연안에는 Huron 족이 있고, Wyandot 족과 wendat 족 역시 Huron으로 불린다. Huron 호는 이들의 이름을 딴 것이고, Huron은 프랑스 어 huron("ruffian","rustic""촌스럽고 잔인한 악당"), 또는 hure("수태지 대가리")에서 유래되었다는데, 이는 프랑스인이 이들 전사들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부른 이름이라고 한다. Basque 인들이 Iroquois을 hilokoa로 불렀던 것을 고려하면, Huron은 식인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홀’족이라는 뜻과 Huron과 비슷한 음의 라틴 어 Heron(,왜가리)과 Hero(영웅)의 존어 허르스(Heron)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올 듯하다.

그리고 ‘hilokoa>Iroquois / 허르카>으르카’를 볼 적에 Algonquin과 Iroquois은 ‘홀카, 홀근>울카, 올근’의 음역어일 수도 있는데, 이는 Erie(,also Eriehronon, Eriechronon, Riquéronon, Erielhonan, Eriez, Nation du Chat)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Erie(/Iri/, Érié) 호수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Iroquoian 부족은 이 호수를 "Erige 으르+카" ("cat")으로 부른다. 이는 신 또는 신의 대리자인 지도자의 칭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으르+카’는 aurochs (/ˈɔːrɒks/ or /ˈɑːrɒks/; pl. aurochs, or rarely aurochsen, aurochses)로 표기할 수 있으니, ‘Erige/으르+카’는 야생들소, 또는 야생고양이 마냥 거칠고 강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를 잘 나타낸 참고 자료로 일본기록에 전하는 연개소문의 다른 이름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와 다른 귀족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가 있다.

Iroquios 족의 구성원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Seneca 부족이다. 이들이 불렀던 신의 대리자였던 동물의 명칭을 보면, 이리Wolf(Hoñnat haiioñ'n)/곰 Bear(Hodidjioiñi'g)/거북Turtle(Hadiniä'děñ)/Sandpiper/도요새Snipe(Hodi'ne`si'iu')/사슴Dee(Hadinioñ'gwaiiu)/비버Beaver(Hodigěn'gegā) 등이 중요하다. 검색창:Seneca (<current calns>). 동물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헛트/헛드’가 들어 있는데, 이리(wolf)/(Hoñnat'haiioñ'n)에는 헛스: 환(狻[ji] 짐승 이름 환)과 변(狻[fán,huān] 빙빙 돌 변 {이리 환})의 음이 보인다. 이것은 Seneca 부족의 문화적 기반이 헛스와 헛트이고 아시아 지역과 관계있음을 의미한다.

25,000년 전 시베리아 사르탄 빙기가 시작되어 추웠다가 다시 더워진 23,000년 전 쯤부터 ‘이리(狻,wolf)/헛스(Hoñnat • haiioñ'n)’문화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8,000년 전의 흑한을 지내고 난 다음 15,000-17,000년 전 즈음의 다시 더워진 시기에 헛트 문화인이 대거 이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Haplogroup Q-M242 가 북아시아에서 대략 17,000-22,000년 전에 발생하였다는 것과 일치하고, 이들 중의 일부가 캐나다 브리티시 주에 살고 있는 Haida 족이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가장 초기의 역사에 의하면, Algonquins은 대서양 연안에서 아메리카 몬트리올 근처로 이주하여 최초의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고고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 오대호 연안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앙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이 바이칼 호수를 바다로 생각하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또한 바이칼 호와 북아메리카의 오대호를 바다로 생각하였을 수는 있다.

현재 동북시베리아 레나 강 주변 지역에는 Haplogroup R1a1a 사람들이 살고 있고, 북아메리카의 오대호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QM3-R1b(?)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다. 검색창:Haplogroup 이 둘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아시아의 ‘울’과 아메리카의 ‘울’을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아메리카의 Lenape(Delaware) 인의 이름에서 동북시베리아 Lena 강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는 15,000년 전 레나 강 유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Algonquins으로 불리는 원주민이라는 연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들의 이주 역사는 Haplogroup Q의 역사에 요약되어 있다. Haplogroup Q-M242은 Haplogroup P-M45의 한 지파이고, 북아시아에서 대략 17,000-22,000년 전에 발생하였다고 믿어진다. Haplogroup Q-M3 (M3)은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Haplogroup Q-M242 가 아메리카로 진출한 다음 계속 남쪽으로 이주 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으르ㄴ

으르의 준어 으르ㄴ은 으르, 으름, 으릉으로 발음할 수 있는데, 이 발음과 관련된 문화 집단과 문화 현상을 살펴본다.

①으르ㄴ(Alan)

Haplogroup C(70,000-75,000 BP /서남아시아 기원) 집단과 유라시아의 고크(*h₂ ř tkos) 신앙은 약 7만 년 전부터 있어 왔다. 이 둘의 연대가 거의 같다는 것은 당시 인류사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마도 67,500-75,500년 전의 Toba 대재앙과 관련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때부터 헝크(*(H1)el, *h₂ ř) 문화가 있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Haplogroup F(45,000-55,700 BP), Haplogroup G(9,500-30,000 BP)가 나타났는데, 35,000년 전 무렵 근동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의 이동이 있었다.

곰을 대신하는 새로운 동물 소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문화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35,000년 전이고, 이 때 Haplogroup F에서 분리된 Haplogroup G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National Geographic Society에서는 이들(Haplogroup G)을 30,000년 전에 중동에 나타난 으르ㄴ(Alan) 족의 시조일 것으로 보고, Semino et al. (2000)은 17,000년 전, Cinnioglu et al. (2004)은 9,500년 전에 이들의 유전인자에 돌연변이의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 이들이 추정된 30,000년 전/17,000년 전/95,00년 전은 기온강하 후에 전개된 기온 상승의 초기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시점이다.

당시 지구촌의 대부분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Haplogroup G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으르ㄴ("Alan")족은 자연환경의 대변화를 겪으면서 생존에 필요한 유전 인자의 진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후기구석기 시대에 이들은 홀르ㄴ으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기에 으르ㄴ으로 불리게 되었는데(홀르ㄴ>으르ㄴ), 이 중에 현재 Alan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기구석기 시대 Alan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은 필리핀 루손 섬 북서 Abra 지역에 살고 있는 Itneg (종종 "Tinguian"/"Tingguian"으로도 불림)족과 관련이 있는 전설적인 생명

체인데, Alan으로 불리는 이들은 Tinguian 부족의 민담에 (실존인물이 종교적 인물로) 재형상화된 정령들(spirits)이다. 이들은 날개가 있어 날 수 있고, 박쥐마냥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는데, 발가락은 발의 뒤에 있고, 긴 손가락은 손목에 꼭 붙어 뒤를 향하고 있다.(이런 이상한 모습의 생명체는 《산해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월경의 피와 출생 전이나 출생 후에 버려진 태아, 또는 그것과 관계되는 다른 물건들을 인간의 아이들로 변형시켜 스스로 자라게 하였다. 그들은 황금과 값어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매우 좋은 집에 있는 우물 근처에 산다. Tinguian의 전설에는 숲속에 살고 있는 Alan을 만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를 보면 이들은 정령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인데, 이들의 후손들이 필리핀 제3 계층으로 분류되는 Alipin이 아닐까 한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이전 필리핀의 신분사회 구조를 보면, 이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Visayas 지역에서는 the datu(지도자, 왕에 해당)와 datu의 혈연적 친족으로 구성된 the tumao (nobility 귀족), the timawa (warrior nobility, 서양의 봉건기사, Spanish spelling: Timagua), the oripun (commoners, serfs, and slaves 상민과 노비, 노예, 농노와 노예 중간 정도의 신분)의 3계층으로 되어 있었다. Luzon 지역 저지대와 Tagalog 어 지역은 the maginoo (귀족), the maharlika (warrior nobility, 무사), alipin (commoners, serfs, and slaves 평민, 농노, 노예)의 3 계층으로 되어 있었다. alipin, oripun, uripun, or ulipon은 같은 의미의 단어다.

Alipin은 'Ali+ pi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ali는 태국어 Xali([알리,alli]로 발음됨) 번역되니, 이는 ㅎㄹ-ㅎㄴ 다음의 '홀>올'문화시절 지배층을 칭하던 말에서 비롯되었다. datu는 신석기 시대 여름기후 ㄷㄷ 문화시절, tumao와 timawa(timaba, timaque)는 청동기 시대 ㅌㅌ 문화시절, maginoo는 철기시대 ㅌㅌ 문화시절, maharlika는 ㄹㄹ 문화시절의 지배층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면 사회계층의 하위 집단일수록 오래된 문화집단이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를 지키다보니,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춘 새로운 문화족의 하위 신분이 된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여 Tinguian 족의 전설에 아이의 출산과 관계있는 Alan을 보면, 그들은 엘브루스 산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남부 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마귀할머니 모습의 '삼신할머니'와 관계있다.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어린 아이의 태생 과정과 출산 후 아주 어릴 때의 죽음에 관여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이 "Al"이다.

올(Al)의 존어 형태가 ㄹㄹㄴ(Alan)이라면, 필리핀 Tinguian 족의 전설에 전해지는 Alan은 엘브루스 산 주변 지역의 "Al"의 일부 잔존 집단일 수도 있고, 그들의 후손이 Alipin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하였던 시절에 따뜻한 남쪽을 향해 이동하였다가, 필리핀에 고립되어 살아온 것이다. 이들이 언제 필리핀에 도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Itneg의 이름을 통해 대략 31,000년 전 대혹한 시기 이후에 필리핀에 남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본다. Itneg은 후기구석기 시대 명칭이고, 이들을 "Tinguian" ㄷㄴ(단군)으로도 부른다는 것은, Abra 지역의 Itneg들이 신석기 시대 고온기의 'ㄷㅌ, ㄷㄴㅌ, 단군'문화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Alipin은 여러 하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oro-han or horohan은 주인의 경호 무사로 봉사한다. Aliping namamahay (외거노비)는 tuhay, mamahay, or tumaranpoc로 불리어졌다. Aliping sa gigilid (술거노비)는 tomataban, alalay, hayohay, or ayuey로도 불리어졌다.

Horo-han("the hore")은 후기구석기 시대 𐏃-𐏃 * $(H1)el-Hn-$ (, "deer, hind") 문화 시절 이후의 지배층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Minangkabau 족 사회의 penghulu("noblemen")와 같은 집단이었는데, 신분이 하락되어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어 hulu는 우두머리(head)라는 뜻이고, 상류(上流)/원류(原流)/headwaters로도 번역된다. 필리핀의 Horo, 인도네시아의 hulu, 한국의 화랑(花郎)은 같은 성격의 집단이고, 영어 the hero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후의 𐏃(Alan)은 보통 아리안(Aryan)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역사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철기시대의 𐏃 문화를 퍼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랄 호와 발하슈 호 사이의 초원지대에 있었던 엄채(奄蔡 (えんさい, Yancai (lit. "Vast Steppe")국에 살았던 𐏃(Alan) 문화인이다. 이 나라는 백초(白草 [aconite])로 덮여 있었다는데, 엄채(奄蔡 Yancai (lit. "Vast Steppe")는 이 장면을 묘사한 말이고, Alan(阿蘭)은 이 풀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데, 종교로서의 𐏃은 초원의 아리안이 남하한 인도 지역에 비교적 잘 정돈된 형태로 남아 있다.

인도 불교 문화용어 “아란야는 적정처(寂靜處)·무쟁처(無諍處)·원리처(遠離處) 등으로 번역되는 범어로서, 수행하기에 적당한 숲 속, 넓은 들, 모래사장 등을 가리킨다. 아란야 법은 고요한 곳에서 행하는 수행으로서, 처음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아란야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아란야법(阿蘭若法)》

《사기(史記)》와 《후한서(後漢書)》의 내용에 따르면, 엄채는 아랄 해에 접한 초원지대에 있었던 유목민 국가로 강거(康居)의 속국이었는데, 혼련된 궁수 10만이 있었다. 엄채는 그리스어로 Alanoi, 2세기 중국기록에 아란련(阿蘭聊 Alanliao), 3세기에 아란(阿蘭 Alan)으로 기록되었는데, 더 나중에 기록된 Alanguo (阿蘭國)는 Aryan의 이란어 방언 형태이며, 그들 자신은 Iron으로 자칭하였다. 유럽의 기록에 Alans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Alan"을 문화적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검색창:Alans

검색창:奄蔡

4세기의 로마 역사가 Ammianus Marcellinus는 Alans 족을 키가 크고, 금발에 매우 흉폭하게 느껴지는 열은 색의 청목(靑目)인으로 기록하였다. 이들은 AD 4-6세기에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 지역에서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였었다. 영어표기 남성이름 Alan의 프랑스어 이름은 ‘알랑(Alain)’이고, 아일랜드 이름은 Ailín이다. Ailín의 ail은 ‘고귀한, 암(巖)’("noble", "rock")이란 뜻이다.(석기시대에는 돌에 하느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Breton에서는 alan이 여우를 뜻하는 말로 통상 사용되지만, 원래는 사슴 "deer"을 뜻하는 원(原)인도유럽어 * $(H1)el-Hn-$ "deer, hind" (perhaps denoting an animal—generally cervids—with red or brown fur)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를 통해 ‘𐏃

ᄃᆞᆫ>올은>alan'으로 변천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에 있어 Alan(阿蘭)은 북부여왕 해부루(解夫婁)의 재상이었던 아란불(阿蘭弗)에서 볼 수 있고, '아란불'은 '아란부루'의 축약형으로 보인다. 일단 '아란불'을 통해 부여는 초원을 통하여 엄채국의 Alan과 관련된 문화를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스페인의 은퇴 축구선수 Mikel Aranburu Eizagirre (1979-)에게서 볼 수 있다. 스페인의 작명 관습에 따르면 Aranburu는 제1 이름 또는 부계 가족 이름이고, Eizagirre는 제2 이름 또는 모계 가족이름이다. 스페인의 Aranburu를 통해, 이것을 가족의 성씨로 사용하는 특별한 집단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또는 신의 대리자, 태양을 상징하는 사슴을 부르는 말
 ᄃᆞᆫ>스ᄃᆞᆫ>즈ᄃᆞᆫ(히브리어 zby, 원(原)알콘퀸어 *mo·swa=M+swa=M+스ᄃᆞᆫ>M+스ᄃᆞᆫ>M+스ᄃᆞᆫ)
 ᄃᆞᆫᄃᆞᆫ(에스토니아어 hirv, 핀란드어 hirvi, 벵골어 Hariṇa),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라틴어 cervā, 헝가리어 szarvas),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터키어 geyik, 스와힐리어 kulungu, 페르시아어 gwzn),
 ᄃᆞᆫᄃᆞᆫ(바스크어 oreinak, 그리스어 eláfi, 아랍어 ḥayl, 영어 elk,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Old Norse elgr, Scandinavian elg/älg, 독일어 Elch, 러시아어 olen', 폴란드어 jelen', 아르메니아 yeghjeru),
 ᄃᆞᆫᄃᆞᆫ(인도네시아어 rusa, 우르두어 rnk, 힌디어 Mr̥ga=M+r̥ga, 아제르바이잔어 maral, 한자어 록(鹿[lù]))
 요루바어 agbṛnrin, 이그보어 mgbada.

언어표15. (사슴)

② ᄃᆞᆫᄃᆞᆫ(Alang)

ᄃᆞᆫᄃᆞᆫ(Alang)은 이란 호라산 주 Alang (Persian: آلان, also Romanized as Olang) 마을, 인도 구자라트 주 Alang 마을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Selangor에는 왕의 이름 Alang에서 따온 Raja Alang 사원이 있다. 왕명은 보통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Alang은 Alan의 프랑스어 이름 '알랑(Alain)', 인도네시아어 Orang("사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로 숲에 사는 사람을 "orangutan" (orang-utan, orang utan, orangutang, and ourang-outang)이라 부르는데, 스페인의 철학자(1909. 6. 9 스페인 아빌라~) José Luis Aranguren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 "Aranguren"으로 불리었다는 것을 참고하면, "orangutan" 역시 신의 아들, 신인(神人)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Orangutan과 Aranguren의 'Orang/Arang'을 볼 적에 Alang(,Arang)은 원(原)인도유럽어 *(H1)el-Hn- ('ᄃᆞᆫᄃᆞᆫ>올은>alan')에서 유래된 '신(神)·인(人)'을 칭하는 말이고, 이는 남아프리카·인도·인도네시아·멜라네시아에 이르는 들판에 잘 자라는 "띠" 또는 "삐비", "빨기"라고도 하는 풀을 칭하는 인도네시아어 "Alang-alang"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풀은 일본어로 치가야(ちがや(茅·白茅)로 불린다. 이것으로 만든 아사쯔노나와(あさぢのなわ 浅茅の輪)는 띠를 왼쪽 방향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로, Harae はらえ(祓) 祓え/おはらい(御祓)를 할 때, 온몸을 정화하는 데 쓰여 진다.

이를 통해 "Alang-alang"은 신을 상징하는 식물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을 칭하는 말 "Alang-alang"은 필리핀의 지명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현지 말로 "우유부단한, 대충"이란 뜻이다. 이 말에는 지도자가 여유를 부리면서 은근슬쩍 어물어물 일을 처리하는 사회 말기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얼른**<어른 ≤월석序:2>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곧바로.”, **얼른얼른**:①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매우 빨리 ② 무엇이 눈에 희미하게 자꾸 크게 보이다 말다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어른어른,아른아른:무엇이 시야에 슬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알랑알랑**: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꾸 비위를 맞추거나 아양을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어랑어랑**:‘야들야들’의 방언(제주). 이들이 들/야들야들 율기가 많이 나고 보들보들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에는 으르ㄴ 사회 집단의 초기나 중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면 ‘으르ㄴ · 올르ㄴ’문화의 최초 모습은 무엇일까. Alan을 Haplogroup G(9,500-30,000 BP)와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우선 카스피 해와 아랄 해 주변 엄채국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H1)el-Hn- (‘**꺍꺍꺍>올은>alan**’)이 문화적 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Toba 대재앙 이후 나이지리아 일대와 제주도 한라산 일대가 인류 문화의 새로운 시작 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에서 ‘으르ㄴ · 올르ㄴ’의 음이 있는 신의 이름을 찾아보면, 나이지리아 Igbo 족의 말 Ala가 있다. 이는 대지("earth")를 뜻하는 말인데, 종교적으로는 도덕성과 풍요, 그리고 대지모의 자궁인 땅속에 묻혀있는 죽은 조상들을 책임지는 지령(地靈, The earth spirit who embodies the workings of the world)이다.

Ala는 대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녀를 더럽히는 타부와 범죄들은 nsq ala ("Ala의 신성모독, desecration of Ala")로 알려져 있다. nsq ala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내뱉는 한국 탄식어가 ‘어라!’이다. 대지와 지하세계의 의미가 있는 Ala는 한국어 ‘아래(下)’와 통하고, 터키어로 밭(田)을 Alan이라 한다. 그리고 Igbo 족의 신앙에 있어 Chukwu의 지상 현신(現身)을 나타내는 말은 uwa인데, 이를 만난다는 것은 신을 만나는 것이니 매우 놀랄 일이다.

이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한국어 우와! (①뜻밖에 생긴 좋은 일로 기쁘거나 놀랐을 때 내는 말 ②감탄이나 놀라움 따위를 나타낼 때 내는 말), 와(1.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말 2.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려고 할 때 내는 말)이다. 일본어 우에(うゑ 上/1.귀인의 자리에 가까운 곳. 특히 주상(主上)의 御座所おましどころ에 가까운 곳/2.천황. 주상(主上))의 축약형 한국어 ‘위(上)’는 아마도 uwa(=U+wa)와 연관 있고, ‘아래(下)’는 Ala와 연관 있을 듯하다. 두 단어는 나이지리아 지역과 원(原)한국어 지역이 늦어도 30,000년 전에 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올르ㄴ · 으르ㄴ 문화의 역사 또한 그 정도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신(地神)을 나타내는 올르(Ala)의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이 전통적으로 신이 내린 허브 치료제로 사용되어온 알로에(Aloe (/ˈæləʊiː / or /ˈæləʊ/), Aloë)이다. 알로에는 적도권 · 남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요르단 · 아라비아 반도 · 인도양의 여러 섬들(Mauritius, Réunion, Comoros, 등)이 원산지인데, 지금은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자라고 있다. 알로에의 분포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Alang-alang"으로 부르는 풀‘띠’의 분포 지

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Aloë와 Alang-alang은 대지의 여신을 칭하는 말 "Ala"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알로에와 Alang-alang(띠)의 분포지역은 이 문화의 전파로이기도 하다.

또한 신을 나타내는 올르(Ala)는 지상에 있는 Chukwu 신의 화신물(Chukwu's incarnations in the world (Igbo: uwa) are the Alusi)을 나타내는 Igbo 족의 말 Alusi(, Arushi, Anusi, or Arusi)와 관계있는데, 이 말은 태평양 외딴 섬 하와이에서 사용되는 Aloha에서 볼 수 있다. Aloha는 신의 자비(affection, peace, compassion, and mercy.)를 나타내고, 이는 사랑("love")을 뜻하는 사모아 어 alofa와 마오리 어 aroha에서도 볼 수 있다. 하와이어 민간 어원학에서는 { Aloha = alo("presence," "front," "face," or "share;") + ha("breath of life" or "essence of life.") }로 해석하는데, Aloha의 정확한 어원은 ‘**ᄒᆞᆫ ᄒᆞᆫ ᄒᆞᆫ**>**올르 ᄒᆞᆫ**>Aloha,Aloka,Alosa>Alusi’이다.

③으르스(으른, 으름, 으렁)

으른의 대표적인 것으로 아리안(Aryan)이 있고, 히브리 성경과 쿠란에는 모세의 손위 형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Aaron(/'ɛərən/)이 적혀 있다.

으름은 기독교 성경에 중동 지역에 Aram 국이 있었다. 이 나라 사람을 Ahlamu and Amurru, Arameans, or Aramaeans, (Aramaic: **אַרַמְיָא, אַרְמֵי** ; 'aramáyé)Amorites (/æmə,rarts/; Sumerian **𒌦𒍪** MAR.TU; Akkadian Tidnum or Amurrūm; Egyptian Amar; Hebrew **עַמּוֹרִי** 'Ĕmōrī; Ancient Greek: Ἀμορραῖοι)라고 하였는데, BC 24세기에 나타나서, 21-17세기 말 BC에 걸쳐 여러 도시국가를 세웠다. 히브리 성경에 노아의 손자 Aram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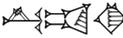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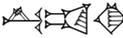
으렁으로는 한국 밀양 아랑 전설의 주인공 ‘**으르ᄒᆞᆫ**’ 있다.

④으르 아라리

인류의 낙원에 대한 생각은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애초 낙원은 하늘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면서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세상이었고, 그곳을 칭하는 말이 한국어 ‘우리/울(타리)’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가장 오래 된 주거용 ‘우리’는 올두바이 협곡 유적의 상부 제1층 하부(170만-185만 년 전)의 호수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곳에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가장자리를 다시 용암덩어리를 둘러싼 원시 형태의 움막이 지어졌었다. 이런 형태의 집은 현재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살면서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 안은 신(,의 대리자) 울(Ur)이 계시는 지상낙원/지상천국이다. 이곳을 현실 속에서 찾는다면, 강이나 바다에 떠 있는 섬이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맹수의 위협이 없는 섬,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낙원일 것이다. 이렇게 강과 호수 가운데 있는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낙원이었다. 해

안을 따라 형성된 열도의 섬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강가의 성(城)이 발달하게 되었고, 물로 해자(垓字)를 두른 성이 낙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나타낸 말이 수메르의 도시국가 Ur(Sumerian: Urim;[1] Sumerian Cuneiform:  URIM2KI or  URIM5KI;[2] Akkadian: **Uru**; Arabic: **أرو**), 만주의 ‘우라’이다. 성(城)은 청동기 시대 이후 전쟁이 많아진 이후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후 서서히 천상낙원이란 개념이 형성되면서, 낙원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을 뜻하게 되었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집트어 Aaru · Yaaru · Iaru · Aalu이다. 이집트 신화에는 심판을 받은 영혼은 15개 또는 21개의 하늘에 떠 있는 섬을 지나서 천국 Aaru의 영원한 곳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지상낙원의 섬이 천상낙원의 섬으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수메르 신화의 아라리 "a-ra-li"로 불리는 신당(神堂)이다.

“큰 풀 속에 머리를 숨기겠다. 내 자리를 알리지 말라. 아라리의 수로(水路)에 숨겠다. 내 자리를 알리지 말라” 《수메르신화》(,조철수,2003)

수메르인들이 말한 ‘아라리’는 저승으로 가는 수로에 있는 신당인데, 사자의 영혼은 아마도 이곳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수메르의 ‘아라리 a-ra-li’ 문화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비교적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 이집트의 Aaru · Yaaru · Iaru · Aalu일 것이다.

낙원과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라리 a-ra-li’ 문화는 신에게 받치는 인신공양 또는 희생제의 문화와 합쳐져, 관리(, 또는 그의 자식)의 죽음과 결부된 문화의 일부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그것이 한국 밀양의 아랑 전설이다. 한국의 아랑(阿娘)과 같은 이야기는 중국에 많은데, ‘해랑(解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랑(해랑) 설화는 희생제의에 받쳐지는 제물로서의 신의 자식 으르스 또는 사후에 심판 받은 영혼 으르스 이야기가, 시간이 너무 흘러 원형을 상실한 채 지방 관리의 죽음 또는 관리 자식의 죽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있어 보이는 북만주 어원커(鄂温克)족의 ‘ARENKI’란 말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아직 저승에 이르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인 망혼(goost)을 가리키는데, 저승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온 혹은 되살아난 혼령’으로 몸을 갖진 못했으나 힘을 갖고 있는 혼령을 말한다.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S.M. Shirokogoroff,p138)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아리양·쓰리양의 의미와 어원에 대한 연구>(우실하,2004)

어원커 족의 《악한(鄂漢)사전》

ARI[ari] ①요정,마(魔)②귀화(鬼火), 도깨비불, (저승으로 가는 강가에 떠도는)반딧불

ALIG[aliγ] ①산허리, 산기슭②산을 넘는 고개

ALIRANG[aliraŋ] ①영접하다, 맞이하다②받아들이다, 승인하다, 허가하다③담당하다, 맡다, 책임지다 ④ 책임지고 맡다, 독단하다 ⑤인내하다, 참고 받아들이다, 용인하다 ⑥주최하다, 주관하다.

언어표16. (ARI, ALIRANG)

어원커 족의 말 ‘아리’는 죽은 자와 관련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알리랑 alirang’은 죽은 자의 영혼보다는 그것을 맞이하는 저승의 심판관의 분위기가 난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의 아리랑 노래는 저 세상으로 가는 아랑에 대한 이별의 노래이다.

수메르의 ‘아라리 a-ra-li’와 이집트의 Aaru · Yaaru · Iaru · Aalu, 한국의 아랑과 아리랑, 만주의 ARI[ari] ALIRANG[alirang]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 인도 힌디어 Ari는 순수한 종교적 지도자와 같은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말레이시아 Selangor에 있는 석탄 광산 마을 Batu Arang이 있고, Jalan Arang(, Sarawak, Malaysia) 마을이 있다. 12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자바와 발리의 민담에 등장하는 Calon Arang이 있고, 타이완에 아리산이 있고, 전통 민요 ‘아리산의 아가씨’가 있다. 제주도에 아라동(阿羅洞)이 있고, 이곳과 연결되는 한반도 서남단 끝에 어란진(於蘭鎭)이 있고, 이 일대의 진도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으로 연결되고, 이는 함경북도 중부의 어랑군(漁郎郡), 만주의 ARI[ari] ALIRANG[alirang]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으르 아라리 문화가 해안을 따라 전파된 경로를 알 수 있다.